

수입차 美보다 3000여만원 비싸 한국 소비자는 봉?

“수입차시장 성장세에 편승
고가 정책으로 폭리” 지적
업체 “음선이 다르다” 해명

수입차의 한국 판매가격이 미국보다 많
게는 3000만원 이상 비싼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최근 수입차 시장의 성
장세가 가파르자 각 업체가 타 국가보다
고가로 가격을 책정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
는 지적도 나온다.

27일 국내 수입차 판매 1위인 BMW의
미국 판매 사이트에 따르면, 현지 스파티
버그 공장에서 생산되는 'X5 xDrive35d'
의 생산자권장가격(MSPR)은 사양에 따
라 5만6600달러부터 시작된다. 이를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5799만원이며, 여기에 평
균 7%대의 미국 판매세를 적용하면 X5의
현지 판매가격은 약 6205만원인 것으로
분석된다.

반면 같은 공장에서 생산돼 한국에 수
입되는 'X5 xDrive30d'는 국내에서 9330
만원부터 판매되고 있다. 비슷한 성능의
차급이지만 한국의 판매가격이 미국보다
3125만원 비싸다.

BMW 'X3 xDrive28i'의 미국 판매가격
은 4만4000달러(약 4429만원, 이하 판매세
포함)다. 같은 차량은 국내에서 2411만원
더 비싼 6840만원으로 가격이 책정됐다.

도요타 미국 공장에서도 생산돼 국내 수
입되는 '아발론'도 한국과 미국 간 가격 차
이가 있다. 아발론 3.5e 가솔린의 미국 최고
급 사양 가격은 3만9650달러(약 4347만원)
이지만, 해당 모델의 국내 판매가격은 543
만원 비싼 4890만원이다.

수입차의 한국과 미국 가격 비교

단위: 만원

	한국 판매가격 (A)	미국 판매가격 (B)	A-B
BMW의 'X5'	9330	6205	3125
BMW의 'X3'	6840	4429	2411
포르세 '마칸 S'	8240	5471	2769
도요타의 '아발론'	4890	4347	543
혼다의 '어코드'	3250	2407	843

* 미국 판매가격은 환율 1024.6원, 판매세 7% 적용

이에 대해 이들 업체 관계자는 “한국에
들어오는 제품은 국내 소비자들이 원하는
옵션들이 기본 장착돼 있는 고급 사양이라
가격 차이가 난다”며 “국내와 미국의 판매
가격을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
다. 그러나 옵션을 모두 적용해도 3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는 것은 설득력이 없
다. 이는 국내 생산기지가 없는 수입차 업체도
국내 판매가격을 다른 국가보다 크게 부
풀리고 있다.

포르세는 독일에서 생산하는 '마칸 S'를
미국에서 4만9900달러(5471만원)로 책정
했다. 그러나 포르세코리아는 같은 모델을
지난 20일 국내 출시하면서 미국보다 2769
만원 비싼 8240만원으로 가격을 결정했
다. 이날 김근탁 포르세코리아 대표는 “가
격을 결정할 때는 전체적인 시장 규모도
반영한다”고 해명했다.

한편 수입차 국내에서 폭리를 취하는
것이 아니냐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
면서 최근 자동차의 해외 직접구매(직구)
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미국 중고차 거래 사이트에서 차량을 들
여오는 병행수입이 최근 크게 늘어나는 추
세”라고 말했다. 최재혁 기자 freshphase@

소비자심리지수 8개월만에 최저

세월호 참사 반영 첫 조사...소비급랭 서민경제 위축
내수침체에 자영업자 줄도산 사회안전망 붕괴 '비상'

'서민경제 온도계'인 자영업자가 벼랑 끝
에 몰리고 있다. 내수 침체 장기화에 자영
업자 수가 급감하고 있으며 소득은 뒷걸음
질치고 있다. ▶관련기사 4-5면
여기에 지난 16일 세월호 참사 이후 소
비심리가 급랭하면서 서민경제가 더욱더
위축되고 있다.

당장, 27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소비
자심리지수(CCSI)는 105로 전월보다 3포
인트나 급락했다. 8개월 만에 최저 수준이
다. 한은의 이번 조사는 사실상 세월호 참
사가 반영된 첫 조사 결과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분기 2인 이상
도시 가구 중 자영업자가 대부분인 근로
자 외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356만5000

원으로 임금근로자 가구의 497만4000원
에 비해 140만원가량 낮았다. 근로자와
근로자 외 가구의 소득 격차는 작년 4분
기 112만원보다 28만 정도 더 벌어진 수
준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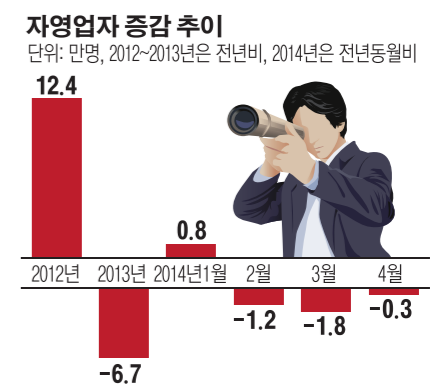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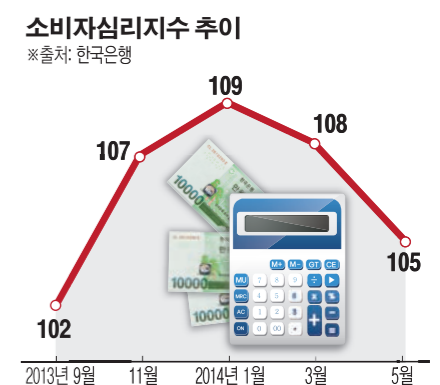
지난 1분기 전국 가구당 월평균 사업소
소득도 3.2% 늘어나는 데 그쳐 평균 소득 증
가율(5.0%)을 밑돌았다. 같은 기간 근로소
득이 5.3%나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자영업자가 임금근로 가구보다 빈곤층으
로 추락할 가능성이 더 크다는 점을 시사
한다.

영세 자영업자들의 삶이 팍팍해지자
2012년 전년 대비 12만명이나 늘었던 자
영업자 수는 지난해 6만7000명 줄었다. 올

해에도 1월 8000명 소폭 늘다가 2월 -1만
2000명, 3월 -1만8000명, 4월 -3000명 등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진입 장벽이 낮
은 음식·숙박업이나 소매업 등에서 과열
경쟁으로 인한 적자 누적과 부채 압박으로
퇴출당한 영세 자영업자들이 늘어나고 있
다는 얘기다.

그러나 자영업자를 위한 다각적인 사회
안전망 대책은 사실상 전무한 실정이다. 정
부는 이르면 이달 말 자영업자 창업교육과
자금 지원제도를 개선하고 생업 안전망을
확충해 폐업·도산 후 최소한의 생계를 보
장해 줄 수 있는 자영업 지원 종합대책을
내용을 예정이다. 현재로서는 영세 1인 자영
업자에게 고용보험료 50%를 지원해 0.3%
에 불과한 가입률을 끌어올리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하지만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가 고용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다른 자영업자와
의 형평성 문제,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전



면적 확대 우려 등의 이유로 난색을 표하
고 있어 제대로 추진될 수 있을지 의문이
다. 전민정 기자 puri21@

기업 10곳중 4곳 매출 역성장

'제자리걸음'한 업체도 19%... 대기업 실적부진 中企로 전이

국내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이 지난해 매
출 부분에서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과
NICE평가정보에 따르면 국내 유가증권
과 코스닥 상장, 비상장 외부감사 기업 2만
2103곳 중 42.4%인 9372개 기업의 지난해
매출이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이 매출 부분에서
역성장을 한 셈이다.

분야별로 보면 유가증권 상장기업 784
개 중 49.9%인 376곳의 지난해 매출이 전
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전년 대
비 매출액 증가율이 5% 미만인 기업도
19.4%로 매출이 제자리걸음을 걷거나 역
성장한 유가증권 상장기업이 전체의 67%
가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매출액이 전년보다 20% 이상 늘
어난 유가증권 상장기업은 전체 785개 중
10%인 79개에 불과했다. 특히 매출이 역성
장하는 유가증권 상장기업의 비중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지난 2010년
국내 유가증권 종목 중 매출액 증가율이
마이너스를 기록한 기업의 비중은 21.3%
에 불과했다. 하지만 이듬해 27.7%로 늘기
시작해 2012년에는 39.9%로 급격히 증가
했다.

코스닥 상장사와 비상장 외부감사대
상 기업의 상황도 마찬가지다. 2010년 매
출액이 전년보다 줄어든 코스닥 상장사의

비중은 23.5%(225개)였다. 그러나 2011년
29.9%로 늘어난 후 2012년 42.1%, 2013년
44.9%로 매년 증가세가 이어지는 등 불황
의 골이 깊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유가증
권과 코스닥 상장사를 제외한 외부감사법
인 2만350개 기업 중 42.1%인 8560개 기업
이 지난해 전년 대비 매출액 증가율이 마
이너스를 기록했다. 매출 역성장을 겪고 있
는 외감기업의 비중은 2009년 36.8%에서
이듬해 25.5%로 크게 줄어든 듯했지만
2011년 27.2%로 다시 늘기 시작했다. 이후
2012년 38.2%로 급격히 늘어나더니 지
난 해에는 10곳 중 4곳 이상이 매출 부분에서
전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국내 내수 중심 기업들의 매출이
줄어들면서 관련 협력사들의 매출이 함께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업계 관계자는 “부동산과 유통 관련 대
기업들의 매출이 줄거나 제자리걸음을 하
면서 협력사인 중소기업들에 영향을 그
대로 미쳤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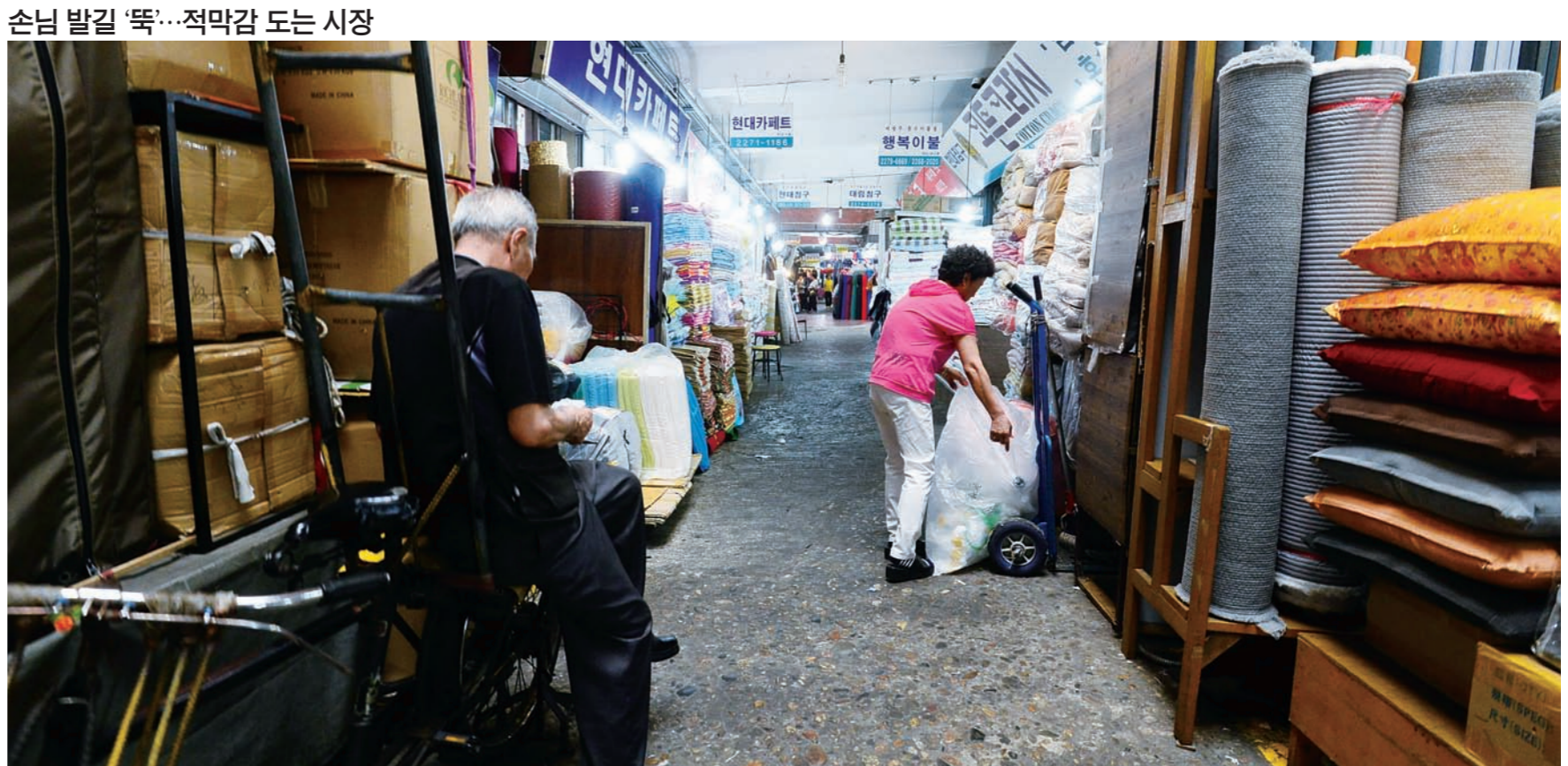
현유섭·김희진·박용남 기자 hyson0214@

Market **화요일**
19~24일

커버스토리
재무제표로 본 기업 성적

경제신문 이투데이
모바일로 만나세요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
으면 모바일로 이투데이 뉴스
와 지면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안드로이드 앱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가 생산과 소비 등 민간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사고 피해자 가족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는 분위기가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 27일 오전 서울 종로 광장시장이 시민들의 발걸음이 줄어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산은 vs 동부, 긴급자금 담보 놓고 신경전

“금회장 장남 보유 동부화재 지분도 내놔야”...“초법적 발상, 다른 의도 깔려”

산업은행과 동부그룹이 지난 4월 대출
해 준 1260억원 긴급자금의 추가 담보 제
공을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산은측은 대출받을 때 제공한 30억원
상당의 김준기 회장의 자택과 동부화재 지
분(6.93%)으로는 담보가 부족하다며 장남
김남호(동부제철 부장)씨가 보유하고 있
는 동부화재 지분 14.06%를 추가로 내
놓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동부그룹측은 “법적 통념상

문제 있는 초법적 발상”이라며 “추가적 동
부화재 지분 요구는 다른 의도가 깔려 있
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지난 4월 동부그
룹의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은 1260억원
을 긴급 지원하면서 김준기 회장의 자택과
동부화재 지분을 담보로 설정했다. 그러나
산은은 담보가 부족하다며 김남호씨의 동
부화재 지분 14.06%를 추가로 요구했다.

현재 김남호씨가 보유한 동부화재 지

분은 이미 10개 금융회사에 담보로 잡혀
있다. 그러나 후순위담보 여력이 1000억
~1200억원가량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산은 관계자는 “긴급자금 추가 담보 요
구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며 “(김남호씨
소유 동부화재 지분 담보 제공과 관련해)
김남호씨가 경영에 직접 참여한다면 담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만
금 동부측에서 결정해야 할 문제”라고 말
했다.

이에 대해 동부그룹 관계자는 “김 부장
의 지분은 동부화재의 경영권을 가진 것
으로, 그룹으로서는 (담보 여부를) 생각해 본
적이 없다. 법적 통념적으로 문제 있는 초
법적 발상”이라며 “그들의 구조조정은 비
금융 계열사를 두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
다.

현재 동부그룹 금융계열사 지분은 대
부분 동부화재에 몰려 있다. 동부화재는
동부생명 지분 92.94%, 동부증권 주식
19.9%를 보유하고 있으며 동부증권은 저
축은행과 자산운용, 캐피탈 지분을 보유하
고 있다. 과거 동부그룹 금융계열의 금융
지주 전환을 준비하면서 금융계열 지분구
조를 동부화재로 수직화했다.

김구귀·김경아 기자 kkk@

유원상 부사장 ▶ 정영택 국장 ▶ 16

Graphic NEWS

월급 2주도 못가 바닥난다

직장인 10명 중 8명이 월급을 받아도
다음 월급날 전까지 경제사정이 어려운
'월급고개'를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 취업포털 사람인이 직장인
1305명을 대상으로 “귀하는 월급고개
를 겪고 있습니까?”라고 질문한 결과
60.8%가 '겪고 있다'고 답했다.
이들이 월급을 소진하기까지 걸리는
기간은 평균 12일이었다. 이는 2012년과
2013년 조사 당시 평균(16일)보다 4일이
나 빨라진 것이다. 월급고개를 겪는 이유

61% 월급고개

직장인 월급 소진 기간 평균 12일
(월급고개 겪는 이유)

월급이 적어서 60.9
대출, 카드할부 등 빚이 많아서 44.1
생활비가 많이 들어서 *단위: % (복수응답) 38.3

로는 '월급이 적어서'(60.9%, 복수응답)를
첫 번째로 꼽았다. 유혜은 기자 euna@

30대여성 '출산보다 출근'

지난해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
이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 월 기준으로
는 지난달 최고점을 찍었다.
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은 57.0%로 통
계치가 있는 2000년 이후 사상 최고였
다.
월 기준으로는 지난달 58.4%를 기
록해 최고기록을 경신했다. 전월보다
1.2%포인트나 급등했다. 30대 여성의
경제활동이 꾸준히 증가한 데는 저출산

57% 사상 최고

30대 여성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 출처: 통계청

56.1, 55.3, 55.5, 56.0, 57.0, 57.0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에 따른 육아 부담 감소를 요인으로 꼽
을 수 있다. 박성영 기자 sympark@



임영록·이건호 파워게임 “갈 데까지 간다”

〈KB금융지주 회장〉 〈국민은행장〉

진상조사위 구성 놓고 사실상 실력 행사 들어가 임 회장, 이 행장 면담 “수습하라” “알겠다” 말만 30일 이사회 분수령... 금감원, 사태 진화 난항

“누군가 한 명은 벼랑 끝에 몰리게 됐다.” 임영록(사진 왼쪽) KB금융지주 회장과 이견호 국민은행장의 갈등이 파워게임 양상을 보이자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이같이 말했다. 전산시스템 교체 과정에서 내용을 겪고 있는 KB금융그룹이 이사회와 긴급 면담 등을 연거푸 열면서 사태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이미 돌아오기 힘든 길을 걷는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임 회장 측 국민은행 사외이사들이 이 행장과 정병기 상임감사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태의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려는 적극적인 움직임이 보이자 양측이 사실상 실력 행사에 들어갔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이 행장 입장에선 오는 30일로 예정된 이사회에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지는 않건이 상정될 경우 또다시 이사회 효력 정지 가처분신청 카드를 꺼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결론이 어떻게 나든 한쪽은 치명상이라는 예상이 나오는 대목이다.

◇ 진상조사위 구성 놓고 갑론을박 = 전산시스템 교체 문제를 둘러싸고 발생한 갈등이 일주일째 접어들자 이번에는 사태 확산과정을 명확히 하자는 진상조사위 구성을 둘러싸고 치열한 기 싸움을 벌이고 있다.

사외이사들은 지난 23일 열린 이사회에서 진상조사위 구성을 제안했지만 금융감독원에 특별감사를 요청한 이 행장 측에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사외이사들이 정감사가 자체 조사한 감사보고서를 토대로 금감원에 특검을 요청한 것을 두고 신뢰할 수 없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이다. 이에 이 행장 측은 사외이사들이 감사보고서를 수용하지 않으면서 진상조사위를 통해 다시 조사하자고 나선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 또한 이 과정에서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앞서 특검을 진행 중인 금감원은 이사회에 진상조사위 설치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표명했다. 금융당국의 특검 자체를 불신하고 있다는 방증

KB금융, 전산 교체 관련 일지

2013년 7월	국민은행 전산시스템 교체 외부 컨설팅 용역	5월20일	국민은행, 이사회 결정 가져본 신청 검토
10월	국민은행, 금감원에 전산시스템 전환 관련 보고	5월21일	전산교체 입찰에 SK C&C 한국만 참여
11월	국민은행 경영협의회, IBM에서 유닉스로 변경 결정		은행 사외이사, 긴급 이사회 23일 소집
2014년	한국IBM 사장, 이견호 행장에게 IBM가격 인하 내용	5월22일	임영록 회장, 은행장 중심으로 통합 지시
4월14일	등 이메일 보낸	5월23일	이사회 개최, 진상조사위 구성 놓고 격론
4월24일	이사회는 2대로 유닉스 전환 결정	5월28일	임영록 회장, 이견호 행장 면담서 30일 빠른 해결 요구
5월16일	감사위원회, 정병기 감사의 감사보고서 채택 거부		
5월18일	국민은행, 19일 이사회 소집을 지주에 보고		
	KB지주, 감사위원회 의견 따르라고 공문 발송		
5월19일	이사회, 정병기 감사 보고서 채택 거절		
	정병기 감사, 금감원에 보고 및 금감원 특검 촉구		

이기 때문이다. 자칫 KB금융그룹 내부 사태가 금융당국으로 확대될 개연성에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이 같은 상황에서 긴급하게 이뤄진 임 회장과 이 행장의 면담이 별다른 성과를 얻지 못하는 것은 자명한 일이다. 26일 면담은 임 회장이 제안한 것으로 임 회장이 “사외이사들과 협의해 하루빨리 수습하라”고 말하자 이 행장이 “알겠다”고 답하는 등 원론적인 말만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30일 이사회, 내용 정점 찍는다= 금융권은 이번 갈등의 파급력은 상당하다고 진단하고 있다. 지주회사 회장과 은행장이 충돌하면서 은행 부문 포지션이 절대적인 지배구조상 사실상 별도의 파워게임이라는 것이다. 이에 KB금융의 고질적 병폐인 과별이 이 사태로 확산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이번 내분사태는 30일 열린 이사회가 분

수령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현재 어느 한쪽이 쉽게 물러설 수 없는 상황이라서 봉합이 쉽지 않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중론이다. 특히 진상조사위 설치 못지않게 오는 29일 오후 3시까지 연장된 전산시스템 입찰 또한 이날 이사회에 핵심 변수다. 현재 SK C&C 한 곳만 참여해 유효경쟁이 성립되지 않았지만 추가 입찰자가 나올 경우 사외이사 뜻대로 전산시스템이 유닉스 체제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 이 행장 입장에선 지난 달 24일 이사회 결의에 대한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다시 꺼내들 수도 있는 상황이다.

이미 칼을 뽑은 금감원도 내분 사태를 봉합하더라도 이번 사태를 대충 무마하기는 어려웠다. 부당행위가 밝혀질 경우 어느 한쪽의 피해는 적지 않을 전망이다.

인철우 기자 acw@



현정은, 엘리베이터 해외시장 強드라이브

〈현대그룹 회장〉

중국 법인 실적개선... 연내 제2공장 추가 건설 예정 브라질 월드컵·올림픽 이벤트... 남미 확대 거점 선택

현정은(사진) 현대그룹 회장이 현대엘리베이터의 글로벌 시장 공략에 드라이브를 걸었다. 한국과 중국, 브라질을 3대 생산거점으로 삼아 해외 비중을 차츰 늘려간다는 계획이다.

현 회장은 최근 현대엘리베이터 창립 30주년 사사 발간 기념사에서 “한국-중국-브라질”을 잇는 국내외 3대 생산거점을 바탕으로 “최고”를 넘어 “유일”을 향한 위대한 도전을 시작하자”고 강조했다.

업계에서는 현 회장의 이 같은 발언이 이제는 국내보다 해외로 눈을 돌리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포괄돼 있는 것으로 풀이하고 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 1993년 중국 현지 투자자와 조인트벤처 형태로 ‘상해현대

전제제조유한공사(상해현대)’를 설립했다. 중국은 연간 신규 승강기 설치 대수가 50만대에 이르는 세계 최대 시장이다. 승강기 50만대는 우리나라에 설치된 승강기 수를 모두 더한 것과 같은 수치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중국 내수 공략을 위해 올해 연말까지 제2공장을 추가로 건설할 예정이다. 수주 목표도 전년(7687대)보다 25% 늘어난 9610대로 계획하고 있다.

상해현대의 실적에도 의미 있는 변화가 감지된다. 상해현대의 최근 10년래 순이익을 보면 2004-2010년까지 10억원 안팎 수준에 불과했다. 2011-2012년 12억-48억원 가량의 순손실로 돌아섰으나 지난해 64억원의 순이익을 거뒀다.

현대엘리베이터는 남미 시장도 개척한



다. 남미 시장 확대의 거점으로는 브라질을 선택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지난 4월 브라질에 연간 3000대를 생산하는 승강기 공장을 준공했다. 브라질은 올해 월드컵이 개최되고 2년 뒤 올림픽이 열리는 등 건설 붐이 일고 있는 곳이다. 조남호 기자 spdran@

유원상 ‘글로벌 유유’로 다시 태어난다

〈유유제약 부사장〉



오랜 시간 성장 담보 상태에 머물렀던 중견 제약사 유유제약이 긴 잠에서 깨어나 기지개를 켜고 있다. 유원상(40·사진) 부사장이 올해 경영 일선에 나서면서부터다.

유 부사장은 유유제약을 성장시킬 두

수출확대 역량 집중... 말레이시아에 1호 법인 계획 필리핀·태국·인도네시아·베트남 ‘5대 거인’ 수출 기지 낙점

엔진으로 ‘수출 확대’와 ‘OTC(일반의약품) 제품 라인업 구축’을 선택하고 전사적 역량을 투입하고 있다. 그는 창립 73주년을 맞은 올해를 글로벌 시장 진출의 원년으로 삼았다. 말레이시아에 골다공증 복합신약 ‘맥스마빌’을 수출한 경험을 바탕으로 올 7월 말레이시아 시장에 1호 법인을 세울 계획이다. 또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의 ‘5대 거인’을 수출의 전초기지로 낙점했다. 올 들어 그는 한 달 중 일주일만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간을 해외에서 머물 정도로 수출 신장에 대한 의지가 강하다.

유 부사장은 또 다른 승부처를 OTC 사업에서 찾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여성 미용과 관련한 시장에 눈독을 들이고 있

다.

지난해에는 바르는 즉시 필러효과를 주는 ‘업앤업 크림’을 개발, 태국시장 입성에 성공했다. 올 4월에는 현대홈쇼핑에 론칭하며 판매 목표량 대비 130% 판매를 달성하는 등 높은 성과를 보이고 있다.

물론 유력한 창업자의 손자이자 유승필 회장의 장남인 3세 경영인으로서 유 부사장이 풀어야 할 숙제는 아직 많이 남아 있다. 우선 신약 연구개발이 매출의 2-3% 수준에 머문다는 점은 미래 먹거리에 대한 고민을 던져주고 있다. 또 영업력이 타 제약사에 비해 상대적으로 부족해 다국적 제약사의 제품을 수입·유통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도 그가 극복해야 할 부분으로 꼽힌다.

박성재 기자 psi@

도전하겠습니다! 개척하겠습니다!

- 매출 15% 신약 R&D투자
- 글로벌 개량신약 국내 최초 개발
- 신약 후보 12건 글로벌 임상 시험

모두가 쉬운 길을 택할 때, 아무도 가지 않는, 새로운 길만을 개척했던 한미약품!
인류건강을 위한 혁신신약 연구개발로 삶의 가치를 높이는데 앞장서겠습니다

Global · R&D 선도
Hanmi 한미약품

다음 '카페·블로그' 카카오 속으로... '모바일 포털' 야심



국내 2위 포털업체인 다음커뮤니케이션과 국내 1위 모바일 메신저 업체인 카카오가 26일 합병해 통합법인 '다음카카오' 출범을 공식 선언했다. 최세훈 다음 대표(왼쪽)와 이석우 카카오 공동대표가 26일 서울 태평로 플라자호텔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포용하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다음카카오	네이버
다음 검색	검색
카카오톡, 마이피플	네이버 검색
카카오게임, 다음게임	모바일
카카오페이지, 다음 블로그	라인, 밴드
	게임
	라인게임, 밴드게임
	마이크로블로그
	네이버블로그

'다음카카오' 합병 공식선언

국내 모바일 메신저 1위 카카오와 포털 2위 다음커뮤니케이션의 합병이 공식 선언된 가운데, '다음카카오'의 변화에 업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새롭게 탄생되는 다음카카오의 사업 전략은 양사 대표가 26일 가진 합병 기자회견에서 일부 공개됐다. 카카오측 이석우 대표는 "다음카카오"는 IT 모바일 분야에서 커뮤니케이션, 정보, 그리고 생활 플랫폼 사업자로 성장해 나갈 것"이라며 모바일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커뮤니케이션에 집중할 것이라 전략을 내놨다. 플랫폼 사업의 특성상 양사의 중복되는 사업이 정리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플랫폼의 경우 한 서비스에 대한 집중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다음과 카카오가 모바일 메신저 등 중복되는 서비스에는 과감하게 통폐합 결정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가장 먼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으로 보이는 서비스는 다음의 모바일 메신저 '마이피플'이다. 다음 최세훈 대표는 마이피플 사업 폐지에 대해 "한 회사에 여러 가지 상품이 있을 수 있다. 시장에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방법으로 고민해 나가겠다"고 부인했지만, 업계에서는 곧 폐지 수순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마이피플은 카카오톡과 같은 메신저 기능에 스티커 구입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이외에는 특별한 유료 모델은 없는 상태다. 또 네이버 라인과 카카오톡에

모바일 기반 커뮤니케이션 강화

'마이피플' 메신저 등 중복사업 과감히 통폐합하고 역량 집중

카톡서 카페 연동 맨 '제2전성기' 광고·검색부문 시너지 창출 기대

밀려 명맥을 간신히 유지하고 있다. 반면 같은 모바일 메신저인 카카오톡은 게임하기를 비롯해 플러스친구 등 유료 사업모델을 다수 확보했다. 사용자 역시 마이피플은 2800만명, 카카오톡은 1억 4000만명에 이른다. 이 같은 이유로 업계는 다음 카카오가 마이피플에 투자할 역량을 카카오톡에 집중, 영향력을 키울 것이라 분석이다.

양사의 합병으로 기존 서비스가 사라지는 것만은 아니다. 모바일 광고와 검색 서비스는 이번 합병에서 가장 큰 시너지 효과를 거둘 것으로 전망된다. 다음카카오는 카카오톡 플랫폼과 다음이 보유한 모바일 광고 플랫폼에 검색광고 네트워크를 도입해 네이버와 견줄 만한 광고 시장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또 카카오톡 플랫폼에 다음이 운영 중인 커뮤니티 성격의 카페, 블로그 등의 서비스를 연동한 결합 서비스도 곧 출시될 것으로 알려졌다. 카카

오톡의 모바일 플랫폼 내에 다음 서비스들을 연동하면서 카카오톡이 모바일 포털로 거듭날 것이라는 전망도 설득력을 얻는다. 또 다음과 카카오 특의 서비스 결합은 네이버와 맞설 모바일 포털을 구성할 수 있는 충분한 콘텐츠와 플랫폼이 갖춰진 상태가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카카오 특에서 다음 카페에 접속할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되면, 네이버 카페에 고전을 면치 못했던 다음 카페가 제2의 전성기를 맞을 수 있을 만큼 파급력을 클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두 회사의 모바일과 PC시장 교류의 조짐은 속속 드러난다. 카카오는 모바일로만 접속이 가능했던 카카오페이지 PC버전을 합병 발표 당일 내놓으며 PC 시장 진입을 선언했다. 또 뉴스, 야고라, 웹툰 등을 카카오톡스토리에서 공유할 수 있는 기능도 준비 중이다.

특히 카카오톡을 통해 오는 6월 서비스를 선보이려던 카카오톡뉴스에도 다음 서비스가 접목될 것으로 보인다. 카카오는 포털 사이트의 뉴스 공급 방식과 유사한 모바일 뉴스 제공을 논의했지만, 이번 합병으로 다음과 함께할 수 있는 새로운 뉴스 공급 방식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 때문에 출시 일자도 다소 늦춰질 것이라 전망이 나온다. 카카오의 게임사업 부문도 분사할 것이라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는 경쟁 기업인 네이버와 유사하다. 지난해 NHN은 한게임과 네이버를 분할해 각각 NHN엔터테인먼트와 네이버로 분사했다. 다음은 이미 지난 8일 게임 사업부문을 분사하기로 결정했다. 김태현 기자 119@



'다음카카오 합병' 효과 제대로 낼까 "시너지 극대화" vs "해외공략 한계"

다음커뮤니케이션과 카카오가 26일 합병 결정을 발표하자 합병 효과를 놓고 의견이 분분하다. 코스닥 상장사인 다음이 카카오를 합병하는 모양새를 취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카카오가 다음을 끌어들이 우회상장하는 속내가 있기 때문이다.

업계에선 다음카카오가 출범하면 두 회사의 장점이 결합해 시너지가 창출될 것으로 보는 게 지배적이다. 모바일에 힘을 쏟았지만 큰 성과를 얻지 못한 다음 입장에서는 카카오의 모바일 사업역량이, 게임 이후의 다른 사업에서 재미를 못 본 카카오 입장에서 수익화 모델에 대한 다음의 노하우가 필요해 합병을 결정한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합병 후 모바일 경쟁력을 장착한 다음, 콘텐츠 운영 노하우를 배운 카카오가 긍정적 시너지를 내며 네이버와 형성하게 될 새로운 경쟁구도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이유다.

정재우 우리투자증권 연구원은 "다음의 콘텐츠 및 광고사업의 노하우가 카카오톡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확장되는 모습을 주목해야 할 것"이라며

"카카오톡은 향후 다음의 뉴스, 카페 등 콘텐츠와의 결합 및 검색서비스 도입을 통해 모바일 메신저의 중장기 성장 방향성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하지만 이번 합병 결정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합병이지만, 카카오의 입장에서는 글로벌 진출이 시급한 상황에서 굳이 PC온라인에 강한 다음의 합병이 필요해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카카오는 해외시장에 투자를 해왔지만, 워터·라인 등 글로벌 메신저에 밀려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었다. 다음과 카카오 모두 국내에서 한글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에 특화된 ICT기업이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IT 기업들이 발 빠른 의사 결정을 위해 조직을 분사하고 몸집 줄이기에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다음과 카카오는 오히려 합병을 통해 몸집을 키우는 것이 과연 도움이 될지는 두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유현 기자 yhssoo@



다음 삼키는 김범수 카카오 의장 지주사 체제 그룹으로 전환하나

지분 100% 보유 '케이큐브홀딩스' 주목

작년 4월 '아이위서비스'서 사명 변경

김범수(사진) 카카오 의장이 다음을 합병한 후 지주사 체제 그룹으로 전환할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나오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다음은 1대 1.55대 비율로 카카오톡을 합병한다고 공식했다. 합병 후 회사는 '다음카카오'로 정해질 예정이다. 합병 관련 공시에는 다음이 합병회사이고 카카오가 피합병회사이다. 그러나 합병 후 출범하는 새로운 회사는 사실상 카카오의 최대주주인 김범수 의장이 경영권과 지배권을 모두 거머쥔 예정이다.

이번 합병 발표와 함께 김범수 의장이 지분 100%를 보유한 케이큐브홀딩스의 역할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김범수 의장은 지난해 4월 소프트웨어 개발이 사업 목적인 아이위서비스의 회사 이름을 케이큐브홀딩스로 변경 등기했다. 시장 일각에서는 김범수 의장이 개인회사를 지주사 사명으로 변경한 것에 대해 케이큐

브홀딩스를 지주사로 전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현재 사업 목적과 달리 매출이 0원으로 카카오의 2대 주주 역할만 하고 있다. 게다가 다음과 카카오가 합병하게 되면 통합회사의 2대주주가 될 예정이다. 케이큐브홀딩스의 자산은 사실상 카카오 지분 23%가 전부다.

특히 케이큐브홀딩스가 합병 후 지주사의 기준의 상당 부분을 충족시킬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행법상 지주사 요건은 자산규모가 1000억원 이상이며 상장사에 대해 30% 이상 지분을 보유하면 지주사로 전환할 수 있다. 또 케이큐브홀딩스는 지주사 요건 중 하나인 부채비율 100% 이하도 모두 충족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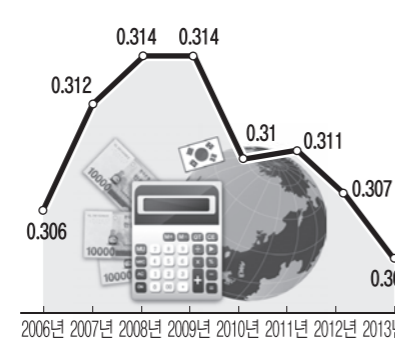
재계 관계자는 "사명에 홀딩스를 붙인 것은 사실상 지주사로 전환하려는 의지가 있는 것"이라며 "다음카카오도 사실상 지주사를 바탕으로 한 그룹 형태로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김범수 의장은 포털 사이트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 결정으로 '주식부자 1조 원 클럽'에 가입할 전망이다. 김 의장은 현재 2조9000억원으로 평가되고 있는 카카오의 지분 23%를 보유하고 있으며 개인회사인 케이큐브홀딩스를 통해서도 카카오 지분 23%를 갖고 있다. 현유섭 기자 hyson0214@

현실과 따로 노는 '소득분배지수'

통계청 발표 '지니계수' 논란

작년 0.302... 2006년 후 최저
"저소득층 사업소득 증가로 개선
경제회복세·일자리창출 효과"
전문가 "실제 0.370 안팎" 반박
"조사대상 적고 고소득층 빠져
전체 집계엔 OECD중 최하위"

1분기 가처분소득 기준 지니계수 추이
*출처: 통계청 2013년 1분기 가계동향



OECD 34개국 지니계수 비교 *출처: OECD DB

1위	아이슬란드	2010년	0.244
2위	슬로베니아	2010년	0.246
3위	노르웨이	2010년	0.249
4위	덴마크	2010년	0.252
5위	체코	2010년	0.256
6위	핀란드	2010년	0.260
7위	슬로바키아	2010년	0.261
8위	벨기에	2010년	0.262
9위	오스트리아	2010년	0.267
10위	스웨덴	2010년	0.269
...
16위	대한민국	2013년	0.302
OECD 34개국 평균			0.314

나라의 소득불균형은 OECD 최하위권이 된다.

앞서 통계청 내부에서조차도 전혀 다른 숫자를 낸 적이 있다. 통계청은 지난해 새로 개발한 소득·소비통계인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발표할 바 있다. 이를 토대로 산출한 지니계수(신 지니계수)는 0.353이었다. 가계동향을 기준으로 하는 같은 해 지니계수 0.307과 비교해 현저히 높은 수치다. OECD 34개국 지니계수 평균은 0.314다. 한국의 지니계수는 가계동향을 통해 계산하면 OECD 평균보다 훨씬 낮고 가계금융복지조사 기준으로는 OECD 기준을 훨씬 상회하게 된다.

정부가 최근 발표한 '지니계수(소득분배 지수)'를 두고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수치상으로는 분배 상황이 좋다는 결론이 나오지만 실제 상황은 다르다는 것이다.

지난해 수치 0.302는 전체 가구 단위 조사가 시작된 2006년 이후 최저치다. 숫자를 말로 풀어 쓰다면 '소득분배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으며, 특히 작년에는 조사 이래 가장 고른 분배를 보였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두고 기획재정부는 "저소득층인 1·2분위의 사업소득이 크게 증가하면서 소득분배지표가 개선됐다"며 경제회복세와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따른 효과라고 설명했다.

통계청이 가계동향을 통해 발표하는 지니계수는 정부의 '공식지수'다. 이는 각종 국제비교의 기준이 된다. 0.302는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가운데 16위에 해당한다. 북유럽 복지국가나 고소득층 형성이 미

약한 일부 동유럽 국가를 제외하면 상당히 높은 순위에 해당한다. 한국은 프랑스, 캐나다, 호주, 일본, 영국 등 선진국 상당수와 비교해도 소득분배가 고른 수준이다.

하지만 이 같은 수치에 의구심을 보이는 전문가들이 많다. 동국대 경제학과 김낙년 교수는 "통계청의 지니계수라는 것이 통계청 내부에서조차 안 믿는 숫자"라고 지적했다.

그는 "조사대상인 표본가구의 숫자도 너무 적고 무응답률도 매우 높아 고소득층이 상당히 누락된다"며 "소득세 징수자료를 기준으로 측정한다면 0.370 안팎의 수치가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가 제시한 0.370 내외라면 우리

앞서 통계청은 당초 2012년 이 수치를 발표하려다가 대통령선거 뒤로 발표시기를 미뤄 '정부에 불리한 자료를 숨겼다'는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통계청 관계자는 "조사마다 표본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경제 현실을 느끼는 체감에도 개인적 편차가 있을 수 있다"면서 "소득분배가 꾸준히 개선되고 있다는 추세 자체는 맞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익명을 요구한 한 전문가는 "2006년 이후 금융위기를 거치면서 소득불균형이 줄었다는 말을 누가 믿겠느냐"며 "정책의 나침반이 돼야 할 통계가 거짓 말을 하는 전형적 사례"라고 반박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安 "수임료로 번 11억 사회 환원" 野 "재산 형성 '전관예우' 밝혀야"

총리 내정 직전 3억 기부

기업 법인세 관련 변론 정점

안대희(사진) 국무총리 후보자가 대법관 퇴임 후 지난해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수임료 등으로 벌어들인 11억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안 후보자는 작년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급격히 불어난 재산이 문제가 되자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전관예우 논란에 대해 국민께 송구하고 이번 기회에 자신을 다시 한번 성찰하게 됐다"면서 "변호사 활동 이후 불어난 재산 11억여원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나의 소득은 변호사로서 최선을 다한 결과"라면서 "그렇다 해도 소득이 너무 많다는 생각이 소득의 3분의 1을 이 미 기부했다"고 했다.

하지만 상당 금액은 총리 내정 직전에 내놓은 것으로 파악됐다. 총 기부금 4억 7000만원 중 작년 말 1억2000만원, 올 초 5000만원을 불우아동시설 등에 기부했고, 나머지 3억원은 지난 22일 총리 내정 발표가 있기 직전 부라부라 유니세프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변호사 수임과 관련해 '말 바꾸기' 비판도 있다. 안 후보자는 지난 2006년 6월 27일 대법관 인사청문회 당시 퇴임 후 변호사 개업 의사를 묻는 질의에 "학교교육이라든지 이런 데도 관심이 많다"며 "어떤 구체적인 사건을 변호한다든지 그렇게는... 변호사 활동을 하더라도 그렇지는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고 답한 바 있다.

안 후보자는 또 세무조사 견제·감독 역할을 맡은 국세청 산하 세무조사감독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한 기업의 법인세 취소소송을 맡아 변론한 것은 부적절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두었다. "저는 항상 바르게 살아 왔다"고만 했다.

이런 가운데 야당은 안 후보자의 내정 철회까지 요구하며 벌써부터 청문회 분위기를 달구기 시작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최원식 전략기획위원



안대희 총리 후보자 재산 신고 내역 (단위: 원)

분류	명의	내용	금액
아파트	본인	서울 중구 소공로 187-08㎡	12억5080만
임차권	본인	서울 용산구 한강로 1가 사무실 등	6000만
전세권	모	서울 관악구 관악로 116.7㎡	2억7000만
자동차	본인	2005년식 제아엔	884만
현금	본인	수표 및 현금	5억9195만
	본인	우리은행 등	3억3195만
	배우자	ING생명보험 등	2억4555만
예금	장남	신한은행 등	7950만
	장녀	우리은행 등	8139만
	모	하나은행 등	1502만
차량	본인	에쿠스 VS380 프리미엄 대어	1626만
회원권	배우자	롯데호텔 피트니스 클럽	700만
채무	본인	소송채무 반환금 등	△6억4484만
	총계		22억4093만

장은 "국민은 재산 환원이 아니라 재산 형성 과정과 전관예우에 관한 진실을 알고 싶어한다"고 꼬집었다. 앞서 김한길 공동대표는 "전관예우도 이렇게 삼킨 경유는 없었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총리 후보자의 지명을 재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총리실이 안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청문회 임명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함에 따라 인사청문회는 다음달 10-11일쯤 열리고 국회 본회의 표결은 13일 정도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청문회법에 따라 국회 본회의는 총리 인사청문회에 대한 표결을 '동의안을 제출받은 지 20일'이 되는 다음 달 15일까지 처리해야 한다.

김익중 기자 zerg@

"노후준비 때문에..." 낮아진 평균 소비성향

KDI, 연령별 소비 변화 보고

은퇴후 생활유지 불안감 확산 구조적 소비활성화 대책 필요

최근의 민간소비 부진이 '기대수명의 증가'라는 구조적 요인 탓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권규호·오지운 연구위원이 26일 내놓은 '연령별 소비성향의 변화와 거시경제적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인구 고령화는 일반적으로 평균소비성

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분석 결과 가구주 중연령이 지난 2003년 44세에서 2013년 48세로 높아지는 동안 평균소비성향은 78%에서 73%로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10년간 60대의 실질 처분가능소득과 실질 소비증가율이 각각 연평균 1.2%, 0.3% 증가에 그치는 등 소득과 소비가 모두 저조했기 때문이다. 같은 기간 40대와 50대의 소득은 1.7%와 1.8%, 소비증가율은 1.3%와 1.2%였다.

특히 일반적으로 연령별 평균소비성향은 소득이 높지 않은 20-30대에 높았다가 상대적으로 고소득을 올리는 40-50대에 저조 증가로 낮아지고 노년으로 접어들면

서 다시 높아지는 'U자' 형태를 보인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중장년층의 과도한 자녀 교육비 지출로 소득이 가장 높은 40대 가구의 평균소비성향이 오히려 높게 나타나는 'W자'의 특수한 모습을 나타냈다.

연구위원들은 이 같은 고령층의 평균소비성향 하락이 최근 10년간 20대부터 70대까지 전 연령층에서 평균소비성향이 낮아지는 추세에 크게 기여했다고 봤다. 이 기간 동안 전체 평균소비성향은 4.6%포인트 낮아졌는데, 이 중 50대 이상 평균소비성향 하락의 기여도가 2.2%포인트를 차지했다. 50대 이상의 소비가 전체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33%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히 큰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연구위원들은 또 전 연령층에서 소비성향이 낮아지고 있는 원인을 은퇴 이후의 생활유지에 대한 불안감이 확산되고 있는 데서 찾았다. 평균소비성향이 하락한 것은 소득 증가에 비해 지출을 덜했다는 의미다. 실제 2000년 이후 기대수명은 매년 평균 0.45세씩 증가하고 있지만 노동시장의 은퇴시기는 이와 비례해 늘어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연구위원들은 "소비활성화 대책도 단계적 수요진작의 관점보다는 고령층의 경제활동참가를 지원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확산시키는 등 지속가능한 대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민정 기자 puri21@

차대통령 "공공기관 '도도새' 되지 말라"

정부는 오는 3분기 말 공공기관 정상화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중간평가를 실시하기로 했다.

정부는 26일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을 열고 방한경영 등 비정상적 정상화, 부채감축, 정보공개 확대 등에 대한 사례 발표와 토론을 벌였다. 이날 워크숍에는 현 부총리를 비롯해 관계부처 장관과 공공기관 기관장, 교수, 기업대표 등 230여 명이 참석했다.

박 대통령은 "도도새의 법칙이란 말이 있다. 사랑에 먹이가 널려 있어 날것짓을 잊어버릴 정도로 태평성대를 누리다가 외부의 갑작스러운 시련을 이겨내지 못하고 사라져버린 도도새에 관한 이야기"라며 "더 늦기 전에 공공기관이 적극적으로 변화와 개혁의 길에 나서 달라"고 당부했다.

기조 발제에 나선 현오석 부총리는 산하 기관에 대한 주무 부처의 적극적 독려, 노사협력 모범 사례 공유 등으로 방한경영을 조기에 정상화하고 3분기 말 기관별 정상화 실적 점검 등 엄정한 중간평가를 통해 인센티브와 제재 등의 조치를 제시했다.

공공기관 부채감축을 위한 제도 개선 방안과 관련해 구분회계 제도 확대, 예비타당성 조사 내실화, 주요 사업에 대한 사후평가제도 개선 등을 시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41개 기관의 확정된 부채 감축



박근혜 대통령이 2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외교부청사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시스

정상화 계획과 295개 기관의 방한경영 정상화 계획을 통해 오는 2017년에는 대부분 공공기관의 재무구조가 건실하게 바뀔 것이라고 예상했다.

정부는 2017년까지 대부분 공공기관의 재무구조를 이자보상배율 1 이상, 부채비율 200% 미만으로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현 부총리는 또 공기업의 안전 관련 예산과 인력 점검 등으로 안전 기능을 강화하고 안전 관련 정보 공개, 국민 제보 활성화

화 등 안전 사각지대를 없애는 노력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청년·여성·시간제 일자리, 대체인력 채용 활성화 등을 통해 공공기관의 채용 규모를 확대하고 직무능력 평가 도입 등 스펙 초월 방식으로 공공기관의 채용제도도 지속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지역 인제 채용, 지역 기업 및 지방자치단체와의 소통 강화 등으로 공공기관의 지역 경제 기여도를 높여기로 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정상화 실적 3분기말 중간평가 기관 부채감축 방안 등 제시

세월호 국조계획서 처리 불투명

여야, 증인채택 의견차 여전

특위 운영과정서 재논의할 듯

오늘 의장단·상임위원장 선출

국회는 27일 본회의를 열어 19대 후반기 국회의장단을 선출한다. 여야는 본회의의 전 각각 의원총회에서 후반기 상임위원장 인선 작업도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다수당인 새누리당의 정의화(5선·부산 중구동구) 의원이 후반기 국회의장으로 확정된다.

무기명 투표를 통해 과반 찬성으로 선출되는 과정을 거치지 않, 앞서 23일 새누리당 의총을 통해 결정된 단독 후보인 만큼 '판례'대로 무난히 차기 의장직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여당 몫 국회부의장 후보도 정갑윤(4선·울산 중구) 의원으로 정해진 상황이다. 남

은 야당 몫 부의장 후보는 이날 새정치민주연합 의총에서 표결한다. 5선의 이석현(경기 안양 동안갑), 이미경(서울 은평갑) 의원과 4선의 김성곤(전남 여수갑) 의원이 후보로 나서 3파전을 벌이고 있다. 당초엔 이 의원이 우세한 양상이었으나 당 원내대표에 역시 여성 의원인 박영선 의원이 선출되면서 이석현 의원이 다소 유리해졌다는 분석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한편 여야는 본회의에서 세월호 침몰 국정조사 계획서도 보고하고 처리할 예정이다. 다만 여야가 국정조사 증인 채택 등을 두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해 국조 계획서 처리 여부는 불투명하다. 새정치연합은 국조계획서에 증인(참고인)을 먼저 명시할 것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새누리당은 일단 특위에서 위원장과 간사 선출을 마친 뒤 국조계획서를 의결하고 증인 문제는 추후 특위 운영과정에서 논의하자고 맞서고 있다.

김미영 기자 bomnal@

국민건강증진기금 등 3개 자산운용 '낙제점'

지난해 기금평가 결과 국민건강증진기금 등 3개 기금이 자산운용 성적에서 낙제점인 '미흡' 이상 평가를 받았다. 국내 3대 연기금으로 꼽히는 국민연금과 사학연금 등 6개 기금은 최고등급인 '탁월' 성적을 거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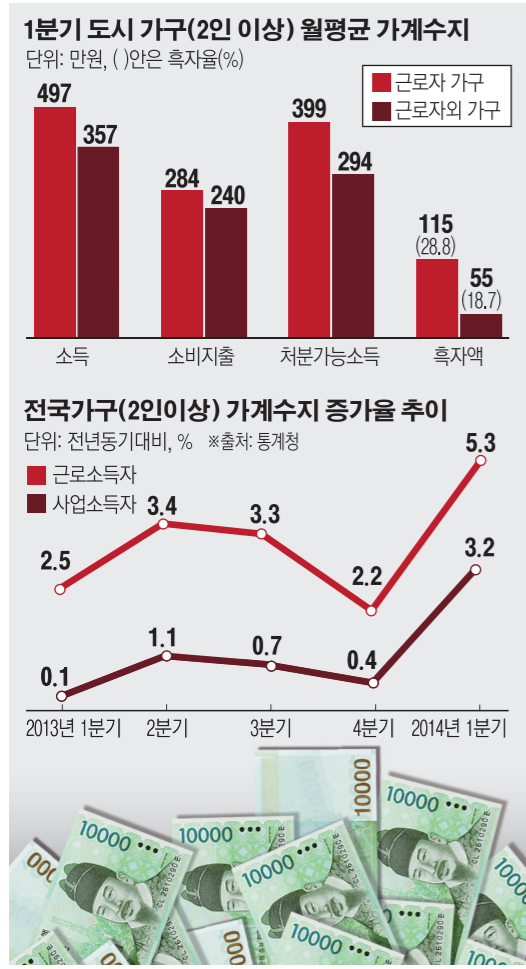
기획재정부는 27일 이같은 내용의 '2013 회계연도 기금운용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평가 대상은 자산운용부문의 44개 기금과 사업운용부문의 39개 기금(108개 사업)이다.

자산운용 부문 평가 결과를 보면 평균 평가점수는 70.6점으로 2012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전년 대비 '양호' 이상 등급 비중은 2012년 68.4%(26개)에서 지난해 77.2%(34개)로 증가했으며 '보통' 이하 등급은 같은 기간 31.6%(12개)에서 22.8%(10개)로 줄었다. 자산운용 규모가 1조원 이상인 대형 기금일수록 우수했으며 자산운용 경험이 많은 금융성 기금이 가장 점수가 높았다.

전민정 기자 puri21@

한달 반이나 지났는데도... 재래시장도 대형마트도 썰렁

르포 - 경기침체 속 '세월호' 직격탄, 서민경제 현장



"세월호 사건 이후에 너무 줄었어. 찾을 일도 없네..."
26일 서울시 종로구의 주요 관광지 자리잡은 '광장시장'은 먹자골목과 그 외의 상가로 극명하게 구분된 모습이었다. 시장 입구에 자리잡은 아케이드 문은 반대편 상가가 떼를 지어 손님을 반겼다. "안에 들어와서 드세요. 시원하게 해놔요." 여기저기서 반대편이 노릇하게 익으며 기름 데워지는 열기에 공기가 한층 뜨거워졌다. 유명한 집은 사람들이 줄을 서서 대기 중이며, 가판에 앉아 막걸리와 함께 곁들이

먹자골목에만 겨우 손님, 나머지는... 관광지 식당 간간이 외국인만 들어와 지난해보다 손님 60~70% 줄어들어 4월 매출 백화점 7.2%·마트 14.3% 뚝

는 모습이 오후 4시에도 여러 군데서 볼 수 있었다. 그러나 먹자골목을 벗어난 순간 골목은 한적해졌다.
먹자골목에서 200m 떨어진 광장시장 중앙상회 근처도 손님은 간간이 찾을 뿐이었다. 과일을 판매하는 노점상 이모(65·여)씨는 혀를 끌끌 차며 "먹자골목이나 반대편 먹으러 사람들이 오지"라며 "경기도 안 좋는데 그 사건(세월호) 이후로 뚝 끊겼어"라고 근심 가득히 말했다. 그는 오늘도 과일 하나를 못 팔았으며 걱정스런 표정을 지었다. 김모(52)씨는 가판에 놓인 반찬을 둘러보며 "뭘, 꼭 그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는 세월호 이후에 사람들이 더 안 찾는 것 같다"며 "간장계장은 외국인 손님이 찾으니가 그나마 팔리는데, 일반 손님들은 영 오질 않는다"고 말했다. 전통 공예품을 파는 이모(39·여)씨는 "여기 광장시장은 그나마 외국인이라도 찾지, 다른 재래시장은 말 할 것도 없다"면서 "선거 끝나면 경기가 좀 살아나리나"라며 말끝을 흐렸다.

경기도 분당에 위치한 한 대형마트도 썰렁하기는 마찬가지였다. 유제품 코너를 담당하는 한 판매원은 "주말인데도 사람이 없다"며 "지난해 이맘 때와 비교하면 60~70% 수준으로 줄어든 것 같다"고 말했다. 이 판매원은 "세월호 이후 음악이나 큰 소리를 내는 호객행위를 없앴는데, 최근 조심스럽게 다시 손님들에게 말을 걸고 있지만 표정들이 어둡다"고 덧붙였다. 계산대 직원은 "세월호 사건 직후보다는 손님이 조금 늘어난 것 같지만 의류나 아웃도어용품, 피크닉용 일회용 도시락 등 놀러갈 때 필요한 물건들의 소비가 살아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강남의 한 백화점에는 상대적으로 손님이 많았다. 그러나 백화점 판매원들 역시 예년보다는 조용한 편이라고 설명했다.

속옷 판매원은 "평일 낮 시간에 무리지어 쇼핑을 즐기는 주부들이 많았는데 세월호 사건 이후 눈에 띄게 줄었다"며 "회복되고는 있지만 예년에 비하면 손님이 없는 편"이라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가 집계한 지난달 유통업체 매출 동향에 따르면, 대형마트 매출은 3월에 비해 14.3% 줄었고, 구매건수도 5.0% 감소했다. 부문별로는 의류(-6.7%), 잡화(-5.1%), 가정생활(-4.6%), 식품(-3.5%), 스포츠(-1.6%) 등 거의 전 부문에서 매출이 하락했다.

지난달 백화점 매출과 구매 건수도 3월에 비해 각각 7.2%, 1.0% 줄었다. 특히 가전 문화(-20.9%), 가정 생활(-16.4%), 잡화(-14.8%), 식품(11.8%), 스포츠(-8.4%), 의류(-7.6%) 매출이 크게 줄었다. 유통업체 관계자는 "사건 이후에 유통업체들이 각종 프로모션을 취소한 가운데, 소비심리가 위축되면서 야외활동도 축소돼 식품, 패션, 잡화 매출이 하락했다"면서 "서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체감경기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여객선 '세월호' 침몰 사고가 생산과 소비 등 민간 경제활동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희생자와 실종자 가족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위로하는 분위기가 가장 크게 작용하고 있다. 27일 오전 서울의 광장시장에 손님들의 발걸음이 줄어 한산한 모습이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소비자심리지수 105... 8개월만에 최저

살아날 기미 안 보이는 게 더 문제

'현재경기판단 CSI' 등 대부분 하락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보여주는 소비자심리지수(CCSI)가 세월호 참사의 여파로 8개월 만에 최저 수준으로 하락했다.

한국은행은 27일 '2014년 5월 소비자동향조사 결과'를 통해 이달 CCSI가 105로 전월에 비해 3포인트 감소했다고 발표했다. 미 양적완화 축소와 신용극 급등시장 불안 우려가 반영돼 3포인트 하락한 작년 9월(102) 이후 최저 수준이다.

한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가 지난달 16일 발생한 후 한 달여가 지났음에도 그 여파가 소비자들의 심리 위축에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며 "직접적 경제적 요인이 아닌 인명사고로 3포인트나 떨어진 것은 적지 않은 수준이다"라고 말했다.

소비자 체감지표인 CCSI는 경기상황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지표 중 하나다. 외환위기(1997년 4분기·25포인트), 글로벌 금융위기(2008년 10월·11포인트),

동일본 대지진(2011년 3월·9포인트) 등 위기 때마다 CCSI는 큰 폭의 하락세를 보였다.

CCSI는 100이 기준이다. 이를 넘으면 경제 상황이 긍정적으로 보는 가구가 많다는 의미이고 100 아래면 그 반대다. 2012년 12월 99였던 CCSI는 매달 꾸준히 100 이상을 기록해 17개월째 기준선을 웃돌고 있다.

CCSI 세부지표를 보면 6개월 전에 견줘 현재 경기를 보여주는 현재경기판단CSI가 15포인트나 떨어진 76을 기록했다. 6개월 뒤 경제상황에 대한 인식을 보여주는 향후경기전망CSI도 7포인트나 하락한 94로 집계됐다. 이 두 수치는 소비자들이 일상생활에서 체감하거나 주변에서 관찰한 것을 반영한 지표여서 더 큰 폭으로 떨어졌다고 한은은 분석했다. 이밖에 현재생활환경CSI(91, 2포인트), 생활형편전망CSI(99, 2포인트), 소비지출전망CSI(108, 2포인트), 취업기회전망CSI(91, 5포인트), 금리수준전망CSI(102, 2포인트), 가계수입전망CSI(101, 0포인트) 등 대부분의 CSI가 하락했다. 이진영 기자 min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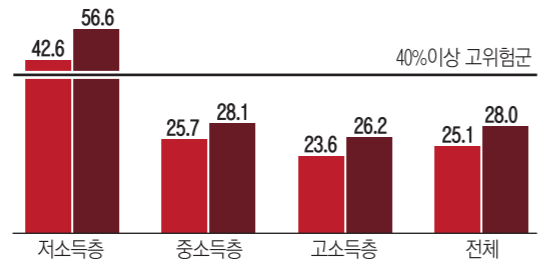
빛 내서 빛 막으라는 민생대책 외면

용자 위주 대책, 현장선 실효성 없어 재정 추가 집행 등 특별대책 나와야

경기침체로 인한 소비 위축이 세월호 참사도 더 공포 얼어붙으면서 '내수 디스플레이션(불가하락 속 소비 침체)'에 빠질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정부가 지난 9일 서둘러 긴급 민생대책을 내놨다. 하지만 용자 위주의 대책이어서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없다는 비난의 목소리가 크다. 전문가들은 빛을 내 빛을 돌려막는 대책이 아니라 추가 재정 집행이나 내수 활성화를 위한 특별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27일 정부와 금융권에 따르면 시중은행들이 세월호 참사 피해자와 피해업종·지역 자금지원에 팔을 걷어붙이고 있지만 실제 대출 수효는 아직 미미하다. 소상공인 특별자금 대출만이 지난 21일 전업종으로 확대해 신청액수가 지원규모의 30% 가까이 육박했다. 나머지 관광진흥개발기금 지원이나 기업은행 신규대출 등은 지원 규모의 5%도 미치지 못하고 있고 신청건수도 한 자릿수에 그치고 있다. 이 같이 자금 사정이 어려운 소상공인이나 영세업체가 적극적으로 용자를 받지 않는 것은 실제 해택이 미미한데다 담보나 신용능력이 없어 그림에 떡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애초 정부가 내댜던 긴급 민생대책이 실효성이 떨어진 알맹이 없는 대책이라는 비난이 있었다. 정부는 이를 의식한 듯 보름 동안 두 차례나 지원규모와 피해업종 확대를 하는 대책을 내놓고 오리라 무계획 대책이라는 비난만 커졌다. 현재 은행의 총 대출금 중 가계대출 비중이 13년 만

소득계층별 채무상환비율 현황



에 최저치로 떨어졌지만 제2금융권이나 사채시장은 비중이 계속 올라가고 있다. 이는 저신용자에 대한 은행 문턱이 높아져 그만큼 저신용자들이 이자율이 높은 2금융권이나 사채시장으로 내몰리는 것을 보여준다. 특히 영세 자영업자의 가계부채가 임금근로자보다 더 악화되는 추세를 보이는 점도 큰 문제점이다.

최근 현대경제연구원원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가계부채는 2002년 465조원에서 2013년 1021조원으로 연평균 7.4%씩 증가했다. 금융대중이 있는 저소득층 채무상환비율은 2012년 42.6%에서 2013년 56.6%로 올라 실제 원리금 상환이 불가능할 정도다. 특히 내수 침체와 베이비붐 세대의 대규모 자영업 진출 등으로 자영업자의 채무상환비율은 31.5%에서 34.9%로 상승했다.

영세자영업자와 서민의 살림살이가 이처럼 파국해졌음에도 정부의 지원에 대해 실제 느끼는 체감도는 바닥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그 어느 때보다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다. 신동민 기자 lawsdm@

2014 칠성사이다의 새로운 이야기

맑고 깨끗한 청춘은 별이다

햇살에 반짝이는 저 싱그러운
풀잎을 보고있을 때면
우리 모두는 청춘이 됩니다

맑고 깨끗한 칠성사이다

신기술금융사 신규투자 '역대 최대'

지난해 9156억원... 전년 5857억보다 56% 증가 중소·벤처기업 투자 장려에 정책자금 출자 늘어

지난해 신기술금융업체의 신규 투자가 1조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역대 최대 규모로 중소기업 투자 장려정책으로 정책자금 출자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27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신기술금융사 신규 투자는 9156억원(355개 업체)으로 전년 5857억원보다 56.3% 늘어났다. 기존 최대액인 2011년 6146억원보다 크게 웃도는 규모다.

신기술금융사는 자사의 자본금에 의한 자체 투자뿐 아니라, 타사와 신기술투자조

합을 결성해 펀드를 운영하면서 자금을 조달하기도 한다. 현재 운용 중인 신기술투자조합은 70개에 2조6502억원 규모다. 지난해 13개 신기술투자조합이 신규 결성됐으며 약정액은 3196억원에 달한다.

지난해 말 투자잔액(944개 업체) 역시 한 해 전보다 26.1% 증가한 1조8522억원을 기록했다. 지난해 신규 투자실적도 3299억원(139개 업체) 늘어나며, 이전 최고 실적인 2011년 6146원을 상회했다.

신기술투자조합에 대한 정책기관 출자 비중은 2011년 33.1%에서 지난해 43.3%로



늘어났다. 반면 일반법인 비중은 같은기간 41.6%에서 33.8%로 줄었다. 정책금융공사, 한국벤처투자(모태펀드), 연기금 등의 출자가 늘어나며 정책자금 투자 의존도가

심화하는 모습이다. 여신금융회사의 비중은 21.3%로 전년 대비 소폭 줄었다.

한편 지난해 7년 미만 초·중기단계 기업에 대한 투자비중은 38.2%로 2011년 34.5%에 비해 증가했다. 또 지난해 기준 신기술금융업권의 업종별 투자 비중은 제조업이 54.4%로 반 이상을 차지했고 정보통신이 23.4%로 뒤를 이었다.

반면 창투업권은 제조업(22.5%) 보다 정보통신(35.2%)의 비중이 높고, 엔터테인먼트(20.5%), 생명공학(10.6%) 등 다양한 업종에 분포돼 있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민간자금 유입을 확대할 수 있는 세계 지원책 마련과 성장단계별 지원체계 구축을 위해 자금지원 대상기업을 확대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강구기 기자 kkk@

은행권 작년 사회공헌에 6105억

전체 당기순이익 15.7% 수준 봉사활동 임직원 42만212명

지난해 은행들이 사회공헌 활동에 약 6105억원을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당기 순이익의 15.7% 수준이다.

전국은행연합회가 26일 발간한 '2013 은행 사회공헌활동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은행권은 2012년 6990억원보다 890억원 감소한 6105억원을 사회공헌 활동에 사용했다. 그러나 전체 당기순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전년 8%에서 15.7%로 배 가까이 급증했다. 은행권 사회공헌 지출액은 2009년 5188억원에서 2011년 6614억원, 2012년 6990억원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 지원 등 봉사활동에 참여한 은행권 임직원 수는 42만212명으로 집계됐다.

또한 금융소외 계층을 지원하기 위한 서민대출 등에는 8조7484억원을 지원했다. 이 기간 은행들은 서민대출을 위해 금융 지원을 위해 사회활동 등 서민대출 지원, 사회적 배려자 수수료 감면 및 우대금리 제공, 공익 연계 금융상품 개발-운용 등의 활동을 벌였다.

한편 은행권은 올해 청년창업재단 설립-운영, 민관연대 어린이집 건립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대학생들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학생기숙사 건립 지원, 금융권 노사 공동으로 화상전면병원 건립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 인철우 기자 acw@

은행명	금액(억원)
농협은행	1254
기업은행	728
국민은행	647
신한은행	546
우리은행	536
하나은행	505
외환은행	210
SC은행	161
씨티은행	110

※ 자료 : 은행연합회

우리은행 '개인택시 기사 전용 대출' 출시

우리은행은 개인택시 운전기사를 대상으로 낮은 금리로 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는 '우리 개인택시사업자 대출'을 출시했다. 대출대상은 대출신청일 현재 개인택시 면허를 가지고 본인 택시를 운전하는 만 25세 이상 75세 이하의 개인택시 사업자로 대출 한도는 기존에 신용대출이 있어도 한도 차감 없이 최대 3000만원까지 가

높다.

대출금리는 최저 연 5.59%(2014.5.26. 현재)이며, 채권보전을 위해 가입하는 서울보증보험의 보증료도 은행이 부담한다.

임영학 상품개발부장은 "영세 자영업자들을 지원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생애주기에 금융이 따라갑니다"

KB국민은행 '스토리금융' 패키지 급여·연금 등 다양한 거래 항목하

KB국민은행의 스토리금융 패키지 상품이 큰 인기를 얻고 있다. 은행과 고객이 함께 성장할 수 있도록 좋은 상품을 정직하게 팔겠다는 이진호 행장의 경영철학이 녹아든 상품이다.

이 패키지 상품은 KB★Story통장, KB Hi! Story정기예·적금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KB★Story통장은 생애주기에 따라 고객이 필요로 하는 금융거래 요구도 변한다는 점에 착안해 다양한 은행 거래를 항목화했다.

주요 서비스는 Story포인트다. 통장에서 급여이체, 연금수령, 신용카드 결제 등의 은행거래 실적에 있는 경우 항목당 1-2개

의 Story포인트를 제공한다.

KB Hi! Story정기예·적금은 은퇴 후 연금수령 전까지 안정적인 경제생활이 가능하도록 지원하는 가교형 정기예·적금이다. 현재 적용금리는 연 2.55%이다. 조건 충족 시 연금실적 우대이율 및 한가족사랑 우대이율을 각각 연 0.1%포인트씩 적용 받을 수 있다.

KB Hi! Story적금은 1년 단위로 4회까지 자동 재가입이 가능하다. 장기거래 및 패키지 우대이율을 각각 0.2%포인트씩 제공하고 장학금 수령 등 인생의 주요 이벤트가 발생할 경우 0.1% 금리를 특별로 준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오랫동안 KB국민은행을 믿고 아껴준 고객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상품을 개발했다"며 "고객들에게 한걸음 더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씨티·대구은행... 내달엔 제주銀 금감원, 정밀 검사 나선다

'씨티' 정보유출·용역비 등

금융당국이 개인정보 유출과 대규모 구조조정으로 몸살을 앓고 있는 한국씨티은행에 대해 정밀 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전일부터 한국씨티은행과 대구은행에 대해 정기종합검사를 시작했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해 12월 검찰이 불법대출자에게 압수한 USB에서 고객 정보 4만4000여건이 흘러나간 사실이 적발돼 금감원으로부터 징계를 앞두고 있다.

금감원은 한국씨티은행의 용역비 지급 적절성도 집중 검사할 방침이다. 한국씨티은행은 2004년 한미은행을 인수한 이후 지난해까지 용역비 1조2185억원과 배당금 659억원을 분사로 송금했다. 같은기간 순이익의 54%에 해당하는 금액이다.

특히 용역비의 경우 법인세와 배당세를 내지 않고 10%의 부가가치세만 부담하면

되기 때문에 해외 반출에 유리하다. 불법적인 해외 이전이라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이유다.

구조조정 과정 역시 점검 대상이다. 한국씨티은행은 지난해 기준 190개 지점의 3분의 1에 달하는 56개 지점을 다른 지점으로 통합하는 구조조정안을 발표했다. 이 과정에서 노조가 2단계 파업(각종 대내 보고서 작성 및 제출과 프로모션 거부)을 돌입해 고객 불만이 커지고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대구은행에 대해서도 정밀 진단을 한다. 대구은행의 올해 1분기 당기 순이익이 589억원으로 지난해 동기보다 22.4%나 줄어드는 등 건전성이 급격히 나빠지고 있기 때문이다.

가산금리 인상도 점검 대상이다. 대구은행은 이익이 줄어들자 최근 1년간 주택담보대출(분할 상환 방식)의 가산 금리를 0.13% 포인트 올렸다.

이밖에 금융당국은 내달 중에는 제주은행에 대한 종합 검사에 들어간다. 박선현 기자 sunhyun@

저축銀 대출금리 최대 2.4%P 낮아질 듯

금감원, 대출금리 체계 개선 모범 기준 마련·비교 공시 강화 고객 신용평가시스템도 개선

고객에게 획일적으로 고금리가 적용돼 온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체계가 개선된다. 대출금리 모범 기준이 마련되고, 저축은행간 대출금리 비교 공시도 강화된다. 고객 신용평가시스템도 개선된다. 이에 따라 저축은행의 대출금리가 최고 2.4% 포인트 인하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감독원은 대출금리 결정 체계의 합리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저축은행 대출금리 모범 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현재 저축은행은 원가 경쟁력이나 고객의 신용도에 따라 대출금리가 결정되지 않는 등 저축은행별, 고객별 신용등급에 따른 금리 차이가 거의 없다.

지난해 말 기준 저축은행의 개인신용대출은 연 25% 이상의 고금리 비중이 79.1%에 달할 정도로 그동안 일률적으로 고금리가 부과됐다.

이에 금감원은 저축은행의 대출금리 모범 기준을 오는 8월까지 은행이나 여신전문금융사 등 다른 권역의 모범기준을 참고해 마련하기로 했다.

모범 기준에는 대출금리 산정 및 운용에 관한 사항, 금리 산정 관련 내부통제기준, 고객의 금리인하요구권 도입 등 고객의 권익보호 사항 등이 담길다. 모범 기준은 개인신용 대출에 우선 적용되고, 기업대출과 담보 대출은 추후 적용될 예정이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각 저축은행이 중앙회 홈페이지에 공시하는 대출금리 비교 공시의 정확성도 내달 초까지 높이기로 했다.

저축은행 준법감사인이 표준화된 '공시 자료 점검표'를 작성·활용해 비교공시 내용의 확인토록 함으로써 내부통제 절차를 강화할 계획이다.

김진수 금감원 부원장보는 "비교공시 자료가 정해짐에 따라 금리비교의 실효성이 제고돼 일부 금리 인하 효과가 기대된다"며 "CSS 개선으로 신용도에 기반한 금리 산정 등이 가능해져 고금리를 부담하는 일부 고객이 중금리를 적용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재현 기자 nts0118@

바로잡습니다 본지 5월 26일자 6면 '차남용 사장 "아근택시 쏩니다"' 기사 본문과 제목의 '차남용 사장'을 '차남규 사장'으로 바로잡습니다.





자체 데이터 센터 보유

세계 최고 수준의 자체 인터넷 데이터 센터인 D-클라우드 센터를 통해 클라우드 컴퓨팅, 가상화, 모바일, 보안시스템 등 최신 IT기술을 접목

단계별 ERP Line-up

확장형 ERP, 건설 ERP, 비영리법인용 ERP 등 업종별 특화 솔루션 및 중소기업부터 대기업까지 기업의 성장단계에 맞춘 단계별 Line-up 보유

국내 독보적인 솔루션

IFRS 연결·개별 솔루션, XBRL 솔루션, FTA-원산지 관리시스템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는 국내 독보적인 솔루션 보유

완벽한 통합 시스템

22년 ERP업력으로 산업군별 표준 프로세스, 특화서비스 보유 및 자체 확장솔루션(그룹웨어, MES, POP 등)을 통한 완벽한 통합시스템 구현



www.duzon.co.kr

전국 통합 상담 **1688-5000**

우리의 대표브랜드-삼성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4-03300호 (2014.05.21 ~ 2015.05.20)
Stay Ahead는 고객을 위해 늘 한 발 앞서 있겠다는 삼성자산운용의 의지입니다

Stay Ahead™

삼성 펀드, 변화를 기회로 바꿔드립니다!

앞서가는 투자란 무엇일까요?
생각보다 세상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수많은 투자기회가 생겼다가 사라지기도 합니다.
삼성 펀드는 세상의 변화를 먼저 읽고
변화를 기회로 이어갈 수 있는 곳에 한 발 앞서 투자합니다.

세상의 변화에 투자합니다! 삼성펀드



세상의 변화에 투자하는 삼성자산운용 대표펀드

미국주식 40%	자산배분 20%	미국채권 40%	삼성 미국 다이나믹 자산배분 펀드 [주식혼합] • 美 주식/채권 시황변화에 대응하는 40:20:40 자산배분 • 노동인구 성장, 제조업 부활, 셰일가스 등 美 성장동력의 변화 • 저금리 시대에 맞는 안정적인 자산배분 투자 추구
미래 신성장	시장 주도권 강화	턴어라운드	

자세한 내용 및 가입하실 수 있는 판매사는 홈페이지 www.samsungfund.com 참고 또는 콜센터 **080-377-4777** (상담: 평일 오전 8시 ~ 오후 5시)에 문의하세요.

①**상품명**: 삼성 미국 다이나믹 자산배분 펀드[주식혼합]-환헷지형(H), 환노출형(UH) - Class A **환매방법**: 오후 5시 이전 제4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제9영업일 지급, 오후 5시 경과 후 제5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제10영업일 지급 **환매수수료**: 30일 미만 이익금의 70%, 30일 이상 90일 미만 이익금의 30% **신탁보수 등**: 선취판매수수료 1% + 총보수 연 1.23%(판매 0.60%, 집행투자 0.60%, 신탁 0.03%) ②**상품명**: 삼성 대한민국 신수종산업 펀드[주식] - Class A **환매방법**: 오후 3시 이전 제2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제4영업일 지급, 오후 3시 경과후 제3영업일 기준가격으로 제4영업일 지급 **환매수수료**: 90일 미만 이익금의 70% **신탁보수 등**: 선취판매수수료 1% + 총보수 연 1.48%(판매 0.70%, 집행투자 0.75%, 신탁 0.03%)

● 이 집합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가입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보수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외화자산은 환율변동에 따라 투자자산의 가치가 변동되거나 손실을 볼 수 있습니다.

삼성자산운용



LG이노텍 “광학솔루션은 나의 힘”

올 1분기 연구개발비 204억... 지난해보다 30% 이상 늘려 전체 매출 40% '주수익원'... 해외시장 확대 등 사업 강화

LG이노텍이 주력 사업인 광학솔루션 사업을 강화하고 있다. 기술집약 산업인 광학솔루션에 대한 적극적인 연구개발(R&D)을 바탕으로 해당 사업의 부가가치를 높여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이노텍은 올 1분기 광학솔루션 부문 R&D 투자로 전년 동기(154억2000만원)보다 30% 이상 늘어난 204억5000만원을 집행했다.

같은 기간 전장부품사업 R&D 투자 금액이 10% 늘고, 발광다이오드(LED)사업

의 R&D 투자가 20% 이상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광학솔루션 부문에 집중적인 R&D 투자를 실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광학솔루션사업은 카메라모듈이나 VCM(보이스 코일 모터) 등 스마트폰 등에 들어가는 부품을 만드는 사업이다.

LG이노텍이 광학솔루션 강화에 나선 이유는 해당 사업이 LG이노텍의 주수익원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 1분기 LG이노텍의 전체 매출액(1조5500억원)에서 광학솔루션 부문(6400억원)이 차지하

는 비중은 40.4%에 달한다. 올 들어 광학솔루션 사업이 부진하자 지난 1분기 LG이노텍의 매출액은 지난해 1분기(1조5509억원)보다 5.9%(921억원) 감소한 1조4588억원을 기록할 정도로 해당 사업의 비중은 크다. 지난 1분기 광학솔루션사업은 계절적 비수기에 따른 모바일 기기용 카메라 모듈 수요 약세로, 전년 동기 대비 9%, 전년 동기 대비 17% 줄어든 5863억원의 매출을 거뒀다.

회사 관계자는 “LG이노텍은 광학솔루션 부문에서 상당한 기술력을 갖추고 있고 관련 부문에서 상위권에 자리하고 있다”며 “R&D 투자 금액을 갑자기 늘린 것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한편, LG이노텍이 지난 2월 차량용 카

메라 모듈 시장 공략을 발표함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R&D 투자는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LG이노텍은 오는 2017년까지 차량용 카메라 모듈 누적 수주 1조원 이상을 달성, 시장 지배력을 확대할 방침이다. 최근 스마트폰 외에도 태블릿이나 차량 등 다른 애플리케이션에서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광학솔루션 시장은 지속적인 성장이 예고되고 있다.

현재 LG이노텍은 카메라 모듈의 핵심 부품인 구동장치(Actuator)를 내재화하는 등 고부가가치 영역으로 사업 확대를 꾀하고 있다. 아울러 글로벌 전략 고객과의 파트너십 강화 및 중국 시장에서의 신규 고객 확보를 통해 매출증대와 사업역량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지영 기자 gujy@



세븐일레븐, 업계 최초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

세븐일레븐이 편의점 업계 최초로 시간선택제 일자리 채용에 나선다.

세븐일레븐은 채용 공고를 통해 결혼·육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됐거나 장년 퇴직으로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점포관리와 일반사무 직군에 '해피사원' 30명을 채용한다고 28일 밝혔다.

점포관리직은 수도권 소재 20개 직영점에서 점포 관리자로서 진열, 발주, 재고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세븐일레븐은 거주지 우선 배치 기준에 따라, 집에서 가장 가까운 직영점을 근무지로 선정해 일과 가사를 병행하는 주부 지원자들의 편의를 배려할 계획이다. 일반사무직은 본사 스텝으로 각 부서에 배치돼 문서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근무 시간은 총 6시간으로 점포관리직의 경우 오전(9시~15시)과 오후(15시~21시)로 나뉘며, 일반사무직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다. 근무 시간은 지원자의 상황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세븐일레븐은 이번 시간선택제 일자리 대상자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일반 정규직과 동일한 수준의 복리후생 혜택을 제공한다.

서류는 세븐일레븐 홈페이지(www.7-eleven.co.kr)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인크루트 등을 통해 다음달 1일까지 접수하면 된다. 최종 합격자는 다음달 중순경 발표되며 2주간의 입문 교육과정을 거친 뒤 지원 부서에 배치된다. 이다람 기자 zing@

SK종합화학-사빅, 합작법인 설립

사우디 공장 건설 등 고성능 PE '넥슬렌' 글로벌 공략

SK종합화학이 글로벌 화학기업 사빅(SABIC)과 손잡고 고성능 폴리에틸렌 글로벌시장 공략에 나선다.

SK종합화학은 서울 세라톤 워커히호텔 에스틴 하우스에서 사우디아라비아 국영 석유화학사인 사빅과 SK의 고성능 폴리에틸렌(PE)인 '넥슬렌(Nexlene)'의 생산 및 글로벌 시장 판매를 위한 합작법인 설립 계약을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양사는 50대 50 지분 비율로 연내 싱가포르에 합작법인을 설립, 사우디아라비아에 제2공장을 건설해 본격적인 글로벌 생산에 돌입할 계획이다.

사빅은 에틸렌 생산량 세계 1위 업체로 높은 원가 경쟁력과 글로벌 마케팅 역량을 갖춘 곳으로 평가된다. 양사는 합작법인에 연구개발(R&D) 조직을 만들어 넥슬렌을 통해 고성능 PE부문에 입지를 공고히

할 계획이다.

SK종합화학은 “이번 계약으로 고성능 폴리에틸렌 기술력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것은 물론, 글로벌 확장 전략에 있어 최적의 파트너까지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번 합작사업은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지난 2011년 중동을 방문했을 때 사빅의 모하메드 알마디 부회장을 만나 고성능 PE 분야의 전략적 제휴를 처음 제안한 이후, 2년만의 결실을 맺은 것으로 전해졌다. SK 측은 최 회장이 “사빅과의 제휴는 화학사업의 글로벌 성장을 위해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이라며 합작성사를 독려했다고 설명했다.

김혜진 기자 sinembargo@

힘 못받는 BDI지수

(발틱운임지수)

최근 한달간 3차례나 900포인트대 추락 브라질 철광석 등 남미 물동량 저조한 탓

BDI지수(발틱운임지수)가 2분기 들어 900포인트대 추락을 3차례나 반복하면서 힘을 받지 못하자 해운업계가 고민에 빠졌다.

27일 한국선주협회에 따르면 BDI지수는 지난 4월 19일 989포인트를 기록하며 올해 처음으로 1000포인트대 아래로 추락한 뒤 2주 가량 900포인트대에 머물렀다.

이어 이달 2일 1017포인트로 반등하며 다시 상승세를 보일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달 9일 다시 997포인트로 내려앉았고, 다시 같은 달 23일 964포인트로 내려앉았다.

BDI는 벌크선운임지수로 세계 26개 주요항로 벌크화물 운임과 용선료 등을 종합한 수치다. 1000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운업황을 판단하는 대표적인 경기선행지수다. 벌크선은 철광석, 곡물 등 원자재를 포장없이 실어 나르

는 배를 말한다. 이 지수가 높을 수록 물동량이 많다는 뜻이다.

이 같이 BDI지수가 탄력을 받지 못하는 것은 브라질 철광석 등 남미 물량 큰 이유로 지적되고 있다.

업계 한 전문가는 “현재 브라질 철광석 물동량이 급격히 빠지지 않았는데 BDI지수가 힘을 얻지 못하는 것은 단기운송계약 체결이 미미하거나 나오지 않기 때문”이라며 진단했다. 또 다른 업계 전문가는 “파나마스급 벌크선의 경우, 곡물 시장 물동량이 나오지 않아서 BDI지수가 반등을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올해 BDI지수 전망에 대해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예단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불투명한 시장 상황의 분위기를 전했다.

김혜진 기자 sinembargo@

STX다렌, 中법원에 기업회생절차 신청

청산 아닌 '경영정상화' 가닥

STX조선해양의 중국 조선소인 STX다렌이 중국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STX다렌은 조선, 중공업, 엔진 등으로 분할된 6개 법인이 중국 다렌시 중급인민법원에 '중정'을 신청했다고 27일 밝혔다.

중국에서는 기업이 채무 상황이 불가능하거나 변제능력을 상실할 가능성이 현저한 경우, 기업과산법상 화해, 중정, 파산청산 제도를 통해 채무를 변제하거나 회사정리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STX다렌집단은 청산에 비해 높은 채무 변제 비율과 제 3차 매각 가능성을 이유로 청산이 아닌 중정 신청을 선택했다. 중정은 우리나라의 기업회생절차와 유사한 제도다.

중정을 통한 회생절차가 진행된다면, 채권자는 청산보다 높은 상환비율로 채권을 변제받을 수 있고, 세금채권과 보통채권에 우선해 직원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과 사회보험비용 등 직원채권이 우선 상환받을 수 있게 된다. 또 현재 무급 휴직 중인 1만 2000여명 STX다렌 임직원들이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장받을 수 있다.

다렌이 STX다렌집단에 제기된 금융 채무 및 상거래 채무 소송, 강제집행 등에 대한 절차가 중지돼 핵심자산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중정을 통한 채무감면, 채무 변제기한 연장 등의 방법으로 채무를 탈기 되면, 신규 투자자를 유치해 중정에 참여 또는 제3차 매각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STX다렌은 조선산업 불황으로 모기업인 STX조선이 큰 경영난을 겪으면서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고, 지난해 5월부터 사실상 가동을 중단하면서 경영난에 빠졌다. 현재 상태가 지속될 경우 상환능력이 하락해 경영 정상화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다.

STX다렌은 중국 금융기관에서 빌린 자금이 1조3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업은행 등 국내 은행에서 차입한 자금은 이보다 적은 1600억원이다.

STX관계자는 “채권자 및 중국 내 직원들의 합법적인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고자 청산이 아닌 중정을 선택했으며, 중정 과정 중 신규 투자자 유치 등을 통한 정상적인 생산활동을 회복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밝혔다. 권태성 기자 tskwon@

보안 전문 기업 - 하우리
SECURE YOUR NETWORK WITH HAURI

PC의 데이터는 어떻게 영구삭제 하실 건가요?

유출되면 안되는 귀중한 데이터! 휴지통 비우기, 포맷, Fdisk 등의 단순 삭제만으로는 영구삭제 될 수 없습니다.
ViRobot DataEraser 2.0은 미 국방성 표준안에 따른 삭제 알고리즘으로 데이터를 복원할 수 없도록 완벽히 영구삭제해 드립니다.

가장 믿을 수 있는 영구삭제 솔루션

HAURI 바이로봇 데이터레이저 2.0

제품 주요기능

- ▶ 지워진 파일까지 영구삭제 (복원 불가능)
- ▶ 파일 검색기능으로 원하는 파일만 영구삭제
- ▶ 논리 드라이브 단위 및 물리 드라이브 단위로 지능형 영구삭제
- ▶ 디스크 단위의 빈 영역 영구삭제
- ▶ 보안 등급별 삭제 강도 조절 및 편리한 예약 삭제 기능
- ▶ FAT 16/32, NTFS 파일 시스템 지원
- ▶ 빠르고 안전한 영구삭제

☎ 제품문의: 02) 3676-1100

특이점

2003년 관련 기술 특허 등록 완료
컴퓨터 저장장치에 저장된 파일의 영구적 삭제 방법 및 그 기록 삭제

소프트웨어품질인증서
ViRobot DataEraser X v1.0

www.hauri.co.kr

e-리포트

글로벌 TV시장 패권다툼

8년 독주 삼성... 中 샤오미 경계령

LG 더하면 세계시장 50% 육박 소니+샤프 11% 그쳐 '일의 굴욕' 샤오미, 고사양 저가제품 공세

전 세계 TV 시장의 패권은 한국이 쥐고 있다. 삼성 전자, LG전자의 글로벌 평판 TV 시장 점유율은 50%에 육박한다. 두 명 중 한 사람은 삼성 또는 LG 브랜드 TV를 선택하는 셈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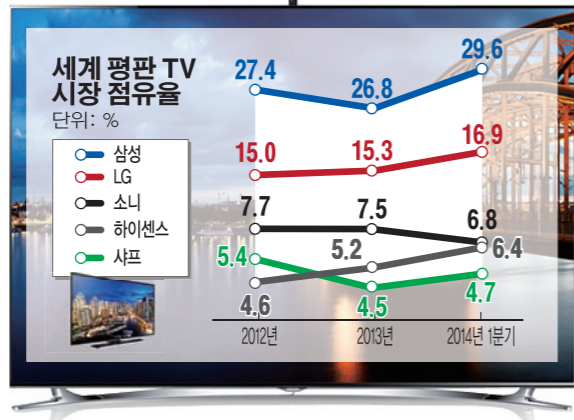
반면 소니+샤프 등 일본 업체들의 점유율 합은 이에 훨씬 못 미친 11%대에 불과하다. 베스트바이나 미디어마트 등 북미나 유럽의 가전제품 판매점 전면에는 이미 한국산 TV가 점령한 지 오래다.

◇독주체제 굳혔다... 삼성 '전하통일' = 세계 TV 시장은 지난 8년간 삼성전자의 선전으로 우리 기업들의 독주체제가 이어졌다. 디스플레이사이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 1분기 평판 TV 시장에서 분기 사상 최대인 29.6%의 점유율을 기록, 2006년 이후 33분기 연속 1위를 차지했다. 더불어 △LCD TV 28.2% △LED TV 28.3% △PDP TV 62.0% 등을 기록하는 등 주요 TV 부문에서 부동의 1위 자리를 지켰다. 60인치 이상 초대형 평판 TV 부문 역시 40.7%의 점유율로 최고의 자리를 이어갔다. LG전자는 올 1분기 16.9%의 점유율로 2위를 유지했다. 이는 전분기 14.7%보다 2% 이상 상승한 것이다.

같은 기간 일본 업체들의 TV 시장 점유율은 후퇴하거나 상승폭이 극히 낮았다. 3위 업체인 소니는 지난해 평균 7.5% 점유율보다 후퇴한 6.8%에 머물렀고, 2012년 이후 중국 하이센스에 4위 자리를 뺏긴 샤프는 소폭(0.2%) 상승한 4.7%에 그쳤다.

◇日, UHD TV로 재기 노렸지만 = 일본 업체들은 UHD TV로 재기를 노렸지만 삼성전자, LG전자의 제품 전략 수정으로 맥없이 주저앉았다. 삼성전자가 올 1분기 세계 UHD TV 시장 점유율 1위 자리를 탈환했지만 지난해 4분기까지만 해도 이 시장은 소니가 최강자였다. 세계 시장 점유율이 한때 50%까지 치솟는 등 독보적인 존재감을 과시했다.

TV 업계 다른 관계자는 "UHD 시장 초기 삼성전자, LG전자 등 국내 업체들이 프리미엄 제품 중심의 판매 전략을 고수하면서 시장 주도권을 내줬지만 국내 업체



샤오미 MI TV2 사양

화면크기: 49인치 3D (LG디스플레이 패널)
해상도: 3840 X 2160 (4K)
프로세서: 미디어텍 1.45GHz 쿼드코어
파일지원: AVI, MOV, MKV, FLV, TS, MP4
운영체제: 안드로이드 OS 4.3
무게: 12.3kg
가격: 3999위안 (약 66만원)



들이 보급형 UHD TV 생산에 적극 나서자 전세가 역전됐다"고 진단했다.

◇샤오미 쇼크... 중업체 '진격' = 중국 업체들은 그동안 중저가 제품 전략을 앞세워 우리 기업들과 경쟁해 온 만큼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다. 화질은 물론 디자인도 뒤쳐져 수익성이 낮은 중저가 시장에 올인할 수밖에 없었던 것.

그러나 올 들어 상황은 크게 바뀌고 있다. 새롭게 떠오른 UHD TV의 최대 시장은 바로 중국이다. 중국 업체들은 풍부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급격히 성장하고 있다. IHS 테크놀로지는 2014년 UHD 출하량이 지난해 310만대보다 5배 가까이 증가한 1520만대에 이를 것으로 예상했다. 전체 LCD TV 패널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6%로 높아질 것으로 보였다.

이 가운데 스마트폰 제조사였던 샤오미의 부상은 눈부시다. 샤오미가 내달 3일 출시하는 49인치 UHD TV 'MI TV2'의 가격은 불과 3999위안(약 66만원)에 불과하다. 최근 삼성전자가 내놓은 보급형 50인치 UHD TV 가격인 249만원의 4분의 1 수준이다. 더불어 이 제품은 LG디스플레이 패널을 탑재해 품질 수준도 높았다. 안드로이드 OS를 탑재해 스마트TV 기능도 갖췄고, 디자인 수준도 한국산 TV와 비교할 때 손색이 없을 정도다. 사양도 미디어텍 1.45GHz 쿼드코어 프로세서에 3D 기능, 동작 센서,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 강력하다.

전자업계 한 관계자는 "한때 애플 짝퉁을 만들던 샤오미가 올 1분기 자국 내 스마트폰 시장에서 애플을 제치는 등 혁신을 일궈낸 배경에는 프리미엄 제품의 저가화를 이뤄냈기 때문"이라면서 "TV 시장에서도 샤오미 바람이 불지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장효진 기자 js62@

LG 'G3' 출고가 89만원... "갤S5보다 비싸네"

가격 경쟁력 위해 예약 판매가보다 낮춰 출시 앞두고 런던서 행사 예고 영상 선보여

LG전자가 전략 스마트폰 'G3'의 가격을 80만원대로 낮췄다.

27일 이동통신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오는 28일 출시하는 G3의 출고가를 89만9800원으로 결정했다. 하루 전 LG유플러스에서 G3 예약 판매가로 밝힌 92만원보다 소폭 낮춰진 가격이다. G3가 95만4800원에 판매됐던 전작 'G2'보다 사양이 높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번 판매가 조정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일환으로 해석된다. 당초 예정보다 가격은 낮춰졌지만, 지난해 출시된 삼성전자의 갤럭시S5(86만6800원)보다 3만원 가량, 지난 12일 출시된 갤럭시 노트3(87만7800원)보다 12만원 가량 비싼 가격이다.

G3는 헤어라인 형태로 가공된 금속 재질을 적용했으며 5.5인치 고화질 QHD(해상도 1440×2560) 디스플레이, 광학식 손떨림보정(OIS) 기능이 적용된 1300만 화소 카메라가 탑재됐다. 두께는 8.95mm이며



영국 런던 피카디리 광장에 설치된 'LG전광판'에서 G3 공개 행사를 알리고 있다. 사진제공 LG전자

3000mAh 대용량 배터리가 탑재됐다. 화이트, 골드 등 3가지 색상으로 출시된다.

한편, LG전자는 영국 런던 피카디리 광장에 설치된 'LG전광판'으로 27일(현지시간) 런던에서 열린 G3 글로벌 행사 안내를 시작했다. G3 공개 행사는 런던을 비롯해 뉴욕, 샌프란시스코, 서울, 이스탄불, 싱가포르 등 세계 6개 도시에서 열릴 예정이다. 전략 스마트폰 공개 이벤트를 6개 도시에서 동시 개최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LG전자는 도시간 시차 등을 감안해 6개 행사 모두 24시간 이내 완료할 계획이다. 서지희 기자 jnsseo@

파인디지털, 골프거리측정기 '파인캐디 UP303' 출시

손목밴드와 가죽파우치 패키지

파인디지털의 내비게이션 브랜드 파인드라이브는 GPS 골프 거리 측정기 파인캐디의 새로운 패키지인 '파인캐디 UP303'을 출시한다고 27일 밝혔다.

파인드라이브는 3월 GPS 골프거리측정기 파인캐디 브랜드를 론칭해 필드에서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는 파인캐디 UP303을 선보인 바 있다. 회사 측은 본격적인 골프 시즌을 맞아 손목밴드와 가죽 파우치가 새롭게 추가된 패키지를 선보여 편의성을 높였다. 이 손목밴드는 블랙클러의 스타일로 필드 위에서



리하게 화면을 확인할 수 있다. 파인캐디 UP303은 새로운 패키지 구성과 함께 전세계 약 4만여개 골프장 코스 데이터를 새롭게 업데이트했다. 또한 USB만 연결하면 자동 업데이트도 가능해 새로운 골프장 코스를 손쉽게 확인할 수 있다. 조성준 기자 tiatio@

신제품 리뷰

'만도 풋루스' 전기자전거

최고속도 25km/h... 언덕길도 씩씩

계기판에 주행거리·배터리 잔량 등 표시 전기배터리 무겁고 447만원 가격 부담

자전거라고 표현하기에는 부족하고, 모터사이클이라고 하기에는 훨씬 가볍고 친환경적이다. 만도풋루스는 한라마이스터의 표현대로 '도심형 개인 이동수단'이라고 표현하는 것이 가장 적절해 보인다.

만도풋루스는 만도의 자동차 부품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된 전기자전거다. 자전거에 배터리와 모터를 장착해 페달을 단순히 보조하는 일반 전기자전거와는 달리, 기계적인 체인을 없애고 순수 전기 구동방식으로 움직인다.

만도풋루스의 최대 장점은 언덕 길에서 나온다. 오른쪽 핸들 바 옆에는 전자식 속도제어장치가 있다. 스로틀(Throttle)을 아래로 내리면 손쉽게 속도를 조절할 수 있다. 물론 페달은 힘들게 밟지 않아도 된다. 오토바이를 탈 때 핸들 바를 앞뒤로 당기며 속도조절을 하는 것과 같은 원리다. 왼쪽 핸들 바 옆에는 HMI(휴먼 머신 인터페이스)가 부착돼 있다. 자동차의 계기판에 해당하는 HMI를 통해 기본적으로 주행거리와 속도, 배터리 잔량, 자가발전량, 총누적 주행거리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언덕길에서 스로틀을 아래로 당기자 만도풋루스가 '영'하는 전기모터 소리를 내며 언덕을 올라가기 시작했다. 시속 10km/h 이상을 기록하며 상당히 빠르게 언덕을



만도풋루스는 만도의 자동차 부품기술을 바탕으로 개발된 전기자전거로 최고속도 시속 25km/h까지 달릴 수 있다. 기자가 만도풋루스를 타고 실제 주행하고 있다.

올라갔다. 평지에서의 속도는 더 빠르다. 페달을 밟지 않고 전기모터만 최고속도 시속 25km/h까지 달릴 수 있다.

간단한 조작만으로도 손쉽게 제품을 접을 수 있는 '폴딩시스템'도 만도풋루스의 장점이다. 일반 접이식 자전거처럼 장소의 구애 없이 이동과 휴대, 보관을 쉽게 할 수 있어 편리하다.

단, 전기 배터리가 장착되면서 무거운 무게는 감내해야 한다. 자동차 트렁크에 넣기 위해 만도풋루스를 접은 뒤 들어보았다. 21kg대의 무게는 성인 남성 혼자 들고도 그리 쉽지만은 않았다. 여기에 447만원(출고가)이라는 비싼 가격도 만만치 않은 부담인 것이 사실이다. 권태성 기자 tskwon@

혈관의 노화가 진행되면서 시작되는 혈액순환장애!
혈액순환이 원활하게 유지되면 손발 차고 저림이나 기억력감퇴, 무기력증과 만성피로 등 혈액순환 문제로 인한 증상들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혈관계통 성인병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혈액순환장애, 나이가 들수록 혈액의 흐름은 절제 관리하십시오.

복합성분 혈액순환개선제 - 씨큐란®
문의전화 : 02-920-8625

나이는 되돌릴 수 없지만 혈액순환 나이는 되돌릴 수 있습니다.

늦기 전에, 씨큐란!

- ✓ 손발 차고 저림
- ✓ 기억력감퇴
- ✓ 만성피로

광고심의필 : 1220-1500
*인터넷 의약품 판매행위는 불법입니다. 반드시 의사-약사와 상의하시고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은 다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쉬운 스마트TV’... 편의성으로 승부

‘사용하기 어렵다’ 인식 커져 운영체제 따라 차별화 전략

HTML5 적용 KT미디어 호환성 강조·TV로 마트쇼핑

안드로이드 적용 LG U+

4개 채널 한 화면 분할시청

유료방송시장에서 스마트TV 플랫폼에 이어 사용자 편의성 전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 CJ헬로비전, 씨앤엠, KT미디어허브, 티브로드 등 6개 사업자는 소비자 편의성에 초점을 맞춘 차별화된 전략으로 고객 모시기에 사활을 걸고 있다.

스마트TV는 사업 초기와 달리 시간이 흐를수록 스마트하지 않고 어렵다라는 인식이 팽배해지면서 당초 기대와 달리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지 못해 신뢰감을 높여

야 하는 상황이다. 지난해부터 스마트폰 TV 상용화가 본격화된 만큼 올해는 소비자를 사로잡는 스마트TV 주도권 싸움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27일 유료방송업계에 따르면 이들 업체는 사용자 인터페이스(UI)와 사용자 경험(UX)을 바탕으로 고객 맞춤형 차별화 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특히 채택한 OS(운영체제)에 따라 UI, UX가 달라질 수 있어 이에 맞는 다양한 서비스 개발이 필요하다. 구글 안드로이드는 스마트폰 대중화로 인해 사용자 환경이 친숙하다면, HTML5는 호환성이 좋다는 장점이 있다. SK브로드밴드-LG유플러스-CJ헬로비전-씨앤엠은 안드로이드를, KT미디어허브-티브로드는 HTML5를 채택했다.

CJ헬로비전은 사용자 인터페이스/사용자 환경(UI/UX) 개선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사용자 피드백을 바탕으로 버튼 수를 줄이고 심플하게 적용된 리모콘도 출시 예정이다. 이외에도 스마트 녹화의 편의성 증대 △다양한 앱 추가 △헬로tv 게임 △노래방 앱 등을 추가할 계획이다.

KT미디어허브는 ‘올레tv스마트’를 통해 HTML5에 맞는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 매시업(콘텐츠와 서비스를 융합해 새로운

웹서비스를 만들어내는 것)과 같은 콘텐츠 연동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예정이다. 일례로 야구와 농구중계 등 실시간 채널을 보면서 웹 정보를 동시에 시청할 수 있다. HTML5 ‘호환성’도 최대한 활용하고 있다.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를 직접 가지 않고 TV를 통해 쇼핑할 수 있는 기능을 마련할 예정이다.

HTML5를 채택한 티브로드 역시 개인 화서비스와 고객친화적인 UI/UX 제공에 집중하고 있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 SNS를 통한 TV시청 정보도 공유할 수 있다. LTE보다 4배 이상 빠른 국내 최초의 320메가 인터넷 서비스도 출시해 현재 11개 SO 영역에서 서비스 중이고, 연내 전 지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지난 1월 ‘C&M 스마트TV II’를 상용화한 씨앤엠케이블방송은 고가의 스마트TV가 아닌 일반 TV를 통해 3000여개의 다양한 앱과 최대 259개의 실시간 채널을 서비스하고 있다. 최근 시청 중인 TV화면을 그대로 스마트폰에 옮겨 무료 시청이 가능한 미러TV, 별도 연결장치 없이 블루투스 헤드셋 연결이 가능한 기능도 추가했다.

LG유플러스는 4채널 서비스를 통해 한

회사명	스마트TV 편의성 전략	※출처 각 사업 편의성 전략
CJ헬로비전	· 버튼 수 줄인 심플한 리모콘 · TV 화면 원격 제어 가능 · 고객 선호도 높은 채널 편성 화면	
KT미디어허브	· TV를 통한 대형마트 쇼핑 기능 · TV와 웹정보 동시 시청 가능	
티브로드	· SNS 통한 TV시청 정보 공유 기능 · 국내 최초 320메가 인터넷 서비스 출시	
씨앤엠	· 스마트폰을 통한 무료 TV화면 시청 기능 · 별도 장치 없이 연결 가능한 블루투스 기능	
LG유플러스	· 유아용 중국어, 디즈니 영어교육 등 다양한 콘텐츠 강화 · 한 화면 4분할 동시 시청 가능	
SK브로드밴드	· 내년 중으로 사용자 편의성 높인 서비스 공개	

화면을 4분할로 나눠 동시에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아용 중국어, 디즈니 영어 교육 등 콘텐츠 차별화에도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디즈니 애니메이션 400여편도 영어와 우리말 더빙 두 가지 버전으로 제공하고 있다.

고객 편의성에 초점을 맞추고 다양한 기능을 개발 중인 SK브로드밴드 역시 내년 중반 즈음 새로운 UI를 제공할 예정이다.
하유미 기자 jscs508@



KT, 속명여대에 스마트 캠퍼스

KT는 속명여대와 손잡고 사물인터넷(IoT) 기반의 스마트 캠퍼스를 구축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로써 속명여대 학생들은 스마트폰 하나로 출결 사항 관리, 건물 출입, 열람실 좌석 예약 등을 할 수 있어 학내 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강의 10분 전부터 전자 출석기 앞에서 기다리던 풍경이 사라지고, 본인 자리에 앉아 스마트폰으로 출석 등록을 할 수 있다.
사진재 기자 kt

대기업 협력 증기 60% “납품단가 낮아”

대기업에 협력하고 있는 중소기업 10곳 중 6곳이 현재 납품단가가 적정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가 대기업 협력 중소기업 300곳을 대상으로 실시한 ‘중소기업 납품단가 반영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2012년 기준 최근 2년간 재료비, 노

무비, 경비는 5.7-9% 증가했지만 납품단가 인상은 0.4-0.8%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중소기업 61.7%가 현재 납품단가가 적정하지 않다고 응답해 불만이 늘어났 것으로 나타났다. 납품단가가 적정하지 않은 이유로는

“치열한 가격 경쟁으로 납품가격 인하 불가”(37.3%), ‘원자재가격 상승분이 부분 반영됐으나 가격인상이 충분치 않음’(34.1%)이 주요 원인으로 꼽혔다. 이밖에 ‘노무비, 전기료 등 특정항목 미반영’, ‘원자재 상승요인 있었으나 가격인상 거부·동결’, ‘정당한 이유 없이 일괄적 감액’ 등

의 의견도 있었다. 납품단가 인상 요청을 시도한 곳은 58%였으며 이 가운데 38%는 원사업자와 합의 도출에 실패해 납품단가가 동결됐거나 조정을 거부당해 납품단가가 조정 없이 그대로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성준 기자 tialio@



해외이동결연을 신청하시면 도움이 필요한 해외이동과 후원자가 1:1로 결연을 맺어, 아동이 기본적인 권리를 누리며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굿네이버스는 희망 TV SBS와 함께하는 <희망 축구단 프로젝트>로 아프리카에 희망을 전하고 있습니다.

LG U+ 시장점유율 첫 20% 돌파

4월 단독영업 성과 KT는 30% 회복 실패

LG유플러스가 창사 이래 사상 처음으로 시장점유율 20%선을 돌파했다. 통신시장에 입수년간 고착화 된 점유율 5:3:2(SKT:KT:LGU+) 구조를 깨면서 지각변동을 예고했다. 27일 마라창조과학부가 발표한 4월 무선통신서비스 통계 현황에 따르면 이동통신 3사의 시장 점유율은 SK텔레콤 50.13%, KT 29.84%, LG유플러스 20.02%로 집계됐다.

LG유플러스의 가입자 수는 1104만 8023명(알뜰폰 가입자 25만5132명 포함)으로 전체 가입자(5518만86명)의 5%의 1 규모를 넘어섰다. 특히 이 회사의 시장점유율이 20% 선을 넘어선 것은 1996년 창사 이래 처음이다.

LG유플러스의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11월 19.85%까지 올라서며 20% 돌파를 목전에 뒀다. 하지만 경쟁사들의 점유율 사수 전략에 밀려 점유율 20% 돌파를 미뤄야 했다. 업계에선 이번 LG유플러스의 점유율 증가를 지난 3월 13일부터 이날 19

일까지 68일간 순차 영업정지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LG유플러스는 이통 3사가 영업정지에 들어간 4월 5일부터 26일까지 단독 영업활동에 나서 가입자 유치에 올인할 수 있었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4월 한달간 단독영업에 나서 상대적으로 경쟁사보다 많은 가입자를 모을 수 있었다”며 “또 새로 출시한 LTE 무한대 요금제의 반응이 좋고 LTE 선도기업이라는 이미지가 더해져 점유율 20%선을 넘은 것 같다”고 말했다.

이번 통계에 따르면 KT는 지난달에도 시장점유율 30% 회복에 실패했다. KT의 지난달 가입자 수는 1646만 7177명(29.84%)으로 3월(29.86%)에 이어 두달 연속 시장점유율 30%를 달성하지 못했다. KT는 45일의 영업정지를 한꺼번에 받으면서 지난 3월 13일부터 4월 26일까지 영업을 할 수 없었다.

SK텔레콤은 2766만4886명(50.13%)으로 전년(50.42%)보다 시장점유율이 줄었으나 50% 방어에는 극적으로 성공했다. SK텔레콤 자체 가입자 수는 262만명 가량 줄었지만 SK텔레콤 망을 쓰는 알뜰폰 가입자 수가 12만명 이상 늘었다.
김범근 기자 nova@

6·4 지방선거 운동 실시시간으로 본다

KT, LTE 연동... 스마트폰 시청 티브로드, 후보자 정보 화면 확인

통신과 케이블 업체가 첨단 정보통신 기술(ICT)을 동원해 선거방송을 제공하고 있다.

27일 관련 업체에 따르면 KT와 티브로드 등 방송통신 업체들이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LTE망을 활용한 실시간 유세시청과 양방향 데이터를 적용한 방송 등 최첨단 기술을 활용한 선거 방송을 실시한다. 이를 통해 유권자들이 보다 스마트한 투표를 할 수 있도록 도울 방침이다.

KT는 유권자들의 편의를 극대화하기 위해 스마트폰을 활용, 언제 어디서나 실시간으로 유세 현장을 시청할 수 있도록 했다. KT는 그룹사인 유스트림코리아와 올레비즈 ICS 생중계 플랫폼 지방선거 패키지를 출시, 현재 실시간 중계를 하고 있다. 이 패키지는 유권자들이 후보자의 유세 현장을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시청할 수

있도록 선거운동을 생중계로 지원하는 서비스다.

특히 과거와 달리 ‘LTE’ 연동 방식을 도입, 위성 플랫폼이 장착된 차량에서만 유세 현장을 확인할 수 있었던 기존 방식과 달리 스마트폰 등 인터넷 기반의 모든 기기에서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하다. 생중계 화면을 후보자 홈페이지와 모바일 메시지, 블로그 등 공식 SNS에서도 공유할 수 있도록 했다.

케이블TV방송사 티브로드는 시청자에게 입체적인 토론 방송을 제공한다. 티브로드는 6·4 지방선거 토론회를 국내 방송사 최초로 양방향 데이터 방식으로 방송할 계획이다. 티브로드 서울지역 디지털 케이블TV 가입자는 채널 4번에서 선거방송을 시청하는 도중에 리모콘을 이용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공하는 후보자 경력과 공약 등 자세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TV 화면에서 동시에 볼 수 있다. 국내 지방선거 방송에 이같은 채널 연동형 데이터방송이 도입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김범근 기자 nova@

쓰레기 더미 속에서도 별은 반짝이고 있습니다

지금은 누구의 응원도 받아보지 못한 쓰레기 줍는 소년이지만, 언젠간 수많은 관중의 응원을 받는 축구선수를 꿈꾸는 소년

이 아이의 꿈을 응원하는 최초의 관중이 되기로 했습니다
냄새 나는 이곳을 벗어나 더 높은 곳에서 반짝일 날을 기다려봅니다

가수 김장훈

내일을 잃어버린 수많은 아이들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해외이동결연 신청 (매월 3만원)

1599 - 0300

아오자이 입은 '롯데센터 하노이'... 초고층 시공력 과시

(베트남 전통의상)



10 롯데건설 롯데건설

롯데건설은 베트남 하노이 중심가에 지하 5층, 지상 65층 규모의 초대형 건축물인 '롯데센터 하노이'를 건설하고 있다. 롯데센터는 하노이에서 두 번째로 높은 초고층 건물로 연면적이 여의도 63빌딩의 약 1.5배인 25만㎡에 달한다.

지하 5층~지하 1층은 주차장, 지상 1층부터 7층까지 롯데백화점, 지상 8층부터 31층까지는 오피스가 자리한다. 32층 아웃리거를 지나 지상 33층부터 64층까지는 특급호텔인 롯데호텔과 서비스드레지던스, 고급 음식점과 식음료 매장이 자리 잡게 된다. 팬 팩대기층에는 전망대가 들어선다

아름다운 외관을 자랑하는 롯데센터는 베트남 전통의상인 아오자이를 형상화해 우아한 곡선미와 고급스러운 푸른색을 띠고 있다. 특히 건물 하부에는 베트남에서는 처음으로 건물에 경관 조명을 설치해 보는 각도에 따라 다르게 보이도록 설계했다. 때문에 롯데센터 하노이는 수차례 현지 언론에서 '베트남에서 가장 아름다운 건물'로 소개되기도 했다.

베트남의 중심인 하노이에서도 각국 대사관과 외국인 학교 등이 모여 있는 중심가에서 웅장한 외관을 뽐내고 있는 만큼 베트남 현지인의 관심도 높다. 지난해 7월 열린 롯데센터 하노이 상량식에 응웬 티 도안 베트남 국가 부주석이 참석해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하노이의 아름다움과 매력을 일깨워 줄 수 있도록 마무리 공사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직접 축사를 하기도 했다.

베트남의 건설문화를 바꿔놓은 롯데센터 하노이-오는 6월 말이면 위용을 드러내는 롯데센터 하노이는 곧공사물 마무리하고 현재 내부 인테리어와 마감공사가 한창 진행 중이다.

베트남은 한국과 달리 현지 건설업체들의 기술력이 떨어지고 장비도 열악해 공사

우아한 곡선미에 경관 조명... 현지언론 "가장 아름다운 건물" 국내 전문가 투입... 연약 지반서 '53시간 연속 타설공사' 화제 부산롯데타운 등 설계-시공 노하우... 중동 등 영토확장 박차

에 어려움이 많았다. 특히 연약지반인 베트남에서는 지하 2층 이상으로는 건축물을 짓지 않는데 롯데센터는 하노이에서는 처음으로 지하 5층 구조로 건설했다.

롯데건설은 연약지반을 다지기 위해 부지 전체에 최대 직경 2m에 달하는 파일을 지하 40~75m 깊이에 445개를 삽입했다. 이를 통해 연약지반임에도 1만1000톤에 달하는 하중도 견딜 수 있도록 튼튼한 기반을 마련했다. 롯데센터 하노이는 53시간 연속 지하메트 타설공사를 진행, 화제가 되기도 했다. 레미콘차량 2900대에 달하는 총 1만8700㎡의 콘크리트를 깊이 5.7m 규모에 타설하는데 성공했다.

롯데건설은 본사에서 고도의 기술력을 갖춘 10여명의 연구진을 현장에 파견, 타설공사 1주일 전부터 현지 시멘트 공장에서 배합부터 타설 기법까지 미리 수차례 테스트

트한 후 작업을 진행했다.

현장 주재임원인 김명국 전무는 "롯데센터 하노이 공사는 베트남 건설 문화를 바꿔놓은 획기적 사업이다"며 "롯데건설의 고도의 기술력과 치밀한 계획이 집약된 현장이다"고 말했다.

해의 초고층시장 진출의 교두보 마련=롯데건설은 롯데센터 하노이를 성공적으로 완공함으로써 해외 초고층 시장 진출의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롯데건설은 현재 시공 중인 롯데월드타워와 부산롯데타운의 수행으로 초고층 첨단기술을 축적하고 초고층 전문인력 확보로 초고층 시장에서 경쟁력 있는 건설사가 될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특히 초고층 프로젝트의 기획단계, 설계단계, 시공단계, 유지관리단계까지 참여한 최초의 건설사로서 향후 초고층 프로젝트 발주자에



롯데건설은 '롯데센터 하노이'의 성공적 시공을 바탕으로 해외 초고층 부동산 시장의 교두보를 마련하겠다는 전략이다. 이를 위해 올해는 신시장 개척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게 기획단계에서부터 다양한 정보와 개발 경험을 제공할 수 있으며 적극적인 Pre-Construction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국내를 포함해 현재 초고층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 중동, 중국

등 전 세계 초고층 시장과 롯데그룹이 이미 진출한 해외 국가에서 네트워크를 구축, 적극적 초고층 부동산 시장 진출을 추진할 계획이다.

롯데건설 김치현 사장은 "세계적 랜드마크가 될 롯데월드타워는 물론 롯데센터 하

노이를 성공적으로 건설하기 위해 초고층 건축물 건설 기술과 관련한 연구를 꾸준히 진행해 왔다"며 "향후 국내의 초고층 부동산 시장에서도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도록 다각도로 시행 전략을 세울 것"이라고 밝혔다. 구성원 기자 carlove@



롯데건설은 최근 외국계 회사로는 처음으로 베트남 정부로부터 '안전우수현장상'을 수상했다.

베트남서 외국계 회사 첫 안전우수현장상

무재해 1000만시간... 건설안전 신뢰 쌓아

4300여명 근로자 정기안전 교육 42개월간 단한건 인명피해 없어

롯데건설이 베트남 하노이시에 건설하고 있는 '롯데센터 하노이' 현장이 최근 베트남 보건사회노동부 장관으로부터 안전 우수현장상을 받았다.

베트남에서 우수현장으로 지정된 안전 우수현장상을 받은 것은 롯데건설이 외국계 회사로는 처음이다. 또한 현장의 안전을 관리하는 윤감택 책임이 하노이 인민위원회로부터 우수안전관리자상을 받았다. 이 행사는 제16회 베트남 노동안전, 위생, 화재 예방 강조 주간 발대식에서 진행됐다.

롯데센터 하노이 현장은 지난 2월 20일 기준 무재해 1000만 시간을 달성했으며, 지난해에도 하노이 인민위원회로부터 안전 우수현장상을 수상했다.

무재해 1000만 시간은 1000명이 하루 10시간씩 1000일 동안 무재해 시공을 달성해야 획득 가능한 기록으로 실제 롯데센터 하노이 현장은 지난 2010년 10월말

작공 이후 42개월 동안 단 한 건의 인명 피해도 없었다.

롯데센터 하노이 현장은 일일근로자 투입 수가 4300명에 달하는 대규모 현장이다. 현지 근로자의 안전의식이 낮은 편이라 안전관리를 위해 신규 근로자 자체 안전교육뿐만 아니라 소방서 위탁 화재예방 교육 및 방화훈련, 노동부 위탁 정기 안전 교육 등을 실시해왔다.

롯데건설 김명국 전무는 "베트남의 열악한 건설환경을 감안하면 무재해 1000만 시간은 현지에서는 사례를 찾아보기 힘든 기록"이라며 "앞으로도 무재해 준공을 위해 안전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말했다. 구성원 기자 carlove@

대박 또는 쪽박... 분양시장 양극화

평택 소사별 우미린 순위내 마감 청북 한양수자인은 미분양 사태 위태·동탄2도 입지따라 온도차

지난 226 입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이후 기존 주택시장과 분양시장의 온도차가 뚜렷한 가운데 최근 분양시장의 열기도 지역에 따라 큰 편차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부동산 전문 리서치업체 리얼투데이가 지난 4월 전국 평균 청약경쟁률(1:3 순위)을 조사한 결과 6.16대 1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5월(22일)에는 2.93대 1로 반토막 수준으로 낮아졌다. 이는 실수요자들이 갈수록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데다 오는 6월 지방선거와 월드컵이란 큰 행사를 앞두고 물량이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꼽힌다.

이런 가운데 분양시장에도 잘되는 곳만 잘되는 양극화 모습이 뚜렷하다. 입지가 좋거나 분양가가 싼 단지는 높은 경쟁률 속에 마감행진을 이어가는 반면 상대적으로 비인기 지역은 수요자들의 외면을 받고 있는 것이다.

앞서 평택지 소사별지구에 분양한 소사별지구 우미린 센트럴파크는 1:3순위에서 평균 2.01대 1로 전 타입 순위 내 마감과 함께 1주일 만에 90% 이상의 계약률을 기록하고 있다.



올해 분양시장에서는 부익부 빈익빈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다. 높은 청약률을 기록하며 분양에 성공한 위태 2차 오피스타운 센트럴파크 건설주택이 많은 사람들로 붐비고 있다.

하지만 평택시에는 용이동 등을 중심으로 여전히 미분양이 많아 김포시 등과 함께 미분양 무덤으로 불리는 지역이다. 지난 4월 한국도지신탁이 분양한 평택 청북면 한양수자인(718가구)도 미달 사태를 빚었다. 즉 고덕산업단지 삼성전자 입주와 수서발 TXN 개통 등 직접적 수혜가 예상되는 평택 소사별지구와 다른 지역 간의 온도차가 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인기 상한가인 위태와 동탄2신도시도 입지에 따른 편차가 크다. 지난 2월 위태신도시에 분양된 '오피스타운 센트럴파크'는 계약

약 나흘 만에 100% 분양이 완료됐지만 위태 센트럴 푸르지오, 위태 사랑으로 부영 등은 여전히 잔여 물량이 남아 있다. 위태 신도시의 성패는 휴먼리빙과 트랜지틀, 지하철역 등의 인접성에 따라 달라졌다는 평가다.

동탄2신도시에는 시범단지에 따라 온도차가 컸다. 시범단지외 인접해 있는 '동탄2신안인스밸리베리2차'는 지난달 초 청약경쟁률 4.1대 1로 1순위에 마감됐다. 하지만 이달 중순 분양한 '금강랜드리움'은 일부 주택형이 미분양됐다. 구성원 기자 carlove@

대형 주택업체, 내달 1만2734가구 공급

5월보다 30.7%줄어... 6·4선거·월드컵 등 이슈 분양시기 조정

다들달 대형 주택업체에서 분양하는 아파트 물량은 모두 1만2000여 가구인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주택협회는 회원사를 대상으로 6월 분양계획을 집계한 결과 14개 회사가 17개 사업장에서 1만2734가구를 공급하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5월(1만8375가구)보다 30.7% 줄

었고, 전년 동월 대비 14.8% 감소한 물량이다. 특히 수도권은 전월보다 45.7% 적은 6658가구에 불과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394가구로 가장 많았다. 이어 대구 1632가구, 충남 1422가구, 부산 1282가구, 서울 1264가구, 대전 1132가구, 세종 608가구 등의 순이었다.

사업 유형별로 보면 단순도급이 5210가구, 자체분양 4663가구, 재개발·재건축 조합물량 등이 2861가구로 집계됐다.

주택협회 관계자는 "2:26 주택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으로 주택시장이 얼어붙은 데다 세월호 사고 여파로 신규 분양마저 위축됐다"면서 "또 6·4 지방선거와 브라질 월드컵 개막 등으로 건설사들이 분양시기를 앞당기거나 늦추면서 분양물량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설명했다.

강영관 기자 kwan@

서울 아파트 매매가 4개월만에 하락 전환

KB주택동향, 전월보다 0.03% 하락 주택은 0.08% 오르며 양극

서울 아파트 매매가가 이달 1월 이후 4개월 연속 상승세를 마감하고 하락세로 돌아섰다.

27일 KB국민은행의 '5월 주택시장 동향'에 따르면 이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는 전월 대비 0.03% 하락했다.

구별로 살펴보면 용산구(-0.18%)의 하락폭이 가장 컸고 강서구(-0.08%), 금천구(-0.08%) 등도 평균보다 높은 하락률을 보였다. 강남3구인 서초구(-0.06%), 강남구(-0.05%), 송파구(-0.02%) 등도 일제히 하

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봄 이사 수요의 마무리, 주택임대차 선진화 방안 발표로 인한 투자심리 위축, 강남지역 주요 재건축 단지 가격 하락, 용산 국제업무지구 개발 무산 등에 따른 영향으로 매출 적체가 심화됐기 때문이다.

반면 서울지역 단독주택 가격은 전월 대비 0.08% 상승하며 아파트, 연립주택과 대조적인 모습을 보였다. 지난해 12월부터 6개월 연속 상승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전월(0.04%) 대비 상승폭도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강남(0.15%), 강북(0.03%) 모두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서울 단독주택의 경우 5월 평균 매매가(6억3872만원)가 1월

서울 주택 유형별 매매가격 변동률



(단위: %) * 출처: KB국민은행

평균 매매가(6억3493만원)보다 0.6%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고가 및 대형 규모 거래가 빈번하지는 않지만 지가 등의 영향으로 가격이 꾸준히 상승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상승세가 진정된 것으로 조사됐다. 5월 서울 아파트 전세 가격은 전월 대비 0.09% 올랐으나, 올해 1월부터 4월까지의 월평균 상승률(0.67%)에는 훨씬 미치지 못하는 진정국면에 접어들었다. 강영관 기자 kwan@

긴축에 등돌린 票心...경제통합 뒷걸음질

유럽의회 선거서 佛·英 등 반EU정당 득세

실업률 높고 연금 줄어 EU체제 국민 불만 고조 유로화 강제 수출력 약화... 1분기 성장률 0.3%

유럽의회 선거에서 반 유럽연합(EU) 기치를 내건 극우·극좌 정당이 대거 약진하면서 유럽 지도자들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게 됐다.

경기회복 둔화와 높은 실업률 등에 지친 유럽 각국 국민이 극단적인 주장에 귀를 기울이게 된 것이다.

반EU 정서와 너무도 느린 경기회복, 기업 경영환경 악화 등이 선거가 끝난 후 유럽 지도자들이 극복해야 할 3대 당면 과제로 떠올랐다고 26일(현지시간) 미국 CNBC가 보도했다.

EU는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혹독한 긴축정책을 펼쳤다. 그 결과 일자리에서 내쫓기고 연금이 줄어든 많은 주민이 EU체제에 회의와 분노를 느끼기 시작했다.

프랑스와 영국 그리스 덴마크 등에서 반EU 정당이 승리를 거뒀다. 특히 프랑스 극우정당 국민전선은 25%가 넘는 득표율을 기록했다.

뱅크오브아메리카캐피탈리츠(BoAML) 애널리스트들은 최근 보고서에서 "유럽의



통합을 반대하는 움직임이 거세질 것이며 EU가 어디로 나아갈지 방향이 확실하게 제시되지 못할 것"이라며 "이는 경제정책을 약화시키고 금융시장 규제를 더욱 복잡하게 해 시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지난주 나온 국내총생산(GDP) 수치는 유럽의 성장세가 여전히 미약하다는 점을 다시 확인시켰다.

EU의 지난 1분기 GDP 성장률은 0.3%에 불과했고 그 가운데 유로존(유로 사용 18개국)의 성장률은 0.2%에 그쳤다.

스피로소버리스트레티지의 니콜라스



나이젤 파리지(가운데) 영국독립당(UKIP) 당수가 26일(현지시간) 영국 사우샘프턴의 길드홀에서 유럽의회 선거 결과를 듣고 기뻐하고 있다. 영국과 프랑스 등 유럽 주요국에서 반EU 정당이 제당에 오르는 등 약진했다. 사우샘프턴/AP연합뉴스

스피로 매니징 디렉터는 "1분기 GDP 성장률은 유로존 경기회복 기대를 무력하게 만들었다"며 "선거는 유로존이 경기회복에 고군분투하는 가운데 개혁 피로감이 극심해진 상황 속에서 치러졌다"고 설명했다.

마리오 드라기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이날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ECB콘퍼런스에서 "우리의 최대 과제는 저물가와 물가 하락 전망에 따른 부정적 영향"이라고 말해 다음달 ECB 정책 통화정책회의에서 경기부양책 실시 가능성을 재확인했다.

유럽 기업들은 각국 긴축정책이 소비지

출에 타격을 주고 유로화 강제로 수출 경쟁력 약화하는 등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고 CNBC는 분석했다.

또 아르날도 아르부치니 유럽상공회의소 사무총장은 "여내 기업과 가계 대출이 계속해서 줄어드는 등 기업이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우리는 은행들에 견실한 재무구조를 요구하면서도 중소기업 대출을 필요로 하는 모순적인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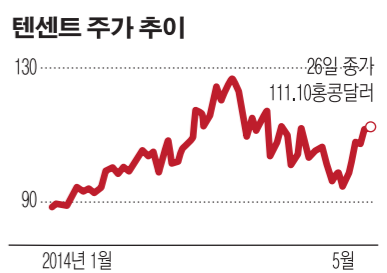
전문가들은 EU가 규제를 완화해 기업들의 짐을 덜어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배준호 기자 baehj94@

“亞기술주 저평가 상태 폐북보다 텐센트 투자”

올해 IT지수 상승폭 비교 세계 1.7%...신흥시장 11%↑

텐센트 주가수익비율 33배 “폭넓은 상승 모멘텀 기대”



구글과 페이스북 등 미국 IT기업 대 신 아시아 기술주를 사는 것이 좋다는 전문가 분석이 나왔다.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UBS자산운용의 케빈 테이 아시아·태평양 담당 최고투자책임자(CIO)는 "아시아 기술주들이 올해 많이 올랐으나 여전히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아 매력적인 투자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MSCI신흥시장IT지수는 올들어 11% 올랐다. 이는 세계IT지수의 1.7% 상승폭을 크게 웃도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가치를 보면 여전히 아시아 기술주 상승 여력은 충분하다고 테이 CIO는 평가했다. MSCI신흥시장 IT지수에 속한 종목들의 주가순자산 비율(PBR)은 2.1배로 선진국 경쟁사의 3.4배를 밑돌고 있다.

인도 IT아웃소싱업체 인포시스의 PBR은 3.7배다. 반면 미국 IBM의 PBR은 11.3배에 이르고 있다. 아시아 최대 인터넷업체인 텐센트

는 홍콩증시에서 지난 1년간 주가가 86% 뛰었다. 그러나 여전히 향후 12개월 예상 순이익을 바탕으로 한 주가수익비율(PBR)은 33배로 페이스북의 38배, 링크드인의 78배에 못 지치고 있다.

테이 CIO는 "아시아 IT기업들은 3년 전보다 폭 넓고 깊은 상승 모멘텀이 있다"며 "중국에서 이제 최대 기업은 인터넷기업"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러한 "아시아 기술주 가운데 여전히 하드웨어 관련주가 상승세를 주도하고 있지만 인터넷과 소프트웨어 서비스업체들도 강세를 지속할 준비가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하드웨어 제조업에서 마진 이 높은 컨설턴트나 소프트웨어 서비스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이 아시아 기술주 전망을 더 밝게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텐센트는 지난 분기 메시징 서비스가 창출하는 광고 매출이 늘면서 순이익이 전년보다 60% 급증했다.

배준호 기자 baehj94@

“아이폰으로 스마트홈 연결” 사물인터넷에 ‘쿵’

애플이 스마트홈(smart home) 플랫폼으로 사물인터넷(the internet of things) 시장을 본격 공략한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26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애플은 스마트홈 플랫폼을 통해 자사의 제품으로 집안의 모든 전자기기를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구현할 계획이며 이를 오는 6월 2일 열리는 전세계개발자대회(WWDC)에서 공개할 것이라고 신문은 전했다.

애플은 스마트홈 플랫폼으로 지난 1960년대 TV에서 인기를 끌었던 로보 에니메이션 '젯슨 가족(The Jetsons)'의 생활을 현실화한다는 방침이다. 애플은 아이폰 사용자가 귀가했을 때 자동으로 조명이 켜지는 등 보다 사용자가 쉬운 시스템으로 승부할 전망이다. 이는 지난해 11월 특허출원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고 FT는 설명했다.

뉴욕=민테성 특파원 tsmin@



태국왕 쿠데타 승인 군병력 시위대 대치 2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빅토리아 모뉴먼트에서 반쿠데타 시위대와 군 병력이 대치하고 있다. 이날 푸미폰 아둔야뎃 태국 국왕은 군부 쿠데타를 승인하고 프라웃 찬-오차 육군 참모총장을 국가평화질서회의 의장으로 임명했다. 방콕/AP연합뉴스

아베, 동남아 손잡고 中전제 나선다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서 베트남·필리핀 지지 발표 아세안 안보 지원 독트린도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동남아시아와의 관계를 통해 중국 견제에 나선 의향이다.

아베 총리는 중국과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벌이는 베트남과 필리핀 등 동남아

국가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26일(현지시간)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그는 지난 23일 WSJ와의 인터뷰에서 "중국이 베트남과 영유권 갈등을 빚고 있는 해역에서 일방적으로 석유를 시추해 긴장을 고조시키고 있다"며 "우리는 힘에 의한 강제적인 상태 변경을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아베는 최근 남중국해 분쟁 관련 베트남과 필리핀을 지지하는 성명을 잇따라 냈

다. 일본도 동중국해에서 다오위다오(일본명 센카쿠)를 놓고 중국과 대립하고 있다.

그는 동남아 국가를 지지해 아시아에서 중국을 견제하는 등 힘의 균형을 꾀하는 것과 동시에 일본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의도라고 WSJ는 분석했다.

아베는 오는 30일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제13차 아시아안보회의(상그릴라 대화)에서 미국과 일본이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 안보를 지원하는 내용의 '아베 독트린'도 발표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총리

가 상그릴라 대화에서 연설하는 것은 아베가 처음이다.

아베 총리는 러시아에 대해서는 관계를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지난 20-21일 중국을 방문하면서 러시아와 중국 관계는 한층 격상됐다. 양국은 가스공급 계약을 체결하고 외국의 내정간섭에 단호히 반대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는 등 밀접한 관계를 과시했다.

이에 동아시아에서 일본의 고립이 심화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됐다. 아베 총리는 우크라이나 사태 관련 러시아를 비판하면서도 "올가을쯤 푸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배준호 기자 baehj94@

글로벌 리포트

화이자, 아스트라제네카 인수 포기

세계 최대 제약사 화이자가 영국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인수를 포기했다고 26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화이자 앞서 아스트라제네카에 1170억달러(약 119조원) 규모의 인수안을 제시했지만 아스트라제네카 이사회는 기업가치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했다고 거부했다. 화이자 앞선 이날 성명을 통해 인수 포기 사실을 밝히고 기업가치 산정은 적절했다고 주장했다. 이언 리드 화이자 최고경영자(CEO)는 "최종 인수 제안은 합리적이었으며 접근 가능한 정보를 바탕으로 가치를 제대로 평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레이프 요한손 아스트라제네카 이사회 의장은 이날 성명을 통해 화이자의 결정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밝혔다.

화이자 앞선 영국 당국의 현행법에 따라 향후 6개월 동안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인수를 추진할 수 없다고 통신문은 전했다.

화이자 앞선 지난주 아스트라제네카에 대한 인수 가격을 주당 93달러로 상향하며 올들어 세 번째 인수안을 제시했지만 아스트라제네카는 이를 거부했다. 스톡홀름에서 거래되는 아스트라제네카의 주가는 이날 2.1% 하락했다.

美 도난차 1위는 혼다 어코드

지난해 미국에서 가장 많이 도난당한 자동차는 일본의 혼다 어코드였다고 26일(현지시간) 미국 일간 USA투데이가 보도했다.

차량 위치추적기 제조사인 로직이 자사 제품이 탑재된 차량을 대상으로 도난과 회수 건수를 조사한 결과 혼다의 중형차인 어코드가 두 항목에서 5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어코드에 이어 혼다의 준중형 자동차인 시빅이 2위, 토요타 캠리와 코롤라가 3, 4위를 각각 차지했다. 일본 차는 혼다 어쿠라 인테그라(6위)와 닛산 알티마(9위)를 포함해 10위 목록에 6개 차량을 포진시켰다. 미국 차로는 쉐보레 실버라도(5위)가 유일하게 5위권에 들었다. 한국차는 없었다.

한편 도난 차를 색상별로 보면 검은색이 가장 많고 청록색이 가장 적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취임

10년 만의 정권 교체를 이끌어 낸 나렌드라 모디 전 구자라트 주총리가 26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대통령궁에서 총리 취임식을 가졌다고 미국 CNN방송이 보도했다.

그는 취임식 선서 직후 웹사이트 성명에서 "인도 발전을 위해 전진하려면 국민 여러분의 지지와 축복,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며 "세계 평화와 발전을 추구하며 국제사회에 적극 참여하는 강력하고 통합된 국가를 만들기 위해 함께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총선에서 승리한 인도국민당(BJP) 인사들이 신임 내각에 대해 합류했다. 내무 장관에는 BJP 총재인 나지나트 싱, 외무 장관은 수시마 스와라지 전 BJP 하원 원내대표, 재무장관은 아룬 자이들레이 전 BJP 상원 원내대표가 각각 취임했다.

특히 이날 취임식에는 나와오 사리프 파키스탄 총리가 참석해 인도와 파키스탄 관계가 개선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 파키스탄이 인도 총리가 상대국 총리 취임식에 참석한 것은 1947년 양국이 독립한 이후 처음이다. 파키스탄 총리와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 등 남아시아 지역협력연합(SAARC) 7개 회원국 정상 또는 대표가 이번 취임식에 참석했다.



26일(현지시간) 인도 뉴델리 대통령궁에서 열린 15대 인도 총리 취임식에서 나렌드라 모디(오른쪽) 신임 총리가 프라반 무르가리 인도 대통령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이번 취임식에 나와오 사리프 파키스탄 총리 등 남아시아 지역의 정상들이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뉴델리/로이터연합뉴스

벤츠 광고, 보라는 사람은 안보고...

온라인 광고 57% 자동 컴퓨터에 노출... 트래픽만 높여

메르세데스-벤츠 온라인 광고가 잠재 고객인 '사람'보다 자동프로그램화 된 컴퓨터에 더 많이 노출됐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26일(현지시간)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가 보도했다.

트래픽과 실질적으로 잠재고객에 광고가 노출된 빈도가 다르다는 것이다.

온라인 광고가 적발 전문업체 텔레메트리(Telemetry)가 메르세데스-벤츠의 36만 5000건의 온라인 광고 샘플을 분석한 결

과에 57%가 실제 사람이 아닌 자동화된 컴퓨터 프로그램에 노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메르세데스-벤츠는 문제의 온라인 광고를 광고기술회사 로켓퓨얼(Rocket Fuel)에 광고 집행을 맡기고 있다.

FT는 로켓퓨얼이 메르세데스-벤츠의 광고를 잠재 고객 고역이 자주 찾는 사이트보다는 사기성 웹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해 트래픽만 높이는 등 '눈속임'을 벌였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메르세데스-벤츠 측은 "회사의 전체 광고 집행에 있어서 문제의 광고는 6%에 불과하며 로켓퓨얼이 문제가 된 광고 집행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집행비를 우리에게 반환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FT는 이번 사건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는 온라인 광고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우려를 더욱 확대시킬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나은 기자 better68@

'동양사태' 반성문 낸 김철... 현재현은?

〈동양네트웍스 前 사장〉

〈동양그룹 회장〉

“죄인 자세로 자숙” 남은 심리 일정 포기... 선처 전략으로 주가조작 등 혐의 부인... 현 회장에 비난 화살 쏟아질 듯

‘동양사태’의 주범으로 알려진 김철(38·사진) 전 동양네트웍스 사장이 남은 심리 일정을 포기하자 공범인 현재현(65) 회장의 선택이 주목받고 있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사장은 최근 반성문을 제출하면서 애초 부동의했던 검찰의 진술조서 내용을 모두 인정하고 증인 8명에 대한 신청을 철회했다.

김 전 사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재판과 관련, 유동성 위기에 봉착한 동양그룹 계열사 매각에 적극 개입한 인물로 알려져 있으며 현 회장의 아내인 이해경 부회장의 신

임을 받는 ‘비선라인’의 중심축으로 거론됐다.

현 회장과 공모한 김 전 사장은 계열사 CP를 다른 계열사가 사들이도록 해 1300억원 규모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 등으로 지난 1월 28일 구속기소됐다. 지난 12일에는 동양시멘트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현 회장과 함께 추가 기소됐다.

김 전 사장은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들과 설전을 벌이며 혐의를 부인해 “책임감을 느끼는 태도가 아니다”란 지적에 활짝이기도 했다.

이를 의식한 듯 김 전 사장은 반성문에서 “그동안 억울하고 답답한 저 자신의 처



지에만 도취해 있었다”면서 “제가 목소리를 높여 잘못을 따지며 싸워야 하는 상황이 아니라 죄인의 자세로 숨죽이고 자숙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사실을 지금에야 깨달았다”라고 털어놨다.

그는 또 “평생 재테크는 고사하고 아직 전셋집도 한 번 얻어보지 못한 평범한 월급쟁이”라며 “유일한 아들인 제가 구속되면서 (부모님께) 생활비며 의료비조차 드리지 못하는 상황이 됐다. 공박한 제 상황이 너무 답답하고 조급했다”라고 자신의 처지를 설명했다.

이와 함께 김 전 사장은 “(동양그룹의) 소모성 자재 구매대행(MRO) 업체인 ㈜

미러스를 설립할 당시 전·현직 임원들에 의해 장악된 그룹 구매를 통합하고 구매비리를 척결하는 역할을 부여받았다”며 “수십 년간 관행화한 그룹 구매시스템을 개선하는 등의 과정에서 기존 기득권 세력들과 엄청난 분쟁에 휘말렸다”라고 동양그룹 전·현직 임원들의 비리 실상도 일부 밝혔다.

김 전 사장이 전향적 자세를 취한 가운데 현 회장이 어떤 태도를 보일지 주목된다.

현 회장은 지금까지 적극적으로 해명하는 재판 전략을 택했지만 김 전 사장이 선처 전략으로 바꾸면 모든 재판의 화살이 자신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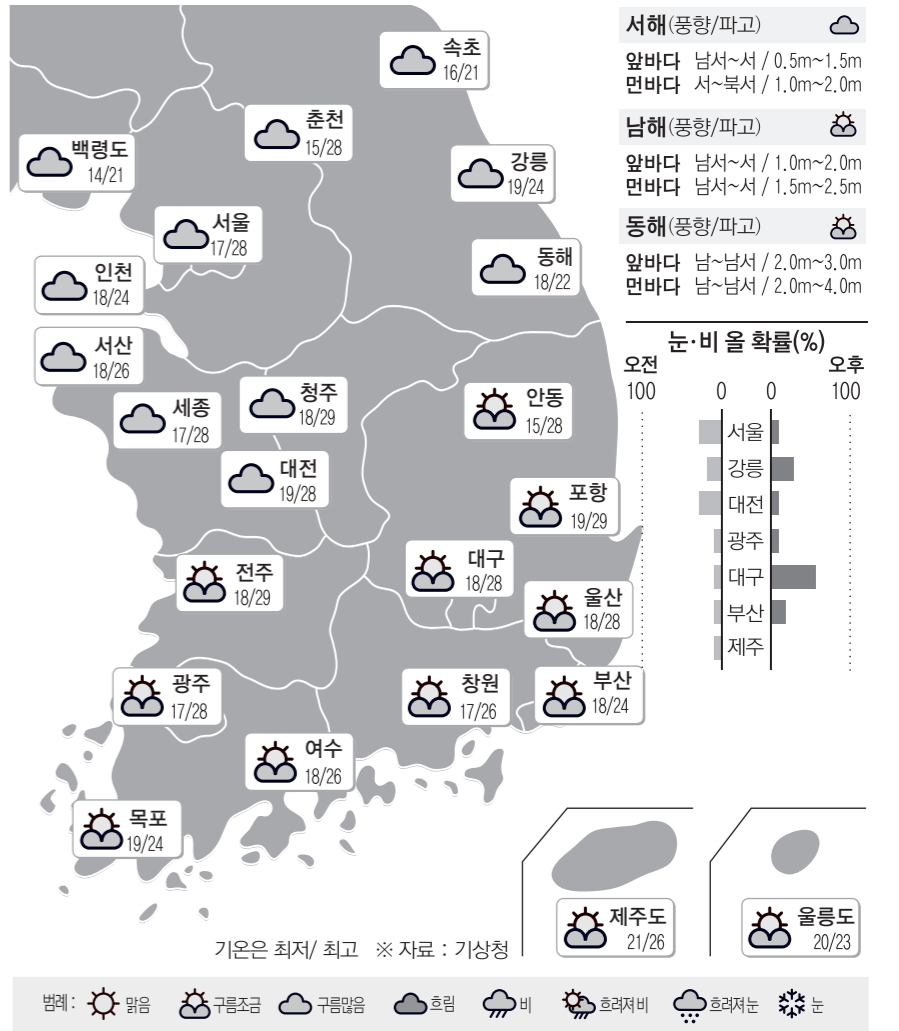
그렇다고 기존 주장을 허물어버리면 엄청난 형량 선고가 불가피하다.

가히 이리저도 저리저도 어려운 형국인 것이다. 유혜은 기자 euna@

내일의 날씨

5월 28일 ☀ 해돋이 05:15 해질 19:45 🌙 달출 04:52 달침 19:11

전국이 가끔 구름만겠고, 낮부터 늦은 오후 사이에 강원남부와 충북북동, 남부내륙에는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다. 중부지방에서는 오전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다. 아침 최저기온은 12도에서 19도, 낮 최고기온은 21도에서 29도가 되겠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전해상(동해중부앞바다 제외)에서 1.5~4.0m로 높게 일겠고 그 외에는 0.5~2.5m로 일겠다.



故인의 '디지털 유산' 상속될 수 없나

세월호 유족 요청해도 판례 없어 대법원, SNS 등 처리 방안 연구

홈피 내용 CD 저장 공감대 형성

지난 2004년 이라크에 파병됐다가 전사한 한 미군 병사의 아버지는 아들이 주고받은 이메일로 그를 추억하고 싶다는 계정을 보게 해달라고 야후에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당시 야후는 재산자에 이를 공개하는 것은 프라이버시 정책에 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아버지는 소송을 통해 아들의 이메일을 볼 수 있게 됐다. 그렇다

면 이와 유사한 일이 발생한다면 우리 법원은 어떤 판단을 내릴까.

국내에서는 지난 2010년 천안함 침몰 희생 장병의 유족들이 고인의 홈페이지 등에 접근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 거절당한 일이 있다.

이후 국내에서도 이른바 '디지털 유산'에 대한 관심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물론, 최근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피해자 유족도 비슷한 요청을 해올 수 있지만, 국내에는 아직 이를 규율하는 법안이나 판례가 확립돼 있지 않아 개별 재판부 판단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대법원은 이 같은 현실을 고려해 최근 디지털 유산의 적절한 처리방안에 대한

연구에 돌입했다고 27일 밝혔다.

대법원 사법제도 비교연구회를 중심으로 해외 사례 등을 검토해 국내에 유사 소송이 들어올 경우 어떻게 처리할 수 있을지 연구하는 것이다.

지난 20일 열린 디지털 유산의 상속에 관한 연구회에서는 해외 사례처럼 유족이 계정에 직접 들어가 볼 수는 없다라도 고인의 홈페이지 등에 수록된 내용을 CD 등에 저장해 받을 권리는 인정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된 것으로 전해졌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유산은 기본적으로 민법이 아닌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이나 '통신비밀 보호법' 등 특별법 영역에서 다뤄야 하며



그러려면 현행 정보통신망법 48조와 49조에 대한 해석도 논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이 밖에도 이날 연구회에서는 사용자가 정보통신서비스 이용 계약을 할 당시 사후 디지털 유산의 처리방법도 정하도록 하는 쪽으로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수 기자 tearand76@

한수원 '원전비리' 피해 소송액 1000억대 불과

10조대 피해 추정... 턱없이 적어

지난해 원전비리로 최소 수조 원대의 피해를 한국수력원자력이 비리업체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액수가 1000억대에 불과한 '솔방망이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수원은 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박근혜 대통령과 관계기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공공기관 정상화 워크숍'에서 현재까지 130개 업체를 검찰에 고발했으며 이 중 37개 업체에 138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 같은 소송금액은 피해 규모에 비해 턱없이 적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무리 적게 잡아도 수조 원대의 손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시험성적서 위조부품으로 지난해 신고리 1·2호기와 신월성 1호기의 가동 이 중단되면서 발생한 발전손실, 전체 원전 정비비용, 석탄이나 LNG(액화천연가스) 대체발전 비용 등을 합치면 무려 10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한수원의 소송액에는 JS전선과 부품 시험기관 등을 상대로 작년 11월 제기한 1300억원의 소송이 포함돼 있다. 불량 부품 납품에 따른 원전의 가동 지연과 전기 판매 손실, 부품 교체 등 비용 1660억원에 대한 것이다.

더구나 나머지 업체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금액도 83억원에 불과하다. 한수원 측은 실제 받아낼 수 있는 금액을 최대한 산정했다는 입장이다. 한수원 관계자는 “비리업체의 자산현황과 회수 가능성, 인지도 등을 고려해 최대 금액의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며 “앞으로 상황을 보면서 소송금액을 확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수원은 원전비리 근절을 위한 노력을 소개했다. 연루된 직원 43명은 해임했으며 99개 납품업체에 제재조치를 취했다. 유충현 기자 lamuziq@



발전공기업 '일자리 박람회'

발전공기업 2014 청년일자리 박람회'가 26일 오전 강남구 삼성동 코엑스에서 개최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박람회는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동남발전, 한국중부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등 발전공기업 6개사와 51개 중소기업이 참여해 300명의 인력을 채용했다. 이날 박람회를 찾은 학생들과 구직자들이 행사장을 둘러보고 있다. 노진환 기자 myfixer@

유명언과 도피생활 30대 여성 체포

美 체류 차남 프랑스로 출국 실패

"세월호 증축, 유씨 전시설 목적" 김한식 청해진 대표 진술 조사

전 세모그룹 회장 유병언(73)씨와 도피 생활을 한 의혹을 받고 있는 30대 여성이 검찰에 체포됐다.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희중 2차장검사)은 기독교복음침례회(일명 구원파) 신도인 30대 중반 여성 신모씨를 지난 25일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26일 밝혔다. 검찰은 사생활 측면을 고려해 신씨와 유

씨의 구체적인 관계는 밝히기 어렵다고 전했다. 구원파에 따르면 신씨는 유씨 일가의 계열사 중 하나인 아해프레스에 소속된 인물이다. 미국에서 오래 생활해 한국어 능숙하지 못하며 2~3년 전부터 유씨의 사진작품 분류 등을 도와주는 업무를 맡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유씨의 차남 혁기(42)씨가 프랑스로 출국을 시도했다가 실패한 정황을 포착했다. 앞서 장남 대권(44)씨 역시 세월호 참사 직후 프랑스로 출국하려다 출국금지 조치로 불발됐다.

한편 유씨 부자에 대한 신고 보상금 총 6억으로 대폭 상향 조정된 감경은 2배

이상 늘어난 제보로 수사에 활기를 띄고 있다.

검찰은 이날 새벽 유 전 회장이 구원과 본산인 경기도 안성 소재 금수원에 다시 숨어들어 갔다는 첩보를 입수, 사실 여부에 대한 확인 작업을 진행했다.

이런 가운데 유씨가 자신의 개인 전시설로 사용하기 위해 세월호를 무리하게 증축했다는 의혹이 불거져 눈길을 끌고 있다. 검정 합동수사본부는 유씨가 김한식 청해진 대표에게 증축을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유씨를 검거하는 대로 증축 과정의 불법성 여부를 조사할 예정이다. 유혜은 기자 euna@

'치매특별등급 판정자격' 양·한방 갈등

소견서 발급 권한 놓고 대립각

의사와 한의사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한의사의 치매특별등급 판정자격을 의사가 부정하는가 하면, 한의사들의 집단 휴업을 놓고 의사 단체가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까지 하고 나섰다.

대한의사협회와 치매 관련 학회는 26일 성명서를 통해 한의사에게 치매특별등급 소견서 발급 권한을 주는 것을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앞서 정부는 경증 치매환자에게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키 위해 7월부터 치매특별등급을 신설하고, 의사 또는 한의사가 소견서를 발급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의협 등은 “치매특별등급 의사소견서 작성에 핵심이 되는 MMSE(간이정신상태 검사), GDS(전반적퇴화척도) 등은 현대의 학에 근거를 둔 평가도구이므로 한의사가 소견서를 작성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정부의 태도 변화가 없을 경우 치매특별등급제도 참여를 전면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대한한의사협회는 곧바로 반박 성명을 냈다. 한의사협회는 “이번 개정안은 현행 치매관리법의 ‘치매환자란 의사 또는 한의사로부터 치매로 진단받은 사람을 말한다’는 정의에 입각한 것으로 한의사의 치매판정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박성태 기자 psj@

'인명사고' 후성·SK케미칼 11명 입건

울산공장 폭발·질식사고 관련

최근 후성과 SK케미칼 울산공장에서 발생한 폭발 사고와 관련, 사고에 책임이 있는 원장과 협력업체 관계자 11명이 형사 입건됐다.

울산지방경찰청 합동수사본부는 지난 8일 후성 불산제조공장에서 LNG(액화천연가스) 버너 폭발로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사고와 관련해 후성 울산공장의 공장장, 안전과 생산 업무 책임자 등 7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감식 결과 버너의 열순환장치 안에 남아 있던 잔류가스가 버너 점화와 함께 연소하면서 폭발한 것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 밖에도 경찰은 지난 8일 SK케미칼 울산공장에서 벵기C유 저장탱크 내부를 청소하던 근로자 3명이 질식하는 사고와 관련해서도 SK케미칼 공사감독자 등 2명과 청소업체 대표이사 등 2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입건했다.

김민수 기자 tearand76@

럭키펫 유통, 애완용품 매장 관리직 모집



애완동물 사료 및 용품 도매업체 (주)럭키펫 유통이 애완용품 매장 관리직을 모집한다.

업무내용은 애완동물 관련 제품 판매 및 창고형 대형 할인 매장 관리, 제품 입고 관리 등이다.

주말 근무가 가능해야 하며 평일 1주, 주말 1일 휴무이다. 근무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9시까지이다. 서울 노원구 공릉동에 위치한 태릉점에서 근무하게 된다.

역력 문서 작성이 가능한 컴퓨터 활용 능력 보유자, 고용촉진지원금대상자, 운전

모집요강	
모집직종	매장관리직
직무내용	애완동물 관련 제품 관리 및 판매
접수마감일	2014년 6월10일
고용형태	기간 정함 없는 근로계약
경력조건	관계없음
학력	학력무관
우대사항	인근거주자

가능자, 인근 거주자, 차량 소지자, 청년층을 우대한다. 경력과 학력에 대한 조건은 없다. 서류심사와 면접을 거쳐 최종 선발되며 어려서를 이메일(luckypet12@naver.com)로 제출하면 지원 가능하다.

급여는 협의를 거쳐 결정되고 판매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가 지급된다. 복리후생으로 4대보험과 퇴직금, 중식이 제공된다.

유혜은 기자 euna@

도시 르네상스와 교통시스템

싱가포르의 잘 정돈된 도시다. 좁은 땅을 효율적으로 사용하면서도 지역 특유의 개성도 존재한다. 알고 보면 1965년 독립 직후 싱가포르의 계획 성장에 어려움이 많았다. 산업화 초기, 낙후된 기존 건물들과 기반 시설을 재 개발하는 데에도 버거웠다.

그렇다면 싱가포르를 지금처럼 화려하고 깨끗한 도시로 만든 원동력은 무엇일까. 바로 주기적 장기 계획이다.

싱가포르 정부는 1974년 도시를 조금 더 체계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기 위해 도시재개발청(Urban Renewal Authority, URA)을 설립했다. URA는 싱가포르 국가개발청 산하 기관이다. 약 1000명에 이르는 도시계획 및 설계 전문가들이 도시계획 및 관리 기능을 통합적으로 운영하면서 중장기 계획을 세워 왔다.

먼저 도시재개발청은 장기적 목표를 세웠다. 매립사업과 도심 활성화 사업을 아우르는 10년 단위의 콘셉트 플랜을 수립했다.

5년 단위로 710개에 달하는 국토를 55개 구역으로 나누어 토지의 용도 및 도로체계에 대한 전반적 지침 등을 세부적으로 관리하는 '마스터플랜'도 동시에 운영했다. 10년 단위의 콘셉트 플랜에서 도시계획에 관한 큰 그림을 제공했다면 5년 단위의 마스터플랜은 토지 소유주를 비롯한 개발업자와 국민들에게 토지의 용도, 건물 용적률, 도로체계 및 교통 등에 관한 세부지침을 규정, 제공하고 있다.

싱가포르와 한국은 영토가 좁고 자원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비슷하다. 반대로 우수한 인적자원이 많고 과거 성장 중심의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다는 점도 같다.

교통상황의 경우 좁은 영토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효과적인 교통망을 구축하고 있다. 그 결과 도시에 위치한 고속도로들의 평균 속도는 시속 63km다. 중심업무지구의 도로는 평균 25km를 유지할 정도로 정체현상을 경험하기 어렵다.

싱가포르 교통정책은 '중립교통계획'을 세워 교통인프라 개선과 교통관리를 위한 신기술 도입, 차량의 보유와 관리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을 활성화 하기 위한 계획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물론 새 차를 사기 위해 7만 싱가포르달러(약 6000만원)를 지불해야 한다. 차량보유는 주거비용과 더불어 가장 큰 재정적 부담이기도 하다.

싱가포르가 교통체증을 피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국민들의 불만이 있음에도 정부가 강력한 제도를 통해 교통계획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싱가포르와 한국 사이에 절대적 토지 크기의 차이는 있다. 그러나 공공부문의 주도적 투입은 변화와 혁신을 통해 '남비 없는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싱가포르의 사례는 우리나라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도시계획·관리 통합적으로 운영

도시계획·관리 통합적으로 운영

도시계획·관리 통합적으로 운영

도시계획·관리 통합적으로 운영

도시계획·관리 통합적으로 운영

도시계획·관리 통합적으로 운영

도시계획·관리 통합적으로 운영

도시계획·관리 통합적으로 운영

도시계획·관리 통합적으로 운영

도시계획·관리 통합적으로 운영

도시계획·관리 통합적으로 운영

도시계획·관리 통합적으로 운영

도시계획·관리 통합적으로 운영

도시계획·관리 통합적으로 운영

도시계획·관리 통합적으로 운영

도시계획·관리 통합적으로 운영

도시계획·관리 통합적으로 운영

도시계획·관리 통합적으로 운영

도시계획·관리 통합적으로 운영

도시계획·관리 통합적으로 운영

도시계획·관리 통합적으로 운영

도시계획·관리 통합적으로 운영

도시계획·관리 통합적으로 운영

도시계획·관리 통합적으로 운영

도시계획·관리 통합적으로 운영

도시계획·관리 통합적으로 운영

도시계획·관리 통합적으로 운영

도시계획·관리 통합적으로 운영

도시계획·관리 통합적으로 운영

도시계획·관리 통합적으로 운영

도시계획·관리 통합적으로 운영

도시계획·관리 통합적으로 운영

도시계획·관리 통합적으로 운영

도시계획·관리 통합적으로 운영

도시계획·관리 통합적으로 운영

도시계획·관리 통합적으로 운영

도시계획·관리 통합적으로 운영

도시계획·관리 통합적으로 운영

도시계획·관리 통합적으로 운영

도시계획·관리 통합적으로 운영

도시계획·관리 통합적으로 운영

도시계획·관리 통합적으로 운영

도시계획·관리 통합적으로 운영

도시계획·관리 통합적으로 운영

김병준의 말



국민대 행정정책학부 교수 전 청와대 정책실장

문제로 돌아가라

비난하고 조롱하기는 쉽다. 책임지라 소리치기도 쉽다. 세월호 참사처럼 이미 그 잘못이 명백한 경우는 더욱 그렇다. 입을 반쯤만 열어두고 독한 소리가 절로 튀어나간다.

책임을 묻거나 그만두게 하는 것도 그렇다. 권한 있고 힘 있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 국무총리건 장관이건 전하에 없는 현자를 얹혀 둔 것도 아니다. 내보내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문제를 푸는 것은 다르다. 문제의 원인과 구조를 정확히 이해해야 하며, 이해관계의 조율을 통해 합리적 결론을 끌어낼 수 있어야 한다. 또 필요한 인적·물적·재정적·정치·사회적 자원도 동원할 수 있어야 한다.

제대로 된 정치인이라면 어렵더라도 문제를 풀기 위해 노력한다. 쉬운 길만을 가지 않는다. 조롱하거나 비난하는 데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고 책임을 돌리거나 책임을 묻는 데 그치지 않는다. 국민이 관심을 가졌던 말년 늘 문제를 직시하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해 고민한다.

세월호 참사 이후 또 한 번 생각해 보았다. 이 나라의 정치와 그 지도자들은 어떤가? 한심하고 부끄러웠다. 무슨 문제건 터진 다음에야 떠들기 시작한다. 그 전에는 눈길조차 주지 않

던 문제들이다. 그것도 문제해결을 위해서가 아니다. 비난과 조롱에 손가락질이 대세다. 문제 그 자체에는 큰 관심이 없다.

이번에도 그랬다. 들리느니 대통령 사과에 내각 총사퇴 운운이었다. 물어보자, 대통령이 사과하고 내각이 사퇴하면 문제가 해결되나? 정치권이나 정부의 정책역량이 높아지나? 명색이 정치로 밥을 먹고 사는 프로들이다. 권위주의 시대의 허수아비 정당이나 언론들이 하던 주장이나 되풀이하고 있어서 야되잖나.

책임을 묻지 말라는 뜻이 아니다. 그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뜻이다. 스스로의 낮은 정책역량에 대한 통렬한 반성과 함께 유사한 문제를 막기 위한 체계적인 정책적 노력들이 있어야 하지 않았느냐는 이야기다.

대통령 당화도 답답하기는 마찬가지다. 유족과 국민의 슬픔을 위로하는 게 목적이었다면 그런대로 들을 만했다. 책임을 묻는 부분도 괜찮았다. 특히 개인에게 책임을 묻는 관행을 넘어 해양경찰청이나 안전행정부 같은 기관에 책임을 묻는 부분이 인상적이었다. 공식사회에는 적지 않은 충격이 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문제 그 자체와 관련해서는 실망이 크다. 프로다운 고민이 보이지 않는다. 관피야 문제만 해도 그렇다. 문제의 핵심은 관피야 그 자체가 아니라 관료집단과 시장(市場)의 유착이다. 당연히 법무법인이나 회계법인, 그리고 공사·비공식 네트워크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넓고도 단단한 구도에 대한 생각이 높아 있어야 했다.

그러나 그러지 않았다. 모든 문제를 관피야 문제로 돌렸다. 또 그후에는 법무법인에서 고액 연봉을 받던 인사를 자세한 설명이나 변명 없이 이 유착구도를 타파할 총리 후보로 지명했다. 문제를 제대로 보고 있는지 의문이 가는 부분이다.

관료집단을 문제의 근원으로 보는 시각도 그렇다. 관료도 사람이다. 보통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유·불리의 구조를 따라 움직인다. 잘못된 유·불리의 구조가 문제이지 관료집단 그 자체가 문제인 것은 아니다. '가만 두지 않겠다'는 위협이나 칼을 높이 들어 해결할 문제는 더욱 아니다.

공직개방에 대한 낭만적 시각도 프로답지 않다. 우리 사회의 한정된 인적 풀을 감안할 때 개방은 오히려 유착을 심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민간 인력이 시장의 이해관계를 지닌 채 관료조직을 드나들 수 있기 때문이다.

다시 문제로 돌아가 고민해야 한다. 정치권은 더 이상 내각 총사퇴나 외치는 전박한 정치를 그만두어야 한다. 문제로 돌아가 문제 그 자체에 더 전착해야 한다. 이 슬픔을 겪고도 문제로 돌아가지 못하면 나라의 정치는 더 이상 정치가 아니다. 타도의 대상이 될 뿐이다.

대통령과 청와대도 그렇다. 문제를 단순하게 봐서는 안 된다. 그렇지는 않다고 하겠지만 많은 사람의 눈에는 그렇게 보인다. 국가개조라는 말을 쉽게 쓰는 것이 그렇고, 공론을 거치지 않은 채 담화문에 거친 개혁안을 담은 것이 그렇다. 다시 이야기한다. 문제로 돌아가라. 그리고 제대로 보고 제대로 고민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야말로 문제가 생긴다.

젊은 발언대



손 계 준

서울대 지리학과 한국선진화 홍보대사

좁은 땅 효율적으로 사용하며

지역 특성도 지키는 싱가포르

주기적으로 장기계획 수립해

도시계획·관리 통합적으로 운영

도시계획·관리 통합적으로 운영

도시계획·관리 통합적으로 운영

도시계획·관리 통합적으로 운영

도시계획·관리 통합적으로 운영

도시계획·관리 통합적으로 운영

도시계획·관리 통합적으로 운영

도시계획·관리 통합적으로 운영

도시계획·관리 통합적으로 운영

도시계획·관리 통합적으로 운영

도시계획·관리 통합적으로 운영

도시계획·관리 통합적으로 운영

도시계획·관리 통합적으로 운영

도시계획·관리 통합적으로 운영

도시계획·관리 통합적으로 운영

도시계획·관리 통합적으로 운영

도시계획·관리 통합적으로 운영

도시계획·관리 통합적으로 운영

도시계획·관리 통합적으로 운영

도시계획·관리 통합적으로 운영

도시계획·관리 통합적으로 운영

도시계획·관리 통합적으로 운영

도시계획·관리 통합적으로 운영

도시계획·관리 통합적으로 운영

도시계획·관리 통합적으로 운영

도시계획·관리 통합적으로 운영

도시계획·관리 통합적으로 운영

도시계획·관리 통합적으로 운영

도시계획·관리 통합적으로 운영

도시계획·관리 통합적으로 운영

도시계획·관리 통합적으로 운영

도시계획·관리 통합적으로 운영

도시계획·관리 통합적으로 운영

도시계획·관리 통합적으로 운영

도시계획·관리 통합적으로 운영

도시계획·관리 통합적으로 운영

도시계획·관리 통합적으로 운영

도시계획·관리 통합적으로 운영

도시계획·관리 통합적으로 운영

도시계획·관리 통합적으로 운영

도시계획·관리 통합적으로 운영

도시계획·관리 통합적으로 운영

도시계획·관리 통합적으로 운영

도시계획·관리 통합적으로 운영

도시계획·관리 통합적으로 운영

도시계획·관리 통합적으로 운영

온라인 외곽의 말

베이비박스 논란...그래도 잘만 자라줬으면~

○...부득이한 사정으로 아기를 키울 수 없는 산모가 작은 철제 상자 안에 아기를 두고 갈 수 있도록 만든 상자인 이른바 '베이비 박스'를 놓고 네티즌의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다. 이에 대해 일부 네티즌은 "낳긴 낳았는데 잘 키울 자신은 없고 버릴 생각하고 있다면 차라리 저 베이비 박스에 넣는 것이 낫다고 본다." "키울 수 없는 사람들에게 그나마 집을 열어준다"는 찬성의 의견을 내놓았다. 반면 "아동 유기를 조장한다", "이젠 내놓고 아이를 버리라고 하느냐", "몸만 찢고 다 성인은 아니다" 등 반대 의견도 나왔다. 한편 네티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비록 부모에게 버려졌지만 씩씩하게 잘 자라줬을 좋겠다"는 글에 공감했다.



종 국민성금의 투명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세월호 국민성금'은 26일 기준 수백억원이 모금됐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홈페이지 접속하면 볼 수 있도록 1원부터 어디에 사용되는지 출처 공개하십시오", "진짜 저런 거 손대는 것들은 대대손손 별 받을 것", "컨드림 게 없어서 성금을 컨드리겠다", "성금을 받아야 할 가족들 뒤편 말고 빼돌린 돈도 상당히 나올 텐데" 등 우려를 나타냈다. 이 밖에도 네티즌들은 "돈 좋아하는 사람들이 워낙 많아서", "국민 슬픔을 담보로 약용하는 이들은 사라져야 할 것" 등의 의견을 내놓았다. 성금의 투명성 제고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오가는 가운데 한 네티즌은 "성금조차 믿고 내지 못하는 대한민국"이라는 안타까운 글로 시선을 끌었다. 김유령 기자 hura@

○...최근 세월호 침몰 사고와 관련해 모인 각



- 1 아이폰6 콘셉트 영상... 아이폰5S와 비교해 보니
- 2 G3 티저영상 공개... 손에 쥐어도 불편없는 5.5인치 강조
- 3 정몽준 "무상급식은 농약급식"vs 박원순 "전량 폐기"
- 4 다음-카카오 합병 소식에 관건주 '후끈'
- 5 고양터미널 화재 이어 제주 버스 화재 "조용할 날이 없네"

오늘의 **BAEK** **배국냥**

www.baekn.com

칸 심사위원 전도연의 한류 효과는



배국냥닷컴은 다양한 기자 칼럼을 통해 사회, 대중문화, 스포츠계 전반에 비판을 가했다.

'이꽃들의 36.5℃'는 '노홍철 장가 가기'를 방송한 MBC 예능프로그램 '무한도전'에 대한 비판을 제기했다. 유재석 등 멤버들은 김거리에서 여성들에게 다가갔고, 남자 친구의 유무를 물었다. 설 새 없이 여성들의 키, 나이, 직업, 얼굴이 언급됐다. 시청자는 외모, 나이 지상주의에 입각한 '무한도전' 멤버들에게 불편함을 느꼈다. 노홍철이라는 한 개인의 특성에 따른 이상 취향일 수 있다. 손치더러도 이를 절대기준으로 삼은 '무한도전'의 전 멤버가 약 90분 내내 전락투구하는 모습은 '현대판 세자빈 간택'을 연상시키는 정서적 해악을 안겼다. '홍색별의 별별애기'는 "6·4 지방선거, '무한도전'만 같아라"라는 제목으로 22일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진행되는 본투표 현장을 담고, '무한도전'의 선거 풍경을 통해 실제 우리 사회 선거의 명과 암을 짚었다.

또 '최두선의 나비효과'는 지난 25일 폐막한 제67회 칸 국제영화제 경쟁 부문 심사위원으로 활약한 배우 전도연의 한류 효과를 분석했다. 전도연은 한류 열풍을 주도한 '겨울연가', '대장금', '할리우드'에 진출한 이병헌 등에 이어 새로운 한류의 초석을 다지고 있다. 오상민의 현장은 최근 흥런 레이스에 불을 붙인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의 박병호를 주목했다. 박병호는 넥센이 치른 43경기에서 풀타임 출장해 총 128경기가 예정된 올 시즌 85경기를 남겨놓고 있다. 이런 페이스라면 2003년 이승엽(56호) 이후 11년 만에 50홈런을 달성할 수 있다는 계산이다. 오상민의 현장은 외국인 타자 속에 토종 타자로 군림 중인 박병호의 마음가짐과 4번 타자로서의 집념을 높이 평가했다.

최두선 기자 sun@

(주)지앤에스지

골프용품 전문생산 전문업체

받는분께 강한 만족감을 드리는 꼭 필요한 선물!! G&SG에서 선물하세요~



기업홍보용품 / 선물용품 / 골프장개장기념품

골프필드용품 제조전문

02-744-7444/765-7404

www.gnsg.co.kr 서울 성북구 삼선동1가 208 (주)지앤에스지

VIP GOLF GIFT SET

누구나 만족할 수 있는 G&SG의 골프필드용품



*광고에 게재된 로고나 상호는 이미지를 유기한 이미지입니다.

NAVER 지앤에스지

正論

지방선거에서 좋은 후보 뽑는 방법

노동자 시인으로 유명했던 박노해는 아시아 빈민국을 여행한 후, 한국엔 빈곤이 없다고 말했다. 한때 노동자의 빈곤한 삶을 대변했고, 치열한 삶을 보낸 시인의 이 말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좋은 정치인을 뽑는 방법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준다.

지방선거를 앞두고 많은 후보자는 복지를 얘기한다. 그 복지 방향이 올바른가를 평가해야 한다. 박노해 시인을 통해 정치인들이 제시하는 복지공약의 공허함을 알 필요가 있다. 복지라고 할 때, 대표적으로 떠올리는 것은 빈곤구제 정책이다. 즉 빈곤층에 빠진 국민에 대해 정부의 배려정책이 복지다. 그런데 박노해 시인은 한국엔 빈곤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복지는 뭔가. 빈곤층을 위한 복지 아니고, 소득과 관계없이 다수 사람들에게 공짜로 혹은 낮은 가격으로 정부가 제공하겠다는 정책이다. 무상버스, 무상교복 등 무상상품을 복지란 이름으로 포장한 것이다. 이런 복지는 본질적으로 낭비된다. 국민 다수의 세금으로 무상상품을 제공하는 게 어떻게 정치공약이 될 수 있는가? 비용이 수백억되는 정치상품에는 반드시 누군가의 비용이 전제되어야 한다. 그래야 낭비없이 제대로 공급될 수 있다. 그러나 국민세금으로 무차별적으로 제공되는 무상상품은 수혜자들에게 감동이 없다. 물론 저소득층 가구에겐 도움이 되겠지만, 이는 소수 국민들이다. 다수는 공짜이기 때문에 받기는 하되, 그냥 버리면 된다. 일선 학교에서 나타나는 무상급식제도의 폐단을 보면 알 수 있다.



현진권 자유경제원장

우리 정치구조는 분명 국민세금으로 지출되는 무상상품인데, 정치인은 이를 확대하는 것이 마치 자신들의 자랑스러운 정책인 양 선전한다. 진짜 좋은 무상상품 정책이 되려면, 본인 재산으로 지역민들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정치인은 아직까지 본 적이 없다. 전부 국민세금으로 낭비하는 무상상품을 경쟁적으로 개발하고 있다. 지방 유권자들도 마찬가지다. 결국 본인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게 무상상품인데, 무상상품이 진짜 무상인 줄 착각하고 정치인들의 공짜공약에 투표 방향이 흔들린다.

정치인과 유권자 중에서 한쪽이라도 정신 차리면 절대 공짜복지란 포장의 상품이 나올 수 없다. 그러면 어느 쪽이 제정신을 차려야 하나? 유권자 쪽이다. 정치인들에게 선거

는 생명과 같다. 정치에 이기기 위해서 어떤 행동도 할 수 있는 게 정치인이다. 다시 말해 유권자들의 마음을 가장 잘 읽고 행동하는 집단이 정치인이다. 유권자를 고려하지 않고, 국가미래를 생각하는 정치인은 절대 존재할 수 없다. 정치인들에 대한 교육, 훈시는 필요없다. 이제 유권자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복지로 포장한 공짜상품이 결국은 국민들의 부담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설사 현재 국민들이 부담하지 않더라도, 우리 자식세대로 경제적 부담이 전가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부모가 무상상품을 즐기게 하기 위해 자식세대에겐 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게 옳은 방향인가? 무상상품이 나에게 올 때, 난 절대 반대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즐긴 무상상품의 비용을 내 자식이 부담해야 한다면, 난 그 정책에 가담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세대와 자식 세대는 집단으로 해석하지 말고, 나와 내 자식이란 개인 관점에서 무상상품을 평가해야 한다. 내 자식에겐 좀 더 나은 세상을 물려주고 싶은 게 인간의 본성이다.

정책도 집단주의적 관점에서 설명하지 말고, 나와 자식이란 개인 관점에서 무상상품의 의미를 생각하도록 해야 한다. 이제 지방선거도 얼마 남지 않았다. 많은 정치인들 중에서 누구를 뽑아야 하는지 쉽지 않다. 한가지 확실한 방법은 무상상품, 무상복지에 대해 많은 공약을 제시하는 후보자를 외면해야 한다. 현명한 유권자가 있어야 현명한 정치인이 나온다. 절대 가꾸려 노력하는 성립될 수 없다.

객석

농기계도 음주운전 안돼요



박현배 아산경찰서 음주파출소장 경감

본격적인 영농철을 맞아 농기계 사용량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안전사고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농기계 사고는 농번기인 5월에서 10월 사이에 집중되고 있다.

모내기 시작되는 5월부터 마무리되는 6월까지 가장 많이 발생하는데 사고자는 60대 이상이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사고 유형은 경운기, 트랙터 등 운전 중 전복이나 추락, 농기계로 신체가 끼이거나 하는 사고, 또 운행 중 차량과의 교통사고가 대부분이다. 사고의 주요 원인은 안전수칙 미준수, 사소한 부주의나 조작 미숙, 교통법규 미준수 등이다. 이러한 농기계 사고는 운전이나 조작시 신체가 노출돼 있기 때문에 사고가 발생하면 중상 또는 사망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농기계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몇 가지 예방수칙을 지켜야 한다. 농기계에 대한 철저한 예방점검 및 정비

가 선행해야 한다. 조작 미숙으로 인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작동 요령이나 사용시 주의 사항을 충분히 익혀야 하며 야간에 필요한 전조등도 철저히 점검해야 한다.

또 운행이나 작업시에는 음주는 절대 금물이다. 과도한 적재도 삼가야 한다.

농기계에 옷이 끼거나 말려들어 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활랑하거나 소매가 긴 옷은 입지 말아야 하고 적절한 보호구와 안전화 등을 착용해야 한다.

비상시를 제외하고는 운행이나 작업 중 기계에 뛰어오르거나 내려서도 안된다. 동력장치나 회전부 등에 손이나 신체를 대는 것은 절대 삼가야 한다. 또한 두령이 높은 곳에 출입시 반드시 미끄럼 방지판을 사용하고 경사지에 주차할 경우 받침목을 사용하여 기계를 신거나 내릴 때에는 평탄하고 안전한 곳을 이용해야 한다.

아울러 도로 운행시에는 사고 예방을 위해 농기계 뒤편에 야광 반사판을 부착해 안전을 확보하고 차량 운전자의 눈에 잘 보이도록 밝은색 옷을 착용하는 것이 좋다.

평상시 안전점검 및 안전수칙을 잘 지키고 주의를 기울여 농기계 사고로부터 소중한 인명과 재산을 보호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은 백년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

기자의 눈

한은 '25bp'의 족쇄



이진영 정치경제부/mint@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결정하는 매달 둘째주 목요일은 전 경제-금융권의 이목이 한눈에 집중된다. 우리나라 각종 금리의 기준이 되는 금리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금통위는 시작 전부터 관심이 뜨겁다. 각종 기관과 언론들은 금통위를 며칠 앞두고 기준금리 전망을 쏟아낸다. 금통위 당일에는 취재진이 현장을 가득 채우며 열기를 이어간다.

그러나 최근 한은 금통위에 대한 관심은 크게 사그라졌다. 금통위가 지난해 5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25bp) 내린 2.50%로 결정된 후 이달까지 1년째 동결 행보를 이어갔기 때문이다.

국내외 전망기관들은 금통위가 앞으로 상당 기간 금리를 동결할 것으로 보고 있다. 최대 내년 상반기까지 현 금리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하는 곳도 있다. 2009

년 3월부터 2010년 6월까지 1년4개월 동안 기준금리를 2.0%로 동결한 역대 최장 기록을 넘어갈 가능성이 높다.

이에 따라 '동결 중수'에 이어 '동결 주열'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다. 통화정책이 급변동하는 것도 문제지만 이렇게 통화정책이 멈춰 서버린 것도 바람직한 상황은 아니다. 금통위가 매달 열리는 것이 무색할 지경이다.

이런 가운데 25bp 단위로 기준금리를 조정하는 관행이 우리나라 실정에는 '황새같은'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더 심각한 문제는 25bp 단위로 금리를 조정하는 것을 뒷받침할 적절한 논리와 연구가 한눈에 없는데 있다. 다만 미국의 전 연방준비제도 의장인 앨런 그린스펀이 기준금리를 아기걸음(baby step)처럼 조금씩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한 이후 세계적 추세에 따른 것이라는 초라한 답변뿐이다. 이는 사대주의라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신인 이주열 한은 총재의 통화정책 목소리가 '모기소리'가 아닌 '대포소리'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기본적인 부분에서부터 치열한 연구와 고민이 이뤄져야 한다.

이웃들의 36.5°C

'무도-노홍철 장가가기' 왜 문제인가

"대놓고 외모 평가에 여자 나이 운운. 길거리에 반반한 여자 찾아 노홍철이 골라잡는 콘셉트. 이게 대체 뭐하자는 거지. 뭐가 그렇게 잘났는데?", "무한도전" 이번 편 전까지 팬이었는데, 정말 불쾌하고 아직까지도 찻잔이다. 유재석도 여대로 간 것도 이해가 안가. 소름 돋는다. "무한도전" 보면서 이렇게 역한 감정을 느끼긴 처음이다. 유홍가 호객행위하는 사람을 방송에서 불시에 마주친 기분. 거기다 나이, 키, 외모로 후려치기는 어쩌나 심한지, 22세 아가씨를 어디 35세 남자한테 들이대려고. 의외로 '무한도전'은 자기객관화가 안되는 프로그램인지도, "키 180cm이하는 루저(Loser)라는 말에 많은 사람들이 분노했는데, 오늘(24일) '무한도전'에서는 키 작고 못생기고 전문직이 아닌 여자는 루저라는 걸 보여줬네..."



이를 절대기준으로 삼은 '무한도전'의 온 멘버가 약 90분 내내 전력투구하는 모습은 '현대판 세자빈 간택'을 연상시키는 정서적 해악을 끼쳤다. 방송 내내 이 같은 전개와 각도에 대해 제작진의 연출에 의한 일말의 풍자나 비판이 이뤄지지 않았다는 것은 '무한도전'의 질적 저하를 높이는 대목이다. 그동안 다양한 사회문제를 다양한 형식과 포맷으로 웃음으로 승화시켜 의미를 되새김질 하거나 '무한도전'의 성격을 무력화시킨 것이다. 우리 사회에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외모 지상주의를 '무한도전'이 부추기는 꼴이 됐다.

방송을 지켜보는 시청자들은 노홍철이 내세운 외적 기준에 의해 'only one(온리 원)'도 아닌 'Number One(넘버 원)'의 여성을 찾는 유재석, 박명수, 정준하, 정형돈은 서울 강남의 가로수길, 하하는 서울 한강 둔치, 여자 농구 선수 위다솜 등으로 향했다. 멤버들은 키, 나이, 얼굴을 기준으로 길거리 속 여성들에게 다가갔고, 남자 친구의 유무를 몰았다. 설 세 없이 여성들의 키, 나이, 직업, 얼굴이 언급됐다. 심지어 상대가 노홍철이라는 것마저 숨겨지지 않았다. 시청자는 외모나 키 지상주의에 고스란히 입각한 '무한도전' 멤버들에 불편함을 느꼈다. 노홍철이라는 한 개인의 특수성에 따른 이성 취향일 수 있단소 치더라도,

방송을 지켜보는 시청자들은 노홍철이 내세운 외적 기준에 의해 'only one(온리 원)'도 아닌 'Number One(넘버 원)'의 여성을 찾는 유재석, 박명수, 정준하, 정형돈, 하하의 모습에 큰 실망감을 느꼈다. 설레설레 도망치는 스텀다이스의 뒤를 쫓아 설득하려는 멤버의 모습까지, 대한민국 평균 이하를 자처하며 시청자의 큰 사랑을 받았던 '무한도전', 그리고 이를 밑바탕으로 건강 한 웃음을 이끌었던 '무한도전'의 현 지 표는 우리 사회가 가진 고장난 선입관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한 채였다. 그들이 '엄선'한 여성들로 꾸러질 다음 주 '노홍철 장가가기 프로젝트'를 지켜보는 시청자의 눈빛은 이미 싸늘하다.

문화부 기자 flowerslee@

이투데이

社 正道言論 經濟報國 未來指向

www.etoday.co.kr

Table with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departments: 발행인, 편집인, 편집국장, 광고국장, and phone numbers for different sections like 논설실, 정치경제부, 산업부, 문화부, 광고접수, et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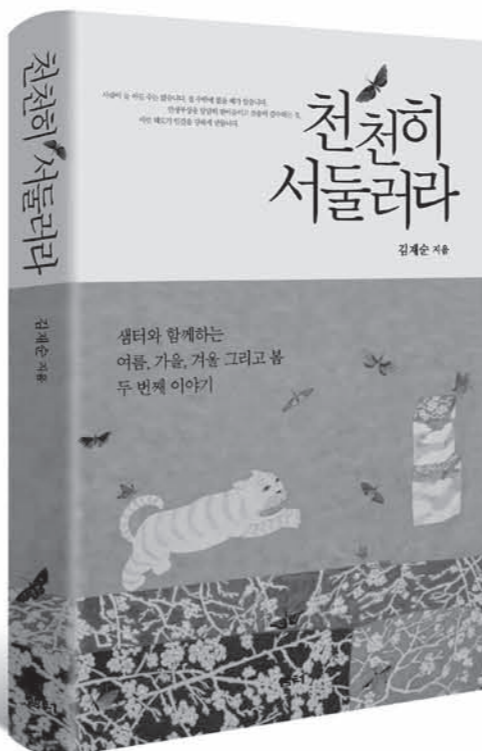
43년간 변함없이 월간 샐터 뒤표지를 지켜 온 지혜의 샘

“서두르되 무엇을 위해 서두르는지 알고 하라”

지금 당신이 걷는 길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삶의 방향이 흔들릴 때마다 중심을 잡아 줄 한 권의 나침반

<샐터>를 받으면 제일 먼저 읽는 뒤표지글이 좋아 내 마음의 앞자리로 모셔 오곤 했습니다. 이해인 수녀(시인) 이 세상에 앞표지보다 뒤표지가 더 중요하고 의미 있는 책이 딱 한 권 있습니다. 바로 <샐터>가 그렇습니다. 정영희 교수(수필가) 김재순 씨(말포) 여든 살이 된다 하더라도 청년에 머물러 있는 '한 눈 뜨고 꿈꾸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소설가 최민호

월간 <샐터>의 창간인 김재순 전 국회의장이 <샐터> 뒤표지에 써온 글들을 묶은 책. 살아간다는 것의 의미가 무엇인지, 행복한 삶이란 어떤 삶인지, 그리고 어떠한 식견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지 들려준다.



김재순 지음 | 224쪽 | 울퉁퉁 양장 | 값 13,000원

내가 만드는 행복, 함께 나누는 기쁨

자신을 속이지 말라(無自欺). _이항의 유묵

나쁜 일인 줄 알면서 하는 것도 자신을 속이는 것이지만, 선한 일인 줄 알면서 하지 않는 것도 자신을 속이는 것이다.

... '옛 공부법'의 좌우명(박수민) 중에서

월간 샐터 2014년 2월호 특집 매를 맛있다

참살이 마음공부 법문 | 양인자의 다락방 책꽂이 | 뉴욕에서 떠온 진주알 편지 현경 기생충에게 배우다 서민 | 속구 수집가의 보물창고 이재형 | 나혜석의 신적 개그엔 김경진의 만지 | 할아버지의 부엌수업 | 사사시절 기차여행

함박는 함박웃음 샐터 정기구독 이벤트 (2014년 2월 7일까지)

- 1 샐터 2개월 추가 증정, 2 레노바 자수 타월 (1개, 예상은 한정 발행), 3 롱 티스톤 + 포크 세트, 4 클래식 정사각 유리컵(베를린) 2개 (1000원 + 2000원), 5 수필집 (지금은 서울에도 권할까) 1권을 드립니다 (한도 내 발행 999원)

• 1년 값 2,500원 / 1년 정기구독료 30,000원 - 25,000원 (5,000원 할인) • 정기구독 문의 및 신청 T. 02-763-8961 family@isamtoh.com

“우리 국민계정통계 세계 최고 수준”

국민자산통계 선보인 정영택 한은 경제통계국장 지난 2010년 새 국제기준 ‘2008 SNA’ 적용 결정 직원 150여명 ‘자료 찾아 삼만리’... 세계 4번째 성과

“이번에 국민계정 국제기준을 이행하고 국민대차대조표를 발표함에 따라 우리나라는 명실상부한 국민계정통계 선도국가 됐다.”
정영택 한은은행 경제통계국장은 26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나라 국민계정통계 수준을 이같이 평했다.
국민소득통계, 산업연관표, 자금순환표, 국제수지표, 국민대차대조표 등으로 구성된 국민계정은 일정 기간 국민경제의 모든 구성원이 이룩한 경제활동의 성과와 국민경제 전체의 자산 및 부채 상황을 보여줘 어느 통계보다 중요하다.
이런 가운데 정 국장은 최근 나라의 국부를 나타내는 국민자산통계를 국내에 처음 선보였으며, 유엔 국제통화기금(IMF),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권

고한 새 국제기준인 2008 SNA를 5대 국민계정에 적용한 결과를 지난 3월부터 차례로 모두 공개했다.
정 국장은 “국민대차대조표가 있고 2008 SNA 주요 사항을 이행한 나라는 세계에서 호주(2009년 12월), 캐나다(2012년 10월), 네덜란드(2014년 3월)와 우리나라 정도”라고 전했다.
이렇게 우리나라 국민계정통계의 수준이 세계 정상에 이른 데는 한은서 경제통계 업무만 26년을 한 정 국장의 추진력이 원동력으로 작용했다는 평이다.
정 국장은 “국민계정 기준선을 개편하는 시기에 2008 SNA 적용 작업을 같이 해야 효율적이며 이번엔 하지 않았다면 2019년에 발표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너무 뒤처진다”며 “이번 판단에 따라 지



정영택 한은은행 경제통계국장이 한은은행 소공별관에서 이투데이와 인터뷰를 하고 있다.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난 2010년 2008 SNA를 적용하기로 결정을 내린 후 150여명의 경제통계국 직원들은 8년여간 지난한 ‘자료 찾아 삼만리’ 과정을 거쳤다”고 설명했다.
이번에 새로이 추가된 국민대차대조표는 그가 없었다면 세상에 나올 수 없

었다. 정 국장은 “우리나라에 국민대차대조표가 없어 항상 안타까웠다”며 “작년 7월 국장이 되자마자 한 달 만에 통계청에 국민대차대조표를 만들자고 제안해 결실을 맺었다”고 밝혔다.
그는 통계 업무가 소홀히 취급받는 것을 안타까워했다. 정 국장은 “통계를 사적연산을 통해 만들어진 아라비아 숫자를 나열해 놓은 것이라고 여기는 것이 현실”이라며 “통계는 고도의 판단력과 경험 없으면 만드는 것이 불가능하다”며 아쉬워했다.
1977년 고졸 출신으로 한은에 입행한 그는 이제 세계무대에서 국민계정 분야를 선도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UN국민계정자문위원, OECD 국민계정자문위원회의 집행위원으로 활동하며 국민계정통계 분야에서 글로벌 리더십을 발휘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계정 공표시계열을 기존 1970년에서 6·25 전쟁으로 폐허가 돼 변변한 자료 찾기도 힘든 1953년까지 업데이트 작업을 마무리해 올해 발표할 것이라는 정 국장. 그가 국민계정 분야에 남긴 발자취는 상당하다. 이진영 기자 mini@

‘글로벌 여성 리더십상’ 수상한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 “여권 신장, 권리 아닌 의무”

김성주 성주그룹 회장이 제주국제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28회 전문직여성세계연맹(BPW) 총회(회장 이인실 청운국제특허법인 대표)에서 글로벌 여성 리더십상을 수상했다. 김성주 회장은 고유의 비전을 가지고 여성의 능력을 키우는 데 헌신해왔으며, 전세계 여성들에게 영감을 불어넣는 대표적 여성 비즈니스 리더라고 전문직여성세계연맹은 설명했다.
김 회장은 이날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의 대표적인 여성 최고경영자(CEO)로서의 경험과 견해를 발표했다. 그는 “20여년 전 회사 창립 때 남성 중심적이었던 사회에서 여성 대표로서 일어서기가 쉽지 않았다”면서 “여성 CEO에 대한 반감도 있었지만,



환경에 쉽게 적응하고 포용할 수 있는 여성만의 강점을 적극 활용해 성공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여권 신장은 권리의 문제가 아닌 의무이며 여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한다고 하기보다는 여성 스스로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는지 몸소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전문직여성세계연맹은 전문직에 종사하는 여성들로 구성돼 있으며, 1975년 여성의 해 선포를 시작으로 여성의 삶 변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선애 기자 Lsa@

졸업장 발급 수수료 5달러 때문에...

75년만에 대학 졸업 99세 美 할머니

졸업장 발급 수수료 5달러가 없어 대학을 졸업하지 못한 99세 미국 할머니가 75년 만에 졸업장을 받아 화제다.
메인주(州) 소재 빌 칼리지에서 속기와 부기를 전공한 제시 화이트는 1939년에 졸업할 예정이었으나 졸업장 발급에 필요한 수수료를 내지 못해 결국 졸업하지 못했다. 삼촌이 대학 학비로만 인출이 가능하도록 조건을 달아 은행계좌로 보내준 500달러로 학교를 마칠 수 있었지만 정작 졸업장을 앞두고 수수료를 낼 형편이 안됐던 것이다.
화이트는 생후 18개월 때 앓았던 소아마비 감염으로 신체 장애를 얻었지만 대학 전공을 살려 회계사무원 등으로 평생을 쉬지 않고 일해왔다. 그러다 한 친구가 화이트의 ‘안타까운 사연’을 대학 측에 알렸다. 이를 들은 학교는 화이트가 대학을



미국에서 5달러가 없어 75년만에 졸업장을 받은 제시 화이트(99). 출처 ABC News 캡처

떠나 지 75년 만인 올해 졸업식 때 특별행사를 열어 졸업장을 수여했다.
화이트는 “너무 놀랍고 즐겁다”며 “대학 졸업장을 받지 못한 채 생을 마감하는 줄 알았다”고 말했다. 또 그는 “절대 공부하는 것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며 “공부를 포기하는 순간 늙게 된다”고 강조했다.
정혜인 기자 haein2558@

가수 윤형주·이장희, 연세대서 ‘명예졸업장’

가수 윤형주(67), 이장희(67)씨가 연세대학교로부터 명예졸업장을 받는다.
연세대학교는 오는 31일 서울 서대문구 교내 노전강당에서 이 학교 출신 가수 윤형주(67), 이장희(67)씨에게 명예졸업장을 수여한다고 27일 밝혔다.
연세대에 따르면 지난 1966년 의예과와 생물학과에 각각 입학한 이들은 2년 뒤인 1968년 학업을 중단했다. 그러나 두 사람

은 이후 지난 1970년대 포크 음악을 통해 국내 대중음악계를 주름잡았다.
연세대 측은 “문화예술 활동으로 국민에게 커다란 정서적 위안을 준 공로로 입학 48년 만에 명예졸업장을 받게 됐다”고 전했다. 명예졸업장 수여식은 이날 오후 6시 이들의 출연이 예정된 대규모 야외 콘서트 ‘오월의 별 해는 밤’의 사전 행사로 열린다. 김민수 기자 tearand76@



저소득층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 나선 KB금융

KB금융그룹은 내달 20일까지 전국에 있는 저소득 가정을 직접 찾아가 주거환경 개선 봉사활동에 나선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봉사활동에서는 KB국민은행, KB국민카드를 비롯한 계열사 직원 40여명이 참여해 거동이 힘든 노인의 주거 편의를 돕기 위한 경사로·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제거, 도배 등의 시설팀을 활동에 펼친다.
대상자는 협력단체인 ‘함께하는 사랑방’을 통해 선정된 전국 200여 가구 중 전국 5개 권역별 각 한 가구씩(총 5개 지역)이다.
KB금융그룹 관계자는 “5월을 KB 사회공헌의 달로 정하고 총 50여 프로그램을 통해 2만명 이상의 임직원들이 1인 1봉사활동을 실천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신태현 기자 hotjak@

“투병 중인 아이들에 용기 주고 싶어”

기아자동차, 혈액암 환자 100명 초청 ‘또봇’ 완구 증정행사

기아자동차는 26일 경기도 고양시 국립암센터에서 혈액암 환자 및 환자 자녀 100명을 초청, K3-레이-쏘렌토 등 기아차 주요 모델을 활용해 제작한 인기 캐릭터 ‘또봇’ 완구를 증정하는 행사를 진행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행사에는 ‘또봇’ 애니메이션 상영, ‘또봇’과 기아차 캐릭터 ‘엔지’ 인형을 활용한 풀라로이드 포토타임, 부모님이 직접 준비한 레크리에이션, 오페라 공연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기아차가 한국혈액암협회와 국립암센터, 영실암과 함께 기획한 이번 행사는 기아차가 지속적으로 펼치고 있는 어린이들에 대한 사회공헌 활동의 일환이다. 기아차는 지난 5월에도 기아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기아 타이거즈와 넥센 히어로즈의 프로야구 경기에 혈액암 환아들을 초대해 시구, 시타 이벤트 등의 행사를 진행한 바 있다. 기아차는 전국 대학병원 8곳에서 병



기아차의 ‘또봇’ 완구 증정 행사에 참석한 관계자와 아이들이 함께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제공 기아차
만와 싸우는 어린이들에게 ‘또봇’을 전달하는 등 지속적으로 아이들에 대한 관심을 이어갈 예정이다.
기아차 관계자는 “기아차는 캐릭터를 활용한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해왔다”며 “혈액암으로 힘겨게 투병 중인 환아들이 TV에서만 보던 ‘또봇’을 실제로 만나 조금이나마 희망과 용기를 가졌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권태성 기자 tskwon@

‘5월의 자랑스러운 중기인’ 홍성한 비씨월드제약 대표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는 2014년 5월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으로 홍성한(사진) 비씨월드제약 대표이사를 선정했다고 27일 밝혔다. 홍 대표는 2006년 대표이사 취임 후 ‘원천기술을 갖춘 존경받는 글로벌 제약기업’이라는 목표 아래 R&D 투자와 약물전달기술 개발을 통해 자체 기반기술을 확보했다. 지난해 매출액은 304억원으로 성장시켰다.
지난해 3월 독일 AET사와 공동개발 및 라이선싱 아웃 계약을 체결했으며, 보유한 기반기술을 통해 신진 의약품 시장에 진출할 계획이다. 글로벌 시장 진출을 위한 생산 기지로 EU-GMP/CGMP 공장을 올 하반기에 완공할 예정이며 미국·유럽·일본 등 선진 시장에 완제 의약품 수출을 추진하고 있다.
홍성한 대표는 “특허와 기반기술 보유를 통한 R&D 중심 경영과 내부혁신을 통해 글로벌 제약회사로 도약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tiatio@



LIG손보 “미혼모 가정에 보탬”... ‘베이비 케어 키트’ 지원

LIG손해보험이 미혼모 가정에 ‘베이비 케어 키트’를 지원한다.
LIG손보는 26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위치한 홀트아동복지회에서 김병현 사장, 이호영 경영관리총괄 전무, 홀트아동복지회 김대열 회장, 김성은 홍보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365 베이비 케어 키트’협약식 및 기부금 전달식을 가졌다.
365 베이비 케어 키트란 기저귀, 분유, 물티슈 등 미혼모들이 출산 이후 영유아 양육에 필요한 보육 필수품 한 달 분량을 담

은 패키지로 LIG손보는 이날 홀트아동복지회와의 협약식 및 기부금 전달을 통해 경제 형편이 어려운 250여 미혼모 가정에 육아 물품을 지원한다.
김병현 사장은 “365 베이비 케어 키트 프로그램을 통해 도움이 손길이 필요한 미혼모 가정에 작은 보탬이 되길 바란다”며 “올해도 우리 사회의 소외계층들을 위한 지속적인 나눔경영을 실천해 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강구귀 기자 kkk@



왼쪽부터 LIG손해보험 대표이사 김병현 사장, 홀트아동복지회 홍보대사 김성은씨, 홀트아동복지회 김대열 회장. 사진제공 LIG손해보험

‘공산주의 마지막 수호자’ 폴란드 야루젤스키 前 대통령 사망

1981년 계엄령 선포... 공산권 첫 자유노조 탄압도

폴란드 공산주의자의 마지막 수호자였던 보이치에흐 야루젤스키 전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 사망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보도했다. 향년 90세.
야루젤스키는 공산당 제1서기이자 총리로 있던 1981년 계엄령을 선포했으며 공산권 첫 자유노동조합인 폴란드 연대노조(Solidarity)를 탄압한 전적이 있다.

1983년까지 이어진 계엄령 기간 레흐 바웬사 전 대통령과 레흐 카진스키 전 대통령 등 연대노조 지도자들이 법원 영장 없이 불법 구속되는 등 탄압을 받았으며 약 100명이 사망했다.
야루젤스키는 공산주의가 몰락하던 1989년 7월 간접선거를 통해 대통령에 선출됐다. 그는 민주화에 대한 요구가 거세



이자 1990년 9월 대통령직을 내놓았으며 같은 해 12월 처음 치러진 민선 대통령선거에서 바웬사가 압도적인 표를 얻으며 당선됐다.
이후 야루젤스키는 은문에 가까운 생활을 했다. 계엄령 선포로 재판에 기소되기도 했으나 유죄 판결을 받지 않았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인사

- ◆산업통상자원부 <과장급 전보> △투자정책과장 김용재 △유류물류과장 신성필 △입지총괄과장 박영삼 △정보관리담당관 김미애
- ◆한국예탁결제원 <부장승진> △홍보부장 구현재 △IT서비스부장 김인주 △팀장승진 △IT보안팀장 이상섭 △전보 △리스크관리부 수석조사업 박용우 △글로벌기획팀장 김용신 △증권대행부 선임조사역 진교호 △경영지원시스템팀장 이정우 △결제서비스팀장 정의수 △자산투자서비스팀장 최은윤 △커뮤니케이션팀장 조성일 △고객행복센터팀장 박인선 △LIG사업추진반 선임조사역

- (겸임) 김경민 △해외협력팀장 김홍진 △증권과인선상부(홍콩사무소) 선임조사역 권의진 △증권대행부 명세서팀장 박기환
- ◆(주)HMG퍼블리싱 <골프매거진 본부 본부장(국장) 채수중 △광고마케팅(부국장대우) 이문우 △편집장(부장대우) 정동철 > △포춘코리아 본부 본부장 겸 편집장(부국장대우) 정재웅 △광고마케팅 부장 김영호 △사업지원(부국장대우) 김종렬 △경영관리팀장(국장) 최성범 △판매사업팀장(부장대우) 안종철
- ◆코리아타임스 △부사장 겸 편집인 이장섭
- ◆OBS-W △대표이사 정성관 △총괄국장 조준식

부음

- ▲신태주(웹디자인진흥원 부사장) 씨 모친상 = 26일 오후 3시, 서울아산병원 장례식장 7호실, 발인 28일 오전 6시, 02-3010-2000
- ▲석도형(삼우맥스 회장)·준형(전 삼성전자 부사장)·도정(전 코오롱케피칼 대표)·도태(삼우맥스 대표)·정미씨 부친상, 석현우(신한은행 차장)·현수(전남대 로스쿨 교수)·현철(일본문화재단 근무)씨 조부상, 박성문(전 한나라당 국회의원)씨 장인상 = 26일 오전 3시, 삼성의료원 장례식장 15호, 발인 28일 오전 8시 30분, 02-3410-6915
- ▲이덕규(씨네패스 영업팀장)·준규(사업)씨 부친상, 이상재(한국남동발전여수화력발전처 건설실계정팀장)·정진영(사업)·이강은(세계일보 사회부 차장)씨 장인상, 김수정(충북지방경찰청 117센터 담당사)씨 시부상 = 26일 오후 7시, 한양대병원 장례식장 7호, 발인 28일 오전 7시 30분, 02-2290-9457
- ▲여진규(인천시 부평구 비전기획단장)씨 별세 = 26일 오전, 서울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11호실, 발인 28일 오전, 02-2227-7547



23일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에서 열린 'SBS '별에서 온 그대' 열풍으로 본 중국사회의 이해' 콘퍼런스 모습.

“외계인과 톱스타의 사랑 中 여성시청자 환상 충족”

‘별그대 열풍으로 본 중국사회의 이해’ 콘퍼런스

‘별에서 온 그대’가 불러일으킨 중국 열풍에 대해 한·중 전문가들의 심도 있는 분석의 장이 마련됐다. 서울대학교 아시아연구소는 23일 서울대 국제회의실에서 ‘SBS ‘별에서 온 그대(이하 별그대)’ 열풍으로 본 중국사회의 이해’ 주제의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중국발표자로 리성리 중국 전매대학 연극영상학부 교수, 사오제 베이징방송국 드라마센터 마케팅 부 부장, 정태상 CJ E&M 차이나 드라마부문 책임프로듀서, 한국발표자로 SBS ‘별에서 온 그대’의 장태유 PD, 박지은 작가, 배극남 대중문화평론가가 참석해 ‘별그대’ 중국 열풍에 대한 다양한 시각을 개진했다.

먼저 서울대학교 사회대학 강명구 교수는 “대중문화는 국가 상호 문제의 전면에 서 있다. 그 단계로 ‘별그대’가 중국사회의 새로운 양상을 보여줬다고 생각한다. 한류 중심의 시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수용자인 중국 시청자에 대해 더욱 높은 이해를 모색하고자 한다”고 행사 취지에 대해 입을 열었다.



사오제 부장은 “극본 자체의 힘을 꼽았다. 그는 “한국 드라마의 3대 요소는 암, 교통사고, 불치병이다. ‘별그대’는 내용 면에서 큰 차이를 보였다. 한국 사람처럼 전통을 소중히 여기는 주인공 외계인(김수현)이 지구인(전지현)과 이루기 어려운 사랑을 하는 가운데, 이를 유쾌한 스타일로 그려내 눈길을 끌었다”고 말했다.

이에 박지은 작가는 “외계인과 톱스타의 사랑에 대해 시청자가 몰입할 수 있을지 고민했다. 그러나 두 인물은 모두 깊은 외로움이 내재돼, 시청자로부터 공감을 자아낼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사오제 부장은 연출 스타일과 출연배우와 관련해 “마지막 3-4분가량의 에필로그가 신선한 느낌을 전달했다. 또 전지현이 슈퍼스타로 등장했고, 김수현은 뛰어난 연기력과 그의 극중 역할로 여성 시청자의 환상을 만족시켰다”고 밝혔다.

아울러 배극남 평론가는 수용 플랫폼의 변화를 한 원인으로 들며 “‘별그대’는 국내에서 10-20대 시청층을 사로잡았다. 마찬가지로 중국에서는 젊은 시청자들이 스마트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드라마를 시청함으로써

더욱 높은 집중력을 발휘했고, 작품에 대한 관심을 배가시켰다. 수용자들이 프로슈머(prosumer)로서 드라마 내용과 관련된 것에 열린 반응을 보이거나 직접 패러디해 화제를 확산시키며 ‘별그대’ 신드롬을 확대 재생산했다”며 드라마의 유통채널과 수용자의 성격 변화가 ‘별그대’ 신드롬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진단했다.

한편 장태유 PD는 ‘별그대’의 실제 작업과정을 묻는 리성리 교수의 질문에 “지난해 11월 18일 18일 방송을 했다. 대략 2개월 전부터 촬영을 시작했고, 방송 나갈 때는 5-6회를 찍고 있었다. 방송이 시작된 후 뒤로 갈수록 시간이 없어지다 보니 A타입과 B타입으로 나눠 찍었다. 이 같은 이유로 한국 미니시리즈에는 공동 연출자가 생긴다”고 답했다. 국내 드라마 제작 환경에 대해 외국에서는 제작의 탄력성 측면으로 긍정적으로 본다는 견해도 제기됐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배극남의 X파일 연기자 한석규 이름 알린 ‘아들과 딸’

한두번 쓰러다... 시청자 반응에 ‘불박이’

성우 출신 대사전달력 ‘단역서 조연’ 이후 ‘서울의 달’ ‘접속’ 등 잇단 히트



스타나 연예인들의 운명은 극적인 데가 있다. 스타 한석규도 마찬가지다. 만약 한석규가 1992년 드라마 ‘아들과 딸’을 만나지 못했다면 오늘의 한석규가 있었을까. ‘아들과 딸’이라는 드라마를 하지 못했다면 한석규는 스타가 되지 못했을 것이라고 지적하는 방송가 사람들이 적지 않다. 그만큼 오늘의 한석규가 있기까지 드라마 ‘아들과 딸’의 영향은 컸다.

1990년 KBS 성우로 출발한 뒤 1991년 MBC 텔런트로 연기를 시작한 한석규는 신인으로 당시 톱스타인 김희애, 최수종, 채시라가 주연한 MBC 주말극 ‘아들과 딸’에 출연해 연기자 한석규 이름 석 자를 알리고 눈길을 끌며 이후 연기자로서 탄탄대로를 걸었다.

그렇다면 ‘아들과 딸’에 한석규는 어떻게 캐스팅됐으며 왜 최수종 친구라는 단역으로 잠시 나올 계획이 변경돼 김희애의 남편으로 드라마가 방영되는 내내 출연하며 시청자들에게 높은 사랑을 받았을까.

‘아들과 딸’의 연출자는 사람 냄새 나는 드라마를

탁월하게 연출하는 장수봉 PD였다. 장수봉 PD는 연기를 못하는 연기자의 면전에 직설을 퍼붓기로 유명하다. 장수봉 PD는 “신인 텔런트 중 한석규가 인사가성이 밝았다. 스태프들에게도 열심히 인사하는 데다 선하게 생겨 단역으로 캐스팅됐다”고 캐스팅 이유를 말했다.

장수봉 PD는 “최수종 친구로 한두 번 출연시키려고 했는데 시청자의 반응이 좋은 데다 무엇보다 한석규가 성우 출신이라 발성이 좋아 대사전달력이 뛰어났다. 점차 비중을 높이고 김희애의 남편 역으로까지 캐릭터가 커졌다”고 말했다. 박진숙 작가 역시 “한석규씨 인상이 착해 보여 시청자의 반응이 좋았다. 단역으로 기용하기에는 아깝다는 생각을 했는데 시청자도 비슷한 반응이었다”고 밝혔다.

한석규는 우연히 찾아온 기회를 정말 잘 살려 연기자로서 도약대를 마련했고 ‘아들과 딸’ 이후 ‘서울의 달’부터 영화 ‘접속’ ‘쉬리’ ‘8월의 크리스마스’ 등을 거치며 최고의 스타로 부상했다. 배극남 기자 knbae@

인터뷰 JTBC 드라마 ‘밀회’ 마친 김혜은

“화려하지만 아픈 있는 삶... 애정 느꼈죠”

외로움 가진 재벌가 외동딸 역
“캐릭터 찾으며 자신의 삶 반추
온몸 내던지는 연기인생 견고파”



“‘밀회’ 속 오혜원의 삶이 곧 내 삶이었다.” 화제를 불러일으키며 증명한 JTBC 드라마 ‘밀회’에서 오혜원(김희애)과 갈등의 대척점에 섰던 서한그룹 회장(김용건)의 딸 서영우를 연기한 김혜은의 전언이다. ‘밀회’가 종영하자 수많은 시청자들은 혜원의 삶과 선택에 공감하고 함께 눈물을 흘렸다. 호화로운 삶을 영위하지만, 진짜 내것은 아니었다. 자존심을 팔아야만 얻을 수 있는 대가였다. 시청자, 우리 모두가 오혜원과 닮지 않았음을 겸허히 느낀 것은 ‘밀회’가 남긴 메시지다. 타인이 가졌던 가치기준에 의해 자신의 삶을 내걸어온 것은 실상 우리 모두였다.

여기서 비껴나갈 수 있는 존재는 몇이나 될까. 21일 만난 배우 김혜은은 ‘밀회’를 통해 느낀 깊은 자기 본질에 대한 성찰로부터 이야기를 꺼내놓았다. “한성숙(심혜진), 우리 아버지 서 회장, 모든 인물 중 깨끗한 인간은 누가 있을까요. 욕망에 가득찬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선재

(유아인)라는 손수를 만났을 때, 그 가치기준이 뒤집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죠. 과연 절대적 가치가 있었다. 그 손수 앞에 내가 부끄럽다는 걸 느끼게 된 겁니다.”

극중 서영우는 부와 권력으로 동기동창인 혜원을 고용하고 그 위에 군림하지만,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한 성장배경으로 인해 늘 외로움을 느끼며 폐약질을 일삼는다. “재벌가 외동딸이지만, 한 꺼풀만 벗겨보면 삼류 인생이죠. 돈 주고 사랑을 사면서도 사랑을 구걸하고요. 그 역할을 어떻게 신랄하게 표현할까 공부했는데, 약하지만 아픔을 간직한 그녀에게 집중하는 과정이 실제 제 자신을 겸허하게 만듭니다. 영화 ‘범죄와의 전쟁’ 속 여사장의 역할도 그랬고요. 반전처럼 화려하지만 아픔이 있는 삶에 더욱 애정이 갑니다.”

배우로서 다양한 캐릭터를 만나는 그녀는 늘 그 여정 속에서 자신의 실제 삶을 반추한다고 털어놴다. 캐릭터 연구가 곧 인생 공부라는 김혜은은 실제로 명문대학교 성악과 출신, MBC 기상캐스터라는 타이틀을 벗어던졌다. 그리고 시청자와 만나는 작업이 그 무엇보다도 진솔한 소통이라고 여긴다는 김혜은의 고백은 늘 지금처럼 온 몸을 내던지는 연기 인생의 길을 걷겠노라 말해 주었다.

JTBC 드라마 ‘밀회’에서 서한예술재단 서영우 대표 역을 맡은 김혜은. 사진제공 원앤원스타즈

이꽃들 기자 flowerslee@



20년 앞선 세계 최고 고반발 장타설계 기술력 - **뱅**

Class 가 다른 상위 0.1%를 위한 브랜드 **BIG BANG**
GOLF JAPAN

골프가 쉽고 편해진다

40yd 더 나가는 아이언

긴 거리를 더 짧은 클럽으로 쉽고 정확하게 칠 수 있다.

계속되는 진화, 또 하나의 기적

BANG Longdistance

반발계수 0.925 **극초고반발 Hybrid IRON**

세계최초



10번 아이언

6번 아이언 거리를 이제 10번으로 친다.

일반적인 아이언 보다

- 극초고반발 + 큰 헤드 체적으로 비거리가 40yd 더 나간다.
- M.O.I가 높고 Sweet Spot이 넓어서 방향성이 더 향상되었다.
- 총 중량과 헤드밸런스가 더 가벼워져서 스윙이 편하다.
- F1 포물러 타이어 접지 원리와 같이 백스핀량이 증가한다.
- 헤드의 와이드 솔 디자인으로 인하여 뒤땅이 없다.



반발계수 0.925 >> 0.930 >> 0.962의 연속적인 세계최고 극초고반발 기술개발 성공으로 비거리가 30~40yd 증가

뱅 Longdistance (470 Driver · Fairway WOOD · Hybrid WOOD · Hybrid IRON)

뱅 Longdistance의 경쾌한 타구음과 손맛을 경험하면 다른 골프채는 둔탁한 느낌때문에 사용할 수 없다.

골프 해설가 75%, KLPGA 시니어투어 62%, 남자 미드 아마추어 상위랭커 다수, 여자 시니어 아마추어 최강자 93% 뱅 Longdistance 골프 클럽 사용

대표전화 : 1544-8070

신세계 백화점 본점 (02-310-1538)
의정부 (031-8082-0712)

강남점 (02-3479-1532)
부산점 (051-745-1823)

* 가격 영원 불변 정책

영등포점 (02-2639-1536)
총청점 (041-640-5753)

경기점 (031-695-1845)
마산점 (055-240-1406)

인천점 (032-430-1563)
광주점 (062-360-1402)

반포골프백화점 (02-534-0220)

Made in Japan or Bang Golf Korea Fitting

(주)뱅골프코리아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537-3 (야탑로 26) 한국골프회관1층 · TEL : 031) 781-2041 · FAX : 031) 781-2031 www.banggolf.co.kr

주의 - **BIG BANG** 뱅골프 로고가 틀리거나 샤프트에 뱅골프코리아의 홀로그램이 없는것은 모조품입니다.

Inside ▶▶▶



해외증권 투자 상품 ■ 22면



100대 그룹 지배구조 / 한일시멘트 ■ 24면

Cover 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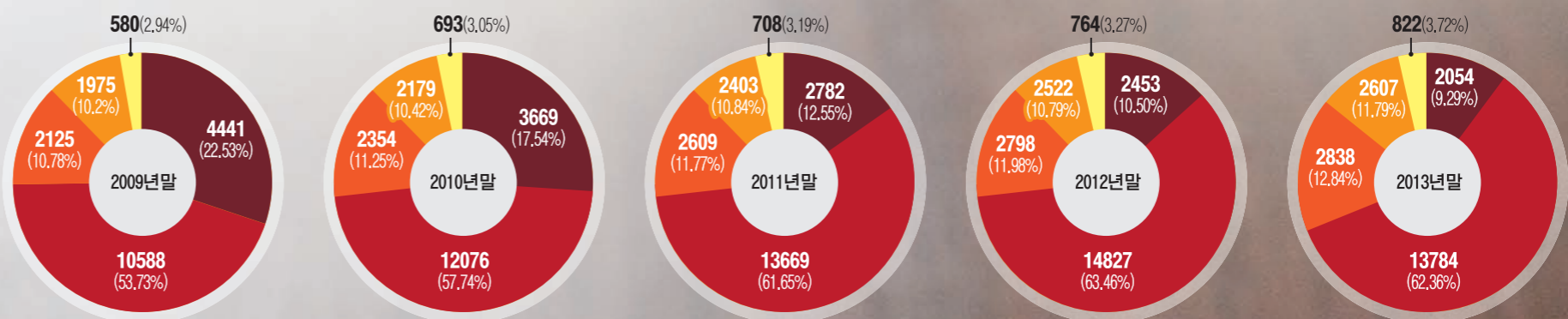
재무제표로 본 기업 성적

제조업체 A사. 매년 일정한 순이익으로 알짜라는 소리를 들었지만 지난 2011년부터 대규모 적자로 돌아선 뒤 2년 만에 쌓아둔 잉여금을 모두 까먹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자산총액도 100억원 미만으로 급격히 줄어들면서 '외감기업'이라는 꼬리표를 떼어야 했다.



자산규모별 국내 외감 이상 기업 분포

단위: 개 *출처: NICE신용정보



불황의 그늘... 외감법인 '부익부 빈익빈'

지난해 외감 이상 기업 2만2106곳
전년보다 1200개 ↓... 증가세 꺾여
실적악화·역성장 중소기업에 집중

자산 500억 이상 기업은 4794곳
기업합병 등 힘입어 100여개 증가
순익 100억 이상 상장사 비중도 늘어

국내 외부감사 대상 기업이 줄어들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자산 비중이 500억원 이상인 기업들의 비중은 늘어났다. 이는 불황기에 중소기업들이 도태되면서 국내 외부감사 기업들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는 것을 방증하는 대목이다. 불황기에 역성장을 하거나 다른 기업에 합병된 기업이 늘어나면서 총 외부법인 기업수가 줄어들어 성장세를 유지한 덩치 큰 기업들의 비중이 늘어나는 풍선효과인 셈이다.

금융감독원과 NICE신용평가에 따르면 2013 사업연도 말 기준으로 국내 상장사와 외부감사 대상 비상장사 등 외감 이상 기업수는 2만2106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2만3365개보다 1200개 이상 줄어든 수치다. 국내 외감이상 기업수가 2009년 1만9710개에서 2010년 2만918개, 2011년 2만2173개로 매년 꾸준한 증가세를 보인 것과 비교하면 지난해부터 상당수의 중소기업들의 역성장세가 나타나기 시작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자산규모와 순이익별 기업들의 비중에도 큰 변화가 나타나기 시작했다. 결산연도 기준으로 외감 대상 비상장사 중 자산규모가 100억원 미만의 기업수는 2013 회계연도 기준 2038개로 2437개보다 400개가량 줄어들었다. 100억~500억원 기업은 1만 3518개로 전년도 1만4525개보다 1000개가량 감소했다. 자산규모 500억원이상 기업은 4794개로 전년도 4698개보다 100개가량 늘었다. 이는 지난 2012년 기준으로 최근 3년간 당기순손실을 기록하면서 자산규모가 외부감사 대상 기준인 100억원 미만으로 떨어진 중소기업들이 늘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지난 2009년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외감이상 기업은 4846개였다. 이듬해 5064개로 늘어났으며 2011년에는 6146개, 2012년 6817개 등으로 최근 3년간 순손실에 따른 결산금이 자산총액을 까먹은 외감기업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내 외감이상 비상장사가 올해부터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한 것이다. 적자를 보는 상장사들의 비중도 지난 2011년부터 늘기 시작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런 현상은 증권시장 상장사들의 판도 변화에서

도 읽을 수 있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는 적자를 본 상장사의 비중은 2009년 말 16.0%에서 2010년 말 12.3%로 크게 줄어들었다. 하지만 2011년 말 19.8%, 2012년 말 21.9%, 2013년 말 23.6%로 급격히 늘었다. 코스닥에서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2009년 말 23.0%에서 2010년 말 20.9%로 줄어드는 듯 보였지만 2011년 말 22.9%, 2012년 말 25.9%, 2013년 말 29.3%로 증가했다. 반면 순이익 100억원 이상인 상장사들의 비중은 매년 소폭 증가하고 있다. 이는 국내 경제에서 불황기에 따른 기업들의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다는 분석을 뒷받침하는 부분이다. 한편 지난해 국내기업 10곳 중 4곳 이상이 매출 부문에서 역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유섭 기자 hyson0214@

코스피 19%·코스닥 24% 기업 '헛일'...건설사 직격탄

2013년 유가증권시장 영업이익 하위 20사				2013년 코스닥시장 영업이익 하위 20사			
종목명	(영업이익)2012년	(영업이익)2013년	증감률	종목명	(영업이익)2012년	(영업이익)2013년	증감률
GS건설	133,216	-1,031,396	적자전환	KCC건설	9,878	-55,741	적자전환
현대상선	-519,778	-351,392	적자지속	SK컴즈	-46,836	-44,815	적자지속
팬오션	-193,525	-330,396	적자지속	이엘케이	4,170	-30,740	적자전환
한진해운	-143,585	-307,564	적자지속	신양	530	-29,069	적자전환
경남기업	44,003	-287,819	적자전환	이테크건설	15,885	-28,712	적자전환
한라	-219,801	-282,604	적자지속	심텍	46,285	-27,679	적자전환
삼성엔지니어링	714,272	-277,673	적자전환	디아이다	17,141	-25,622	적자전환
대우건설	365,216	-253,099	적자전환	크루셀텍	-12,069	-22,889	적자지속
LG전자	46,199	-213,877	적자전환	사파이어테크놀로지	-22,950	-22,861	적자지속
현대미포조선	111,074	-205,826	적자전환	웅천BM	3,441	-21,460	적자전환
현대산업개발	66,075	-203,850	적자전환	SKC 솔믹스	-27,337	-19,038	적자지속
대성산업	-28,876	-199,853	적자지속	파인테크닉스	3,719	-16,896	적자전환
대한전선	5,072	-196,511	적자전환	티에스엠텍	20,532	-16,637	적자전환
OCI	-13,727	-185,660	적자지속	현대정보기술	-5,025	-15,127	적자지속
동부건설	54,195	-135,943	적자전환	코데즈컴바인	-7,177	-14,789	적자지속
삼성SDI	58,155	-127,625	적자전환	손오공	-4,894	-14,251	적자지속
카프로	-24,024	-112,743	적자지속	엔게임	3,397	-13,979	적자전환
한진중공업	28,591	-109,107	적자전환	코아로직	-1,139	-12,317	적자지속
세아홀딩스	17,898	-107,036	적자전환	넥스트칩	270	-11,937	적자전환
동양	62,004	-65,882	적자전환	우리로광통신	2,265	-11,702	적자전환

침체된 경기... 적자 나는 상장사 늘어

침체된 경기가 좀처럼 살아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적자를 보는 상장사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이투데이가 2009년부터 지난해까지 코스피, 코스닥시장 상장사와 외부감사기업(외감기업)을 전수 조사한 결과 코스피 상장사 중 영업손실(별도기준)로 적자를 기록한 기업의 비중은 2009년 12.9%에서 이듬해 10.6%로 줄었다가 2011년 15.3% 급격히 늘어난 이후 2012년 17.3%, 2013년 19.38%로 매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코스닥시장 역시 2009년 19.75%였던 적자기업 비중은 2010년 14.87%로 5%p가량 줄어들며 감소하는 기미를 보였지만 이듬해 이전 수준으로 다시 올라선 이후 지난해 24.5%까지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GS건설, 1조313억으로 '적자 1위' 조선포현대상선·팬오션 3000억 넘어 대우증권 영업손익·당기손익 적자전환 SK컴즈는 10분기 연속 영업손실

◇코스피, 영업손실 기업 146개... 전체 19.38% = 유가증권시장에서 지난해 영업 손실을 기록한 기업은 전체의 19.38%에 달하는 146개였다.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 중 영업 손실 상위 목록에는 건설 불경기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건설사들이 다수 이름을 올렸다. GS건설은 영업손실 1조313억원으로 적자 1위라는 불명예를 차지했으며 증권 건설업체인 경남기업, 한라 역시 2800억원대의 영업손실로 나란히 5, 6위에 이름을 올렸다. 시공능력 21위의 경남기업은 베트남 최고층 건물인 랜드마크72 사업을 추진하던 중 자금난에 빠지면서 지난해 10월 워크아웃(기업 개선작업)을 신청했다. 삼성엔지니어링이 2776억원 적자로 7위를 차지했고 대우건설이 2530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이 외에도 현대산업개발(-2038억원), 동부건설(-1359억원) 등이 코스피 적자기업 상위 20개사에 포함됐다.

불황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조선포현업종의 상장사들도 적자 행렬을 이어갔다. 현대상선이 영업손실 3513억원으로 상위 2위에 이름을 올렸고, 3303억원의 영업손실을 낸 팬오션이 그 뒤를 이었다.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한진해운은 3075억원의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증시침체에 증권사들 역시 실적이 바닥을 드러냈다. 5대 증권사 가운데 하나인 현대증권은 지난해 영업적자 560억원을 기록했고, 당기손실 역시 438억원을 나타내 2년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KDB대우증권도 연간 영업손실 350억원, 순손실 337억원을 나타냈

다. KDB대우증권은 영업손익과 당기손익이 전년 대비 모두 적자로 전환했다. 이 외에도 HMC투자증권, 한화증권, 동양증권, SK증권, 대신증권, 동부증권 등이 영업적자를 기록했다.

제조업 중에서는 삼성SDI, 한진중공업, 삼성정밀코어, 두산인프라코어, LG전자 등이 영업 손실을 기록해 전년 대비 적자로 돌아섰다. 삼성SDI는 1276억원 영업손실, 633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다. 한진중공업 역시 1091억원의 영업손실을 나타냈다.

◇코스닥, 적자기업 24.5% = 지난해 코스닥에 상장된 기업 중 개별·별도보고서 제출 대상 971개 기업 중 238개 기업이 적자를 나타내 영업 적자를 본 기업 비중은 전체의 24.5%에 육박했다.

코스닥 상장사 전체적으로도 적자 폭은 심화됐다. 상장 기업들의 총영업이익은 2012년 6조1173억원에서 5조6756억원으로 7.22% 감소했고, 순이익 역시 3조8086억원에서 3조1421억원으로 17.50% 크게 줄었다.

구체적으로는 KCC건설이 557억원의 영업 손실로 적자전환해 영업 손실 상위 1위를 차지했다. 2위인 SK컴즈는 448억원으로 영업적자를 기록한 데 이어 올 1분기에도 56억원의 영업적자를 내 10분기 연속 적자를 이어갔다. 이엘케이는 307억원으로 적자 폭이 확대되며 3위에 이름을 올렸다. 신양은 290억원으로 4위, 이테크건설은 287억원으로 5위에 이름을 올렸다.

코스닥 영업손실 상위 20개 기업 중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기업은 8개로 SK컴즈, 크루셀텍, 사파이어테크놀로지, SKC솔믹스, 현대정보기술, 코데즈컴바인, 손오공, 코아로직 등이 있다.

한편 적자기업 비중이 증가 추세에 보이고 있는 상장사와는 다르게 외감기업들의 적자 비중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유지됐다. 2009년 24.62%를 기록한 적자 비중은 2012년 28.43%로 소폭 증가했지만 2013년에는 26.85%로 소폭 낮아졌다. 2만350개 조사 대상 기업 중 5464개(26.85%)가 영업적자를 나타냈다.

김희진 기자 heejin@

실적 악화에도 빚 관리 '철저'

지난 5년간 국내 기업 부채비율 (외감기업, 코스닥, 코스피 상장사, 관리기업 제외)

부채비율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0%이하	0	0	0	1	0
0~50%	5654	6201	6728	7528	7212
50~100%	2926	3105	3102	3151	3111
100~200%	3913	4040	4122	4144	3990
200~300%	2416	2405	2504	2399	2294
300~500%	2018	2118	2238	2307	2175
500~700%	724	787	888	955	870
700~1000%	682	726	778	840	735
1000%이상	1367	1536	1803	2040	1719
계	19710	20918	22173	23365	22106

"부채비율 200%를 넘기지 마라"

코스닥 10곳 중 9곳 '마지노선' 지켜... 네오위즈 0.15%로 최저

삼부토건 6501%로 부채율 1위 불명예

지난 5년간 우리나라 기업들이 실적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부채비율에 신경 쓰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2009년 국내 외감 비상장사,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등 외부감사 대상 기업 1만9710개 중 63.38%(1만2493개사)가 부채비율 200%를 넘지 않았으며, 지난해에는 64.75%(2만2106개사 중 1만4313개사)가 이를 유지했다.

부채비율은 자본구조의 건전성 여부를 판단하는 지표로 자본 대비 부채가 어느 정도인지를 나타낸다. 통상 은행의 관례적으로 부채비율 200%를 대출 제한 요소로 고려한다. 일반적으로 100%를 표준비율, 200%까지는 양호한 수준으로 판단한다. 투자자들이 재무 건전성을 판단하는 주요 지표이며 은행이 대출할 때 고려하는 요소이기 때문에 기업 측에서는 신경을 쓸 수밖에 없다. 특히 코스닥 기업들은 실적악화에도 90% 이상의 기업들이 부채비율 200%를 넘지 않았다. 외감기업들도 2009년 이후 근소한 차이만 있을 뿐 대부분 부채비율을 기존 수준으로 유지했다. 코스피 상장사의 경우는 2009년 86.4%에 해당하는 기업이 부채비율 200% 미만을 기록했지만 작년에는 83.96%로 다

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부채비율이 높은 코스닥 기업으로는 삼보산업, 에머슨시픽이 꼽혔다. 삼보산업의 2013년 말 부채총계는 1604억원, 자본총계는 202억원으로 부채비율은 792.60%에 달했다. 부채비율 2위인 에머슨시픽은 지난해 말 기준 부채비율이 782.08%로 부채총계는 2110억원이고 자본총계는 269억원이었다. 반면 네오위즈 홀딩스는 지난해 말 부채비율 0.15%를 기록해 코스닥 상장사 중 부채비율이 가장 낮았다. 휴맥스홀딩스도 0.70%를 기록했으며 솔본(1.04%), 메지온(1.87%), 바이오스페이스(1.90%)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개별실적 기준 부채비율이 가장 높은 코스피 상장기업은 삼부토건이었다. 삼부토건의 부채비율은 6501.09%로 집계돼 전년보다 무려 5643.23%포인트 늘어났다. 삼부토건에 이어 부채비율이 높은 상장사는 넥솔론이었다. 넥솔론은 지난해 자본총계 225억7800만원, 부채총계 8641억5000만원으로, 부채비율이 3827.19%로 나타났다. 2012년보다 2919.47%포인트 증가한 수치다. 부채비율이 가장 낮은 코스피 상장사는 성장기업지주로 나타났다. 성장기업지주의 부채비율은 1.14%로 전년보다 1.57% 줄었다. 이어 부채비율 2.42%인 GIIIR, 고려포리머(5.37%), 삼영전자(5.66%) 등이 뒤를 이었다.

박용남 기자 bangnam@

금융투자협회 심사제 제 14-01297호(2014.03.12 ~ 2014.12.31) www.iprovest.com

모바일 주식거래도 하고, 지원금도 받고~ 마음껏 누리세요!

SMART K

음껏~ 누리자!

이벤트 기간 2014.2.10 ~ 2014.12.31.

누림 하나

1. 매 2주간 10억원 이상 거래금액 상위200명 10만원 지급

2. 월간 누적 거래금액 상위 5명 50만원 상품권 지급

※ 기존이벤트 참가자는 참여 불가
※ 월간 누적 순위는 해당월초부터 말일까지 집계하여 지급
※ SMART K로 매매한 주식 거래금액만 인정
※ 발표는 해당회차 종료 후 SMART K 및 홈페이지 공지 예정

누림 둘

은행연계 개설계좌 거래시 0.014%의 착한 주식거래 수수료

※ 무기한 적용(정책 변경시 홈페이지 공지)

누림 셋

고객님의 부담을 줄여드리는 4.95%의 저렴한 신용융자 이자율

용자사용기간	30일 이내	31 ~ 60일	61 ~ 90일	91 ~ 180일	연체이자율
이자율	4.95%	5.0%	5.5%	9.0%	12%

※ 무기한 적용(정책 변경시 홈페이지 공지)
※ 신용 거래이행시 신용회책 약관 및 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2013 스마트어워드 대상 금융/증권서비스 부문 대상 수상

최고 권위의 우수 모바일 앱을 선정하는 (사)한국인터넷전문가협회 주관 [제3회 스마트어워드] 금융 증권서비스부문을에서 전문가들로부터 최고 앱으로 인정받아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투자유의사항

- 당사는 본 서비스 및 투자상품 등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반드시 충분한 설명을 듣고 투자결정을 내리시기 바랍니다.
- 금융투자상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습니다.
- 원금손실 위험이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발표 이후 연락처(휴대폰)불명 등의 이유로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 당첨 자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당사의 사정으로 이벤트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당부유지비율을 유지하지 못할 경우 회사가 담보증권을 임의 처분할 수 있습니다.

티 매출 6조4000억, 직원 1인당 243억 벌어 '넘버 1'

〈LS그룹 계열사〉

지난해 어느 기업 직원이 가장 많이 벌었나

기업들이 전반적으로 침체 분위기에 빠진 가운데 일당백의 효율을 내는 기업들이 있어 관심이 쏠리고 있다. 종업원 1인당 매출액 10억원이 넘는 기업 수(외국기업, 코스닥, 코스피 상장사 포함, 관리기업 제외)는 2009년 2754개사(13.97%)에서 지난해 4217개사(19.08%)로 꾸준히 증가했다. 종업원 1인당 매출액 5억~10억원을 기록한 기업도 2009년 3174개사에서 꾸준히 늘어 지난해에는 4245개사(19.20%)를 기록했다. 종업원 1인당 순이익이 10억원을 넘는 기업(외국기업, 코스닥, 코스피 상장사)은 2009년 188개(0.95%)에서 2010년 240개(1.15%), 2011년 257개(1.16%), 2012년 345개(1.48%)로 늘었다. 작년에는 338개(1.53%)로 수는 줄었지만 비율은 증가했다.



코스피 1인당 매출액 순위

순위	기업명	산업명	1인당매출액(천원)
1	(주)티	기계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24,356,856
2	코리안리저보험(주)	재보험업	20,857,154
3	SK가스(주)	기계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14,471,619
4	(주)대우인더내셔널	상품 종합 도매업	13,464,199
5	현대글로벌(주)	화물운송 중개, 대리 및 관련서비스업	12,012,595
6	현대종합상사(주)	상품 종합 도매업	11,896,514
7	한국가스공사	가스 제조 및 배관공급업	11,693,478
8	S-OIL(주)	원유 정제처리업	11,334,495
9	(주)지에스글로벌	상품 종합 도매업	9,684,593
10	(주)LG상사	상품 종합 도매업	8,367,158

코스닥 1인당 매출액 순위

순위	기업명	산업명	1인당매출액(천원)
1	(주)에스에이엠티	전자용 기계장비 및 관련 기자재 도매업	10,997,838
2	(주)스틸엔리소시스	금속원료 재생업	7,889,371
3	경남스틸(주)	그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3,727,544
4	(주)동양에스텍	열간 압연 및 압출 제품 제조업	3,716,532
5	(주)이라이콤	그외 기타 전자부품 제조업	3,391,480
6	제이씨케이미칼(주)	그외 기타 분류안원 화학제품 제조업	3,383,463
7	(주)동원개발	아파트 건설업	3,031,078
8	금강철강(주)	그외 기타 1차 철강 제조업	2,970,255
9	(주)티플렉스	절삭가공 및 유사처리업	2,931,781
10	흥구석유(주)	액체연료 및 관련제품 도매업	2,761,712

코리안리저보험, 208억으로 2위... 순이익 1위는 현대하이스코 코스닥에선 에스에이엠티 직원 매출 1위... 피에스텍 순이익 '최고' 1인당 매출 10억 넘는 기업 2009년 2754곳 → 작년 4245개사

지난해 코스피 상장사 중 개별기준(지주사 제외) 종업원 1인당 매출액 1위는 티이 차지했다. LS 그룹의 주요 계열사인 티는 지난해 6조4058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종업원 1인당 243억원을 벌었다. 영업이익은 1116억원, 당기순이익은 589억원을 기록했다. 코리안리저보험이 그 뒤를 이었다. 코리안리저보험은 지난해 5조9442억원의 매출을 올렸으며, 1인당 매출액은 208억원을 기록했다. 3위는 종업원 1인당 매출액 144억원을 기록한 SK 가스가 차지했다. SK가스는 매출 4조1967억원을 기록했다. 대우인더내셔널, 현대글로벌, 현대종합상사, 한국가스공사, S-OIL, 지에스글로벌, LG 상사가 뒤를 이었다. 코스닥 상장사 중 개별기준 종업원 1인당 매출액 1위는 반도체 유통체인 에스에이엠티가 차지했다. 에스에이엠티는 지난해 1조227억원의 매출을 올렸고 1인당 매출액은 109억원을 기록했다. 철스크랩 업체 스틸엔리소시스가 그 뒤를 이었다. 스틸엔리소시스는 지난해 1972억원의 매출을 기록했으며 종업원 한 명이 7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 지난해 13억원의 영업이익을 내며 전년비 흑자 전환했고 당기순손실은 34억원으로 전년 139억원

분할로 중단영업이익이 발생한 네이버가 지난해 상장사 중 가장 높은 1조9606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뒤를 이었다. 네이버는 종업원 1인당 12억원의 순이익을 올렸다. 네이버는 당기순이익에 게임 등 중단사업의 손익이 포함돼 네이버만의 실적을 파악하기 어려운 만큼 올해 1분기부터 당기순이익이 아닌 계속영업순이익의 기준 순이익을 집계한다고 밝혔다. 코스닥 상장사 중 지주사를 제외한 종업원 1인당 순이익의 베스트는 전기차 시장 팽창의 수혜주로 꼽히는 피에스텍이었다. 피에스텍은 지난해 종업원 1인당 4억4700여만원의 순이익을 냈다. 피에스텍은 2012년 당기순이익이 2013년 1인당 순이익에도 못 미치는 3억8000만원에 불과했지만 1년 새 100배의 당기순이익(394억원)을 기록했다. 다만 이는 영업이익을 통한 수익이 아닌 피에스텍이 보유하고 있던 일부의 텍스퍼전자를 매각하며 발생한 처분이익이 당기순이익에 포함된 결과였다. 피에스텍의 지난해 영업이익은 10억원에 불과했다. 코스닥의 진정한 일당백은 생명공학 기업인 내추럴엔도텍이었다. 내추럴엔도텍은 4억1000여만원의 1인당 순이익을 냈다. 지난해 10월 상장한 내추럴엔도텍은 2012년 43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한 후 이듬해 192억원의 당기순이익을 냈다. 지난해 매출이 842억원으로 전기 216억원 대비 400% 가까운 성장 때문이었다. 영업이익도 241억원을 기록하며 전기 51억원보다 대폭 늘었다. 박용남 기자 bangnam@

불황 속 뜨는 알짜 비상장사는

네파·케이투코리아·폴라리스윙·한화에너지...

'영업익 1000억 클럽' 날개 달았다

아웃도어 열풍·M&A 성공 영향

경기불황에 적자를 보는 기업들이 속출하는 상황에서도 내실을 갖춘 알짜 비상장사들 역시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별도 기준 영업이익이 1000억원을 넘는 비상장사는 2012년 105개에서 2013년 111개로 늘어났다.

그중 △아디다스코리아 △네파 △케이투코리아 △삼성종합화학 △LS전선 △한국지엠 △삼성에스디에스 △한화에너지 △폴라리스윙 △지에스칼텍스 등이 새롭게 1000억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불황에도 그칠 줄 모르는 아웃도어 열풍에 아디다스코리아, 네파, 케이투코리아의 실적 성장이 눈이 띄었다. 네파는 지난해 전년 대비 27% 급증한 1182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했다. 케이투코리아는 지난해 1183억원의 영업이익을 달성해 1000억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국내 아웃도어 시장은 2013년 기준 약 6조4000억원 규모로 2010년에 비해 2배가량 성장했다.

국내 증권 해운업체 폴라리스윙이 해운업황

부진에도 불구하고 약진하며 1000억 클럽에 가입했다. 폴라리스윙은 지난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62% 증가한 1293억원을 달성했다. 같은 기간 매출 역시 45% 증가한 7958억원을 나타냈고 570억원의 당기순이익을 기록했다. 2004년 설립된 폴라리스윙은 원료장기수송계약 중심의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 2007년 포스코와 계약을 시작으로 세계 최대 철광석 공급사인 브라질 발리(VALE)를 비롯해 한국남동발전, 한국동서발전 등과의 계약에 성공, 장기계약을 체결해 안정적 사업을 유지하고 있다.

한화S&C의 100% 자회사인 한화에너지도 1000억 클럽에 이름을 올렸다. 한화에너지는 지난해 1623억원 규모의 영업이익을 달성, 전년에 비해 영업이익이 72%나 뛰었다. 한화S&C는 지난 2007년 여수열병합발전소를 인수, 에너지 사업을 시작했다. 여수열병합발전소는 군장열병합발전소를 흡수 합병한 후 한화에너지로 이름을 변경, 이후 매출액이 약 50% 증가하는 등 수익기반이 강화됐다는 평가를 받는다.

김희정 기자 heejin@



합쳐서 보험료를 할인해주는 보험이 즐거운 보험

(무) 메리츠 {케어프리} 보험 M Basket

✓ 멀티디스카운트: 보장, 저축, 연금, 자동차 결합 가입시 0.5~1.5% 보험료 할인

▶ 고객맞춤 보장설계

- 고객 별 위험에 따라 맞춤 보장설계
- 저축 및 연금보장을 통한 든든한 노후준비

▶ 현물보상 솔루션

- 실손의료비 보장은 물론, 24시간 간병인 지원
- 암진단부터 원치까지 관리해주는 암케어 패키지

본 상품의 다양한 특약사항을 선택하여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1566-7711

휴먼보험금 안내 02-2084-7912
보험사기 신고센터 1588-3311

대한민국 1호 즐거운 보험회사

MERITZ 메리츠화재
메리츠화재는 1922년 창립된 대한민국 최초의 보험회사입니다

손해보험협회 심의번호 제2013-126호 (2013.5.27) 기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보험금이 지급될 수 있으나 유익하지 않습니다. • 보험계약 체결 전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저축조합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며,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유 대상 금융상품에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보험계약자 및 보험료 납부자가 법인인 보험계약 제외

미국 셰일가스 인프라 기업에 투자

MERITZ 메리츠증권증권

한화에너지인프라펀드

메리츠증권증권은 미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마스터 합자회사(MLP: Marster Limited Partnership)에 투자하는 '한화에너지인프라 MLP특별자산 펀드(인프라-재간접형)'를 판매하고 있다.

한화에너지인프라 MLP특별자산 펀드는 미국 셰일가스 인프라 기업에 투자하는 국내 최초의 공모형 펀드로 자산의 60% 이상을 미국 내 에너지 관련 MLP에 투자해 자본 이익과 배당수익을 추구한다.

MLP는 셰일가스 등 에너지의 운송과 관련된 파이프라인을 비롯해 저장·정제와 같은 중간단계 인프라 사업에 투자하는 기업을 말한다. 중간단계 인프라 사업은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고 사용료를 받는 비즈니스 모델로 에너지원의 가격 변동과 직접 관련이 없고 향후 에너지 수요 증가, 셰일에너지 붐 등 지속적 성장이 기대되는 산업이다.

또한 10년 이상의 장기 계약을 통해 안정적



수익을 추구하며 대부분의 MLP가 분기마다 배당금을 지급하는 것도 장점이다. 배당금은 파이프라인 등 인프라의 사용료 수익 개념으로 연 5~6% 현금 흐름이 예상된다. 특히 펀드 가입 시 '분기배당형'을 선택하면 매 분기배당금을 받을 수 있고 '일반성장형'을 선택하면 배당금이 재투자돼 복리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이 펀드는 외화자산의 70% 이상을 환헤지할 계획이며 환대 수수료는 30일 미만인 경우 이익금의 70%, 30~90일에는 이익금의 30%를 각각 징수한다.

주식·채권·인컴... 유망 펀드에 배분

동양증권

마이 W 크레센도 랩

동양증권이 지난해 4월 선보인 'MY W Crescendo(크레센도) 랩'이 글로벌 자산배분형 금융상품의 대표적 투자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 상품은 국내외 주식, 국내외 채권, 글로벌 인컴 등 다양한 자산별 유망펀드에 투자한다. 자산배분 전략을 통해 상대적 투자 매력을 측정, 개별자산의 리스크를 낮추고 포트폴리오 수익을 추구하는 '자산배분형 펀드랩'이다.

동양증권 자산배분협의체를 통해 글로벌 경제와 금융시장 이슈 그리고 자산별 투자 매력도 등 다양한 투자지표를 반영, 탄력적으로 자산 비중을 조절하는 게 특징이다. 현재 포트폴리오에는 저금리 시대의 대안 상품으로 부상한 글로벌 인컴 펀드와 벤치마크 대비 우수한 성과를 꾸준히 보이고 있는 국내외 주식형 펀드 등 총 7개 우수펀드에 분산 투자돼 있다.

이 상품의 최근 기간수익률을 확인해 보면 △1개월 0.45% △3개월 2.57% △6개월 2.59%(랩 수수료 차감 후 순이익률, 지난 21



일 기준)로 코스피 최근 6개월 수익률이 0.72%인 점과 비교하더라도 글로벌 자산배분을 통한 수익률 제고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MY W Crescendo 랩은 고객이 직접 목표전환수익률(8~12%)을 선택할 수 있는 목표전환형과 별도의 목표전환수익률 지정 없이 가입이 가능한 일반형이 있다. 최소 가입금액은 목표전환형 500만원, 일반형 100만원이며, 수수료는 연 단위 선취 1.0%와 분기별 후취 연 1.0%다. 동양증권 전국 지점에서 가입할 수 있고, 별도 수수료 없이 자유롭게 중도 환매 가능하다.

저금리 시대 해외로 간다

'저금리 시대' 적절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투자자들이 해외로 시선을 돌리면서 해외 증권에 직접 투자하는 상품들이 잇달아 출시되고 있다. 증권사들은 특히 시장 지수 대비 낮은 변동성 위험을 부담하며 안정적으로 장기 투자를 추구하는 상품들로 투자자들의 시선을 끌어당기고 있다.

하나대투증권은 중국의 내수 1등 기업에 장기 투자하는 '중국 1등주 상품' Collection을 추천하고 있으며 동양증권은 글로벌 자산배분형 투자상품으로 주목받고 있는 'MY W Crescendo(크레센도) 랩'에 관심을 가져볼 만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메리츠증권증권은 미국증권거래소에 상장된 MLP(Marster Limited Partnership)에 투자하는 '한화에너지인프라 MLP특별자산투자회사'와 KTB투자증권은 'KTB한중장기소득공제증권투자신탁(주식형)'이 투자자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

문선영 기자 moon@



성장성 높은 中 내수 주도株 타킷

하나대투증권

중국 1등주 상품 컬렉션

하나대투증권은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와 국내 내수장의 저성장을 염두에 두고 중장기적으로 꾸준한 수익을 추구하는 '중국 1등주 상품' Collection을 추천했다.

최근 중국의 GDP 성장 속도는 하향 안정화를 그리고 있지만 소비재는 지속적으로 초과 성장하고 있다. 1등 브랜드는 시장 독점 비중까지 높아져 중국 내수 1등 기업들의 성장성은 더욱 클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하나대투증권은 지난해 10월 '하나 중국1등주랩', 올해 1월 'KTB 중국1등주펀드'를 출시했다. 이 상품은 연금상품이나 자녀 증여 등 3~10년 이상의 중장기 투자를 통한 고수익 추구 컨셉이다. 단기적 주식시장 상황보다 장기적 고수익을 목표로 하는 고객들에게 어필하면서 가입 고객 총 5400여명, 판매액 1700억 원을 기록했다. 수익률은 출시일 이후 5월 현재 12%(누적수익률 기준)를 기록했다.

'하나 중국1등주랩'은 직접투자를 통해 해외



주식 매매차익이 따른 수익이 양도소득세율 22%로 분류 과세돼 절세 효과도 있으며, 최저 가입금액은 3000만원, 랩수수료는 연 2.5%로 분기별로 나눠 후취한다. 중도환매수수료는 없다.

'KTB 중국1등주펀드'의 보수는 A형의 경우 선취 수수료 1%에 연 1.44%, C형은 연 2.04%, 온라인 전용펀드의 C-e형은 1.24%다. 환대수수료는 90일 미만인 이익금의 70%이며, 하나대투증권 전 영업점 및 홈페이지에서 가입 가능하다.

국내·해외 주식형 각각 50% 비중

ktb 투자증권

한중장기소득공제펀드

KTB 투자증권은 국내 증시가 다시 상승세를 탈 때 강한 탄력성을 갖고 시장초과수익을 낼 수 있는 'KTB한중장기소득공제증권투자신탁(주식형)'을 추천했다.

'KTB한중장기소득공제증권투자신탁'은 2015년말까지 가입 시 납입금액의 4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장기펀드(소장펀드)로 연간 최대 240만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때문에 직장인들에게 필수 상품으로 꼽힌다.

이 상품은 국내주식형 모펀드와 해외주식형 모펀드에 투자하는 구조로 'KTB중국1등주모펀드'와 'KTB리틀빅스타모펀드'에 각각 50% 비중으로 운용한다.

'KTB중국1등주모펀드'는 중국 분도 기업 중 성장성이 높은 섹터 내의 1등 기업 15개에 집중 투자하는 전략을 활용한다.

최근에는 중국 초대형 내수시장의 본격 성장에 따른 수혜가 예상되는 보험, 음식료, 제



약 등 소비재업종 내 종목에 집중 투자하고 있다.

특히 차별적 기술 또는 신사업을 통한 성장을 내다볼 수 있는 중소형주들이 투자처가 되고 있다.

이런 기업들에 투자하면 주식시장 상승 시 강한 탄력성으로 벤치마크 대비 높은 수익률을 기대할 수 있다.

펀드의 보수는 클래스 C형이 판매 수수료 1.215%이며 하나대투증권 또는 KTB투자증권 영업점에서 가입 가능하다.

생명보험협회 심의필 제2013-2280호(2013.10.8) [13-A-CL-212]

50세에서 81세라면 나이가 많아도 아픈 적이 있어도 까다로운 심사없이 가입되니까 지금 편하게 전화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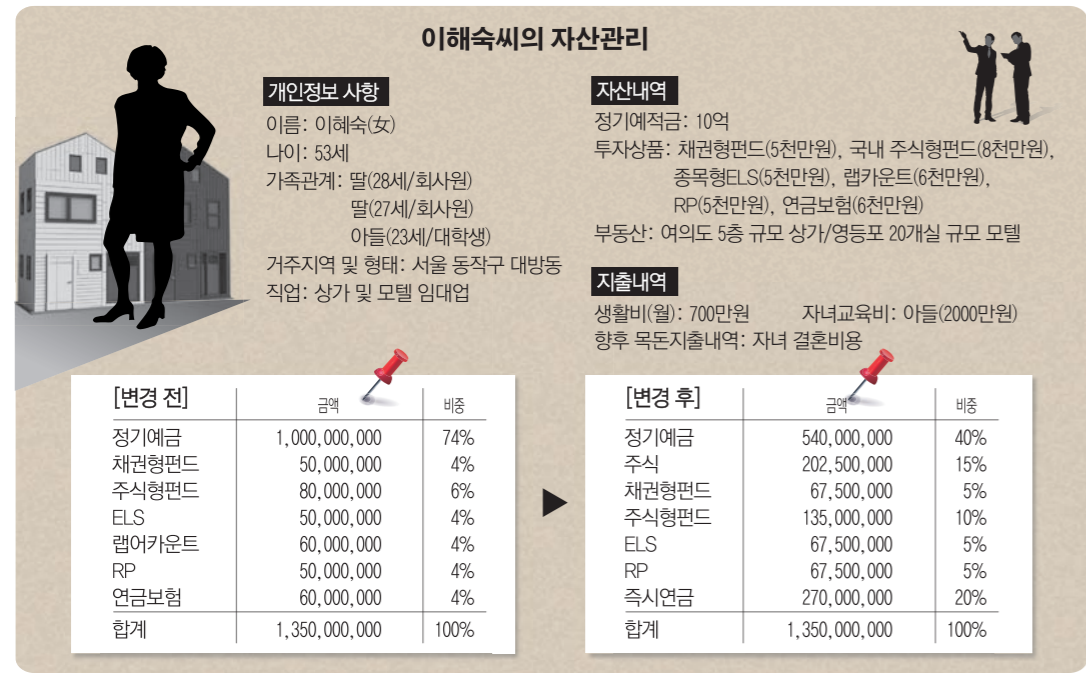
라이나 무배당 **OK실버보험** (갱신형) 의약품 및 의료검진 없이 계약이 성립되는 상품으로, 가입 시 특정 질병의 유무가 문제되지 않는 사망보장 보험상품입니다.

- ✓ **50세~81세 분이라면 나이, 건강, 직업 상관없이 가입!**
심신상실 또는 심신박약 등의 경우 계약무효 사유에 해당됨
사망보험금 이외의 보험금은 없음
- ✓ **가입 2년 이후 사망 시 사망보험금 전액 지급!**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 보장 제외, 가입 이후 발생한 재해 사망은 즉시 보장
- ✓ **질병·재해·사고 등 각종 사망에 대해 사망보험금 보장!**
*재해로 사망 시 일반사망보험금의 두 배 지급

24시간 무료 상담 문의 080-026-3030

*최초계약 7년 만기 후 5년 마다 갱신되는 상품으로 갱신 시 피보험자(보험대상자) 나이와 보험료율에 따라 보험료가 인상될 수 있으며 갱신 시 최대 86세까지 보장됩니다.(갱신가능 최고 나이 81세). *계약일로부터 만 2년 이내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 시 이미 납입한 보험료만 지급. *단, 재해 원인 시에는 사망보험금 전액을 지급합니다.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 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 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5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기존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가 인상되거나 보장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험계약 체결 전에 상품설명서 및 약관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적금 줄이고 배당·가치株 중심 위험자산 투자”



베이비부머 포트폴리오 금리 年 3%대... 물가상승 고려하면 오히려 ‘마이너스’ 5년 단위 고수익률 ‘적립식펀드’로 자녀 결혼자금 준비 비과세 장점인 ‘즉시연금 종신형’ 노후생활자금 보충도

1955~1965년 사이 태어난 세대를 일컫는 베이비 부머는 그 수만 약 700만명으로 농촌에서 태어나 대체로 성장과정에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었다. 이들이 장년기를 보낸 시기는 경제개발기로 부동산 투자가 인기를 끌었으나 부동산 임대시장의 침체, 수익률 부진의 장기화로 부동산 수요가 급격히 위축되자 은퇴를 해야 하는 시기에는 노후 설계조차 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남은 것은 집 한 채뿐이라는 말이 남의 일이 아닌 것이다. 베이비 부머인 이해숙씨는 부동산 자산으로 여의도에 5층 규모의 상가와 영등포에 20개실 규모의 모텔을 소유하고 있지만 부동산에 대한 패러다임이 변하고 있는 상황에서 월 700만원의 생활비와 2000만원의 자녀교육비 그리고 세 자녀의 결혼비용으로 나가게 될 목돈을 준비하려면 쉽지 않은 일이다. 또한, 안정적 노후를 맞이하기 위해서는 노후자금도 준비해야 하기에 현재 보유 포트폴리오의 조정이 불가피하다.

먼저, 이씨의 자산내역을 살펴보면 정기예금이 10억원으로 금융자산의 74%를 차지하고 있다. 은행의 예·적금은 최근 저성장,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3% 저금리로 운용되고 있다. 따라서 물

가 상승을 고려하면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로 수익률이 좀 더 높은 투자처를 찾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은행의 예금과 적금은 금융자산의 40%로 줄이고 금융자산 중 15% 정도는 위험자산인 주식에 투자할 것을 제안한다. 주식에 투자할 때에는 단기 매매에 집착할 것이 아니라 매년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우량 배당주나 성장성이 있는 가치주 위주로 투자하는 것이 좋다.

자녀 교육비와 결혼자금 준비를 위해서는 최소 5~10년 계획으로 수익률이 높은 펀드에 투자할 것을 권한다. 거시적 펀드보다 매월 일정액을 투자해 분할 매수하는 방식으로 추가 변동 위험을 줄일 수 있는 적립식 펀드를 권한다. 양적완화 축소 개시 금리 인상 등을 고려할 때 시장 상승에 무게를 두고 있으므로 주식형 펀드 비중과 채권형 펀드 비중 격차를 증가시킬 필요가 있다. 이에 현재 이씨의 자산에서 6% 정도를 구성하고 있는 주식형 펀드 비중을 10%로 늘리고, 자산 비중의 4% 정도를 구성하고 있는 채권형 펀드 비중을 5%로 늘려 포트폴리오를 짜는 것이 좋다.

이씨의 자산 중 6000만원을 차지하고 있는 랩카운트의 경우 2011년 8월 이후 코스피 급락에 기

인해 전반적으로 수익률이 악화되며 감소하고 있는 추세라 해지도 고려해볼 만하다. 이씨의 나이를 고려했을 때 우리나라 평균수명을 80세로 가정한다면 향후 30년 기간의 노후생활 자금도 필요하다. 이에 연금보험을 가지고 있지만 비중이 작다고 판단되므로 연금자산에 더 투자할 것을 권한다. 즉시연금 종신형은 목돈을 비과세로 운용할 수 있고 평생 지급받을 수 있으며 평균수명이 길어지고 있는 요즘 같은 시대에 유리한 상품이다. 만약, 조기 사망하게 되더라도 미리 정해진 기간 동안 유가족들이 대신 보장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보유 자산 중 부동산 자산은 고정수입원으로 임대소득이 있지만 향후 가치 하락, 공실 발생 등의 위험이 발생할 수 있기에 점차 부동산 비중을 줄여 나가는 것이 좋다.



시니어 투자상품 하이투자증권 ‘공모주&배당주 10 채권혼합형 펀드’

변동성 낮은 주식 편입 ‘안정적 수익’

유망 배당주·상위 200위 종목 중 선별 국공채·AAA 우량 채권 비중도 강화

‘하이 공모주&배당주 10 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 펀드가 베이비 부머 세대의 관심을 환골에 받고 있다. 국내주식 중 공모주, 배당주, 변동성이 낮은 주식을 선별해 펀드 순자산의 10%까지 편입해 운용하고 있어 안정적 수익을 얻을 수 있다는 점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고 있는 것.

특히 이 상품의 경우 공모주식에 대한 수요예측과 가격결정을 펀드매니저가 에널리스트 역할을 겸임하는 섹터매니저 시스템을 통한 리서치로 접근한다. 때문에 중소형 종목의 경우 밸류에이션 매력은 높음 종목 위주로 접근하는 가격전략, 가격 메리트가 낮더라도 편입비 탄력 운용을 통해 수익률을 극대화하는 편입비 전략, 장기투자 및 분할 매도를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매매 타이밍 전략 등을 활용할 수 있다. 이에 하이자산운용에서 운용 중인 ‘하이 공모주 플러스 10 증권투자신탁 1호[채권혼합]’의 경우 최근 2년, 3년 성과가 각각 8.21%, 10.84%(Class-A, 2014년 5월 23일 기준)로 업계 공모주 펀드 중 상위권 성과를 실현 중이다.

하이 공모주&배당주 10 증권 투자신탁[채권혼합] 펀드는 이와 같은 공모주 운용전략에 더해 배당주 투자와 변동성이 낮은 주식 투자를 통해 안정적 배당 수익과 일반 주식 투자 대비 낮은 변동성을 추구한다. 배



당주 투자의 경우 배당 안정성이 높고 일정 수준의 배당이 지속가능한 종목을 대상으로 유망 배당주를 선별하며, 변동성이 낮은 주식은 한국거래소 유가증권 시장의 시가 총액 상위 200위 종목 중 과거 5년간 월간 수익률 변동성이 낮은 종목에 투자한다.

채권 부문은 채권 A- 이상, 아음 A2- 이상 국공채, 통안채, 은행채 중심의 우량 채권에 투자하며 특히 국공채 및 AAA 등급의 비중을 높여 안정성을 추구한다.

하이투자증권 고상현 과장은 “공모주 펀드는 주식 편입비가 낮아 공모주식 편입비율이 제한적이지만, IPO 주식의 기관 배정 물량이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펀드 투자를 통해 공모주 시장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이라며 “공모주 청약 경쟁이 없는 투자자들은 공모주식에 대한 밸류에이션 측정, 편입 비중 결정과 매도 타이밍을 운용회사가 결정하는 펀드를 통한 간접투자 방식이 보다 유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선영 기자 moon@

실질금리 0%... 자산 비중 ‘실물<투자’



양경식
하나대투증권
포트폴리오 솔루션팀 이사

한국의 베이비 부머(1차 1955~63년생, 2차 1969~75년생)들이 고문에 빠져 있다. 당장 눈앞으로 나가는 은퇴도 걱정인데, 기대수명이 길어져 은퇴 후 40년 이상을 살아갈 준비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노후생활을 준비할 때는 가장 먼저 자신의 자산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자산에 대한 재조정(리밸런싱)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 개인자산 가운데 80% 가까이 차지하는 부동산 등 실물자산에 편중된 자산구조를 줄이고, 투자자산에 대한 비중을 늘려야 한다. 실물자산은 단기에 유동화될 수 있는 자산이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장기 계획을 세우고 부동산 비중을 줄여 나가거나, 주택연금 등을 통한 유동화를 준비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베이비 부머는 저금리시대를 헤쳐나갈 준비를 해야 한다. 저금리로 인해 물가상승률을 감안한 실질금리 수준이 0%에 가까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더 이상 저축만으로는 노후자금을 준비하기 어려운 환경으로 확정금리펀드 아니라 주식, 펀드, ELIS 등 다양한 투자자산에 대한 분산투자가 필요

하다. 노(老)테크에 있어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는 “나이가 많아질수록 안전한 상품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는 심리다.

베이비 부머들은 은퇴 이후 매월 근로소득을 대신할 일정한 현금소득을 준비해야 한다. 매월 일정한 현금 흐름을 창출하기 위해서는 3대 연금(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과 보험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다. 특히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노후 대비가 충분치 않다는 점에서 연금저축 가입이 매우 중요하다. 지난해 4월 새롭게 선보인 연금저축계좌가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연금저축계좌는 한 개의 연금펀드도 운용했던 연금저축에 비해 다양한 연금상품을 분산투자해 효과적인 자산관리가 가능하며, 공적연금을 제외한 사적연금 수령액이 연간 1200만원까지 분리 과세돼 세금 부담도 줄었다. 금융자산이 많고 금융소득종합과세에 대한 부담을 갖고 있는 베이비 부머들에게는 즉시연금식보험이 매력적 대안 중 하나다.

1차 베이비 부머(1955~63년생)들은 직장생활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이 본인의 노후를 준비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다. 2차 베이비 부머(1969~75년생)들에게도 노후준비를 위한 시간이 많지 않다. 행복한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은퇴설계의 핵심은 저축기간과 액수 간의 함수다. 여기서 얻을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은 최대한 일찍 노후준비를 시작해야 노후 대비에 대한 부담이 줄어든다는 것이다. 지금이라도 자신의 자산구조를 꼼꼼히 점검해 보고, 자산 구성 및 투자습을 바꿔 은퇴 이후의 삶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

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4-01663호(2014.03.28~2015.03.28)

하나금융그룹

연금저축 자산관리 하나대투에서 시작하자!

스캔하면 다 나와~
휴대폰으로 확인하세요

연금 자산관리 동영상

자산관리전문가(PB)가 상시 포트폴리오를 관리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산관리 모바일 앱 하나대투 HOW에서 확인하세요 | m.hanaw.com 1588-3111

* 집합투자상품은 예금보통예금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운용결과에 따른 이익 또는 손실이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가입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환매방법 및 보수 등에 관하여 (간)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연금저축의 과세대상, 과세율 및 세제혜택 등은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 해외투자상품의 경우 환율변동에 따라 자산가치가 변동되거나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CC보렌드-140327-21





“다음 카카오 합병효과... 주가 최소 30% 상승”

네이버는 3.99% 떨어지며 시총 8위로 밀렸지만 하락세 일시적일 듯

다음과 카카오가 합병을 발표하면서 다음카카오의 주가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다음카카오에 대해서는 시너지 창출 효과로 인한 주가 상승 기대감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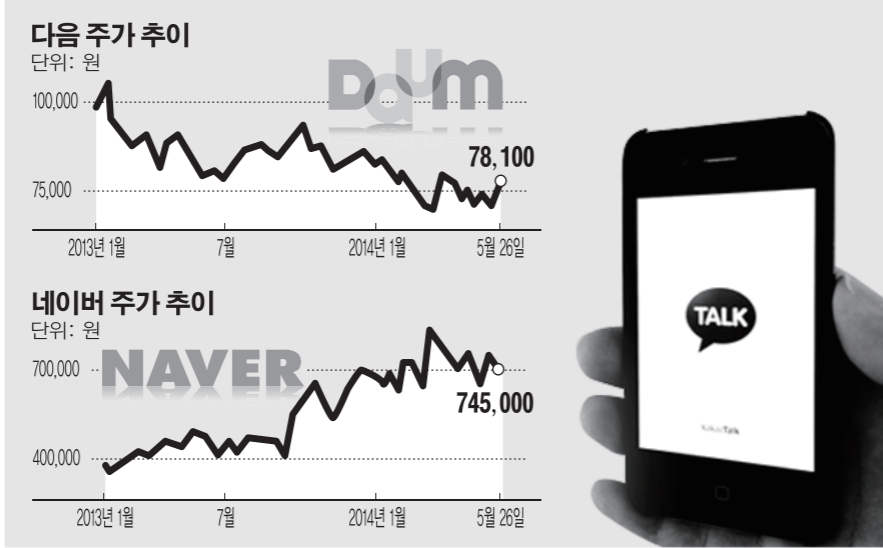
황승택 하나대투증권 연구원은 “기준가 7만2910원으로 산정한 시가총액은 4조 1200억원 내외로 현재의 시가총액 수준만 고려해도 합병 이후 최소 30% 이상 상승 요인이 있고, 시너지를 고려할 경우 주가 상승도 가능하다”고 내다봤다.

또한 “카카오는 다음의 인프라를, 다음은 성장동인 확보를 위한 합병”이라고 진단하며 “광고, 게임 및 콘텐츠 부분의 시너지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다음카카오의 성장가치가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본다”면서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주가는 10만2000원을 유지했다. 다만 “합병 후 지분은 김범수 카카오 대표가 40.8%, 이재웅 다음 전(前) 대표가 3.4% 수준으로, 합병에 따른 지배력 상실 이후 역할에 대한 부분도 관심사”라고 언급했다.

안재민 키움증권 연구원은 “다음카카오 합병은 포털시장을 지배하고 있는 네이버에 도전장을 제시했다”며 “다음의 인터넷 포털 영향력 강화와 카카오의 모바일 서비스가 긍정적인 시너지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시너지를 고려했을 때 주가 상승 여력이 충분하다”고 평가했다.

김윤진 대신증권 연구원은 “합병 이후



성장과 가격 측면에서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고, 이창영 동양증권 연구원은 “다음의 PC 콘텐츠와 카카오의 모바일 플랫폼의 결합이 주가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전문가들은 한 목소리로 다음카카오의 합병 이후 주가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감은 높지만 네이버에 미치는 추세적인 영향은 제한적인 수준에 그칠 것이라 전망을 내놓고 있다.

김미숙 현대증권 연구원은 “다음과 카카오 모두 성장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윈윈게임”이라고 평가하는 한편,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 발표 이후 일시적으로 네

이버에 대한 포트폴리오 구성상의 변화가 감지되지만 장기적인 영향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중원 아이엠투자증권 연구원은 “네이버 주가 하락은 경쟁상대인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으로 인한 심리적인 영향에 기인하고 있다”며 “네이버의 펀더멘털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다음과 카카오 간 합병 결정 소식에 전제지자 네이버 주가는 3.99% 떨어진 74만5000원에 장을 마쳤다. 시가총액 순위도 8위로 내려갔다. 거래량은 전 거래일의 4배 수준인 20만여주로 집계됐다.

하장청 기자 jcha@

‘카카오 우회상장’ 45일내 결정

거래소, 타당성 여부 심사

카카오의 우회상장 여부가 45일 안에 결정된다.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비상장 기업이 상장기업과의 인수합병을 통한 우회상장을 할 경우 심사청구 후 거래일 기준으로 45일 안에 승인 여부가 결정 난다.

이에 따라 카카오의 우회상장 여부는 늦어도 7월 내에 결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시장에서 이번 합병에 대한 관심이 높고 코스닥지수 신세에도 조기에 적용할 필요성이 있어 심사는 좀더 속도를 낼 것으로 예상된다.

거래소는 우회상장 심사 과정에서 기업 경영의 계속성, 재무상태의 건전성, 경영 투명성 등을 평가한다. 특

히 합병 후 다음커뮤니케이션의 최대 주주 이재웅 전 대표이사에서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으로 변경되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중점적으로 볼 예정이다.

김용상 거래소 공시부 부장은 “규정상대로 45일 이내 심사를 마쳐야 한다”며 “(결정 여부는) 우선 우회상장 심사청구서를 받아봐야 안다”고 말했다. 이어 “심사시 비상장인 카카오에 대한 평가뿐 아니라 합병 이후 사업내용을 중점으로 해서 기업 경영의 계속성, 경영권 등을 위주로 볼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거래소는 26일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 발표 이후 다음에 대해 우회상장 여부 및 요건 충족 확인을 위해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창사 50여년만에 처음 대신증권 희망퇴직 실시

대신증권이 창사 이래 50여년만에 처음으로 희망퇴직을 실시한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대신증권은 이날부터 오는 30일까지 닷새간 희망퇴직 접수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나재철 대표는 희망퇴직의 내용과 필요성 등을 담은 답화문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대리급 이상은 근속연수 5년 이상, 사원 이하는 근속연수 8년 이상인 신청 대상자로 희망퇴직 시 근속연수에 따라 10~24개월 급여를 차등 지급할 예정이다. 20년 이상 1급 부장은 최대 2억5000만원을 받게 된다.

지난 4월 17일 대신증권은 77개 영업점과 본사에서 전직원을 대상으로 희망퇴직 시행과 관련한 설명회를 진행한 바 있다.

김미정 기자 mj@

지분보유·협력관계 관련株도 ‘경중’

위메이드 14.98%... 서버담당 케이아이엔엑스 상한가

코스닥 상장사인 다음커뮤니케이션이 비상장사인 카카오를 흡수 합병한다는 소식에 카카오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거나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업체의 주가가 들쭉이고 있다.

27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카카오 지분을 보유 중인 위메이드는 26일 전거래일 대비 14.98%(6200원) 오른 4만7600원에 거래를 마쳤다. 위메이드는 현재 카카오 지분 5.43%(150만주)를 보유하고 있다. 위메이드 측은 카카오 지분 보유와 관련해 “전략적 제휴를 목적으로 카카오에 지분을 투자 중이다”고 밝힌 바 있다.

카카오의 지분 0.05%를 가지고 있는 삼지전자역시 전 거래일 대비 13.43% 급등했

다. 또 김범수 카카오측 의장의 개인회사인 케이큐브벤처스에 지분을 투자한 바른손은 가격제한폭까지 치솟았다. 네오위즈홀딩스나 나성균 대표가 카카오 주주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전 거래일 대비 1.13% 상승했다.

이와 함께 다음글로벌홀딩스가 지분을 보유 중인 이스트소프트도 전거래일 대비 5% 가까이 올랐다. 다음글로벌홀딩스는 다음의 100% 자회사로 지주사업 및 경영 관리를 목적으로 지난 2007년 설립됐다.

카카오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기업들도 수혜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였다. 케이아이엔엑스는 카카오의 서버를 담당하고 있다는 이유로 이날 상한가를 기록했다.

이와 함께 카카오스토리 사진인화 서비스 업체인 영우통신이 시너지 효과 기대감에 5.19% 상승했다. 이밖에 카카오뮤직 서비스 업체 네오위즈인터넷(5.94%), 카카오톡의 문자서비스 부분 관련 기술을 공급했던 인포뱅크(4.83%) 등도 강세를 보였다.

한편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 소식이 불리한 기색을 보이는 곳도 있다. NAVER가 바로 그 주인공. 이날 NAVER의 주가는 전거래일 대비 3.99%(3만1000원) 하락한 74만5000원에 거래를 마쳤다.

국내 2위 인터넷 포털 서비스 업체 다음이 1위 모바일 메신저 업체 카카오와의 합병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할 경우 네이버가 주도해온 포털과 모바일 시장의 판도에 변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전망 때문이다.

문선영 기자 moon@



KDB대우증권 ‘별에서 온 절세이벤트’

KDB대우증권은 추천상품 가입 이벤트와 ‘별에서 온 절세(折稅) 이벤트’를 6월 말까지 진행한다.

추천상품 가입 이벤트는 KDB대우증권 추천상품 1000만원 이상 가입고객과 3000만원 이상 가입고객에게 각각 모바일 상품권 1만원과 3만원권을 증정한다. 별에서 온 절세이벤트는 소장펀드, 생계형계좌, 세금우대저축계좌, 국내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와 같은 절세상품을 적립식으로 월 10만원이상 가입 후 3년 이상 자동이체를 등록하거나 생계형 계

좌와 세금우대 저축계좌에 500만원 이상 가입하는 고객에게 최대 3만원의 모바일이나 백화점 상품권을, 7월 말까지 국내 분리과세 하이일드펀드를 1천만원 이상 가입하는 고객에게는 최대 5만원의 문화상품권을 각각 증정한다.

한편, KDB대우증권은 사내 리서치, 상품, 컨설팅 전문가들로 구성된 투자전략 전문가그룹을 통해 현재 풀리엔럼, 미래에셋스마트롱숏펀드, 트러스트제갈공명펀드 등 총 15가지의 추천상품을 제시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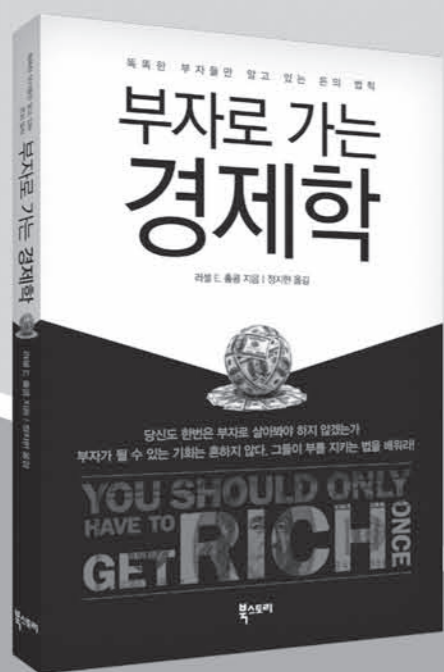
하장청 기자 jcha@

당신도 한번은

세상이 바뀌고, 시장이 변해도 흔들리지 않는

평생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부자들의 특별한 자산 관리법

부자로 살아보아야 하지 않겠는가?



똑똑한 부자들만 알고 있는 돈의 법칙 부자로 가는 경제학

부자가 될 수 있는 기회는 흔하지 않다. 그들이 부를 지키는 법을 배워라!

러셀 E. 홀콤 지음 | 정지현 옮김 | 값 13,000원

You Should Only Have To Get Rich Onc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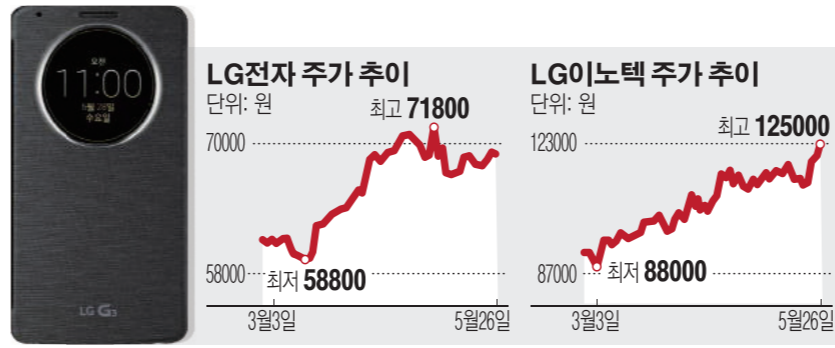
LG 'G3' 공개 D-1... 주가 향배는

내일 전세계 6개 도시에서 신제품 공개 전자·이노텍·디스플레이 반등여부 주목

LG전자의 전략 스마트폰 'G3' 공개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다. 이에 따라 LG전자와 LG이노텍, LG디스플레이 등 관련 주가 향배에 관심이 집중된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LG전자는 오는 28일 서울 여의도 트윈센터에서 'G3' 공개 행사를 연다. G3 공개행사는 서울 외에도 스리던 △뉴욕 △샌프란시스코 △이스탄불 △싱가포르 등에서 24시간에 걸쳐 진행된다. LG전자가 전략 스마트폰 공개 행사를 6개 도시에서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증권가에선 이번 G3 성공 여부에 따라 LG전자 주가도 회복이 갈릴 것으로 보고 있다. 일단 출시 전 분위기는 긍정적이다. 권성철 동부증권 연구원은 "LG전자는 2분기 신모델 몰락 증가 효과로 스마트폰 판매가 전년 동기대비 17.1% 증가하고 흑자 전환을 시도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G3 출시는 주가 반등에 좋은 분위기를 형성해줄 것"이라고 전망했다. 권 연구원은 "5월 중순까지 국내 이동통신사 영업정지 기간에도 LG전자



휴대폰은 비교적 선전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통사 영업 재개 후 국내 휴대폰 시장이 다시 활성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김기영 LIG투자증권 연구원도 "G3 글로벌 출시 및 하반기 넥서스6 등을 통해 올해 연간 스마트폰 판매량 +25%(y-y)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실적 컨센서스는 지속 상승되고 있으며, 타 사업부가 견조한 가운데 MC사업부까지 턴어라운드 된다면 주가 상승은 지속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급하는 계열사 LG이노텍의 주가 상승세도 무섭다. 4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이날 장중 12만4500원으로 52주 신고가도 경신했다. LG전자 G3, 애플 아이폰6 등 주가대박이 신제품 발표를 앞두고 있는 데다, 30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에 대해 조기상환청구권을 행사하기로 하면서 주식 물량 부담에 대한 불확실성이 해소됐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이와 함께 LG디스플레이도 LG전자에 높은 단가의 QHD 디스플레이를 공급하면서 주가에 호재로 작용할 전망이다.

LG전자뿐만 아니라, 카메라모듈을 공

월드컵 앞두고 치맥株 "삼바~"

하림 6.3%·팜스토리 17% 올라

6월 브라질 월드컵을 앞두고 수혜주들이 들쭉거리고 있다. 스포츠 행사가 열릴 때마다 주목을 받는 가전주부터 야식을 책임질 치맥주들이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것.

26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닭고기 시장 1위 기업 하림이 이날 들어 6.3%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지난 22일에는 연중 최고가를 찍었다.

닭고기 업체 마니커도 올 들어 0.56%의 주가 상승률을 기록했다. 동물용 사료와 축산물 생산·가공업체인 지바이오는 같은기간 16.4% 올랐으며 이자바이오 자회사인 양돈용 배합사료 전문업체 팜스토리로 한 달간 17% 가까이 뛰었다.

전문가들은 브라질 월드컵 등 각종 스포츠 행사를 앞두고 이들 종목들이 수혜를 볼 수 있을 것이라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주가 역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이상헌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매년 닭고기 수요의 성수기는 북반구가 집중된 7-8월이지만 올해는 6월 월드컵 영향을 먼저 받을 것"이라며 "오는 6월 브라질월드컵은 물론 9월 아시안 게임 등이 닭고기 수요를 크게 확대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이들 종목들이 이외에도 SBS와 SBS 콘텐트즈브로드 수혜주로 꼽히고 있다. 월드컵 중계로 TV 광고 수익과 관련 매출이 확대될 것이라 전망 때문이다.

또한 월드컵을 이용한 기업들의 광고 수요 확대에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제일기획도 수혜주로 주목을 받고 있다.

한승호 신영증권 연구원은 "제일기획의 실적 개선 폭은 월드컵이나 올림픽이 개최되는 쪽수 해에 상대적으로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선영 기자 moon@

'펀드환매' 쏟아져도 통 커지는 '통일펀드'

국내 주식형 펀드가 환매 행렬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통일 관련 펀드에는 자금이 유입된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지난 3월 업계 최초로 출시된 통일 관련 펀드인 신영자산운용의 '신영마라톤 통일코리아 주식 A형'은 지난 23일 기준 통일펀드 2종에 총 340억원이 유입됐다.

이달 들어 23일까지 유입액은 103억 원이었다. 같은 기간 통일펀드를 포함한 국내 테마주식형 펀드가 996억원 순유출, 국내 일반주식형 펀드가 5580억원 순유출을 기록했다. 이는 갈수록 하향에 쏠려 가는 추세다.

신영마라톤 통일코리아 주식 A형은 이달 들어 91억원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출시 이후 2개월 동안 총 유입액은 329억원으로 늘었다.

지난 15일 출시된 하이자산운용의 '하이코리아 통일 르네상스 주식형 펀드'에도 7거래일 동안 총 11억원이 들어왔다. 이 펀드는 경공업 업종, 비료, 음식료 등 남북한 상호 협력과 정부지원 강화가 예상되는 종목들로 구성되어 있다.

통일펀드는 통일 준비단계부터 통일 이후 유망할 것으로 전망되는 종목에 장기 투자하는 상품이다. 올초 박근혜 대통령의 "통일은 대박" 발언 이후 등장해 주목을 받고 있다.

조승에 기자 sysy@

증권그룹 일감몰아주기 실태 ⑭ 오뚜기그룹

라면·제유·식품 등 일감몰아주기로 성장

18개 계열사 수직형 출자관계

종합식품그룹인 오뚜기그룹은 지주사격인 (주)오뚜기를 정점으로 계열사들이 수직형 출자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오뚜기는 2013년 말 기준 오뚜기라면, 오뚜기냉동식품, 오뚜기삼화식품, 오뚜기물류서비스, 오뚜기SF 등 국내외 해외 18개의 계열사를 두고 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2013년 말 기준) 오뚜기는 창업주 함태호 명예회장이 지분 17.46%를 보유하며 최대주주로 있다. 장남인 함영준 회장은 15.38%를 소유하고 고 함태호 회장 외 특수관계인의 지분율은 42.2%다.

라면, 식용유, 프리믹스 등의 제조 및 판매를 주사업으로 하고 있는 오뚜기라면은 함태호 오뚜기 명예회장 지분의 10.93%, 함영준 회장이 24.7%를 보유하고 있다. 오너 일가 지분이 35%가 넘는 오뚜기라면은 지난해 별도기준 매출액 4602억원 중 99.55%(4581억원)을 내부거래 올렸다. 지난 2009년 99.74%에 이어 2010년 98.30%, 2011년 98.73%, 2012년 99.30%가 내부거래 매출에 의한 것이었다.

오뚜기라면 단위: 백만원

결산기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매출	360,742	345,898	389,360	442,547	460,193
내부거래	359,788	340,030	384,413	439,447	458,106
비율(%)	99.74	98.30	98.73	99.30	99.55

오뚜기제유 단위: 백만원

결산기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매출	25,875	30,297	32,791	44,002	51,288
내부거래	22,324	24,515	24,787	36,127	42,750
비율(%)	86.28	80.92	75.59	82.10	83.35

삼미식품 단위: 백만원

결산기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2013년
매출	47,510	46,427	55,124	63,588	70,853
내부거래	45,713	44,601	53,759	62,160	69,409
비율(%)	96.22	96.07	97.52	97.75	97.96

오뚜기제유 역시 내부거래의 비중이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함영준 회장이 지분의 26.52%를 보유하고 오뚜기(29%), 삼미식품(10%)이 지분을 보유 중인 오뚜기제유의 내부거래 비중은 80%가 넘었다. 오뚜기제유의 별도기준 매출액은 2009년 258억에서 지난해 512억으로 두 배 가량 급증했다. 삼미식품은 함태호 명예회장의 동생 함

창호 회장이 46.40%의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삼미식품의 별도기준 매출은 지난 2009년 475억에서 2010년 464억, 2011년 551억, 2012년 635억, 지난해에는 708억으로 꾸준히 늘었다. 내부거래 비율도 2009년 96.2%에서 지난해에는 97.9%로 늘어 매출의 거의 전부를 내부거래로 올렸다.

박용남 기자 bangnam@

연초 이후 수익률 톱10 ETF

펀드	대유형명	설정일	순자산	연초후	3개월	1년
미래에셋 TIGER합성-MSCI US 리츠부동산	해외부동산형	20131008	113	15.23	7.29	
삼성 KODEX 공신물(비특별)자산	커머리티형	20110311	57	14.31	10.22	25.29
한국투자 KINDEX 합성-다우존스미국리츠부동산	해외부동산형	20130730	54	13.59	6.24	
미래에셋 TIGER 농산물선물특별자산	커머리티형	20110110	204	10.07	8.25	-1.33
미래에셋 TIGER 생화학소재증권	주식형	20120116	53	8.44	10.02	-0.27
삼성 KODEX 반도체증권	주식형	20060626	102	7.13	2.31	5.87
미래에셋 TIGER 반도체증권	주식형	20060626	1,276	7.04	2.22	5.92
삼성 KODEX 골드선물특별자산	커머리티형	20100929	41	6.86	-2.14	-7.08
미래에셋 TIGER 헬스케어	주식형	20110715	84	6.43	-4.24	4.01
미래에셋 TIGER 금은선물특별자산	커머리티형	20110407	49	5.58	-3.36	-7.76

※출처: 제로인, 기준일: 2014-05-20, 단위: 억원, %

ETF 수익률 'TIGER'가 지켰다

톱10중 6곳이 미래에셋... 'US리츠부동산' 15.23%로 1위

글로벌 리츠펀드가 올 들어 수익률 고공 행진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미래에셋 자산운용의 'TIGER합성-MSCI US리츠부동산ETF'가 주목을 받고 있다.

27일 펀드평가사 제로인에 따르면 연초 이후 수익률 15.23%를 기록하고 있는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합성-MSCI US리츠부동산ETF'가 가장 성과가 우수했다. 지난해 10월에 상장된 이 펀드는 미국 MSCI사에서 발표하는 'MSCI US REIT 지수'를 추종하는 합성ETF다.

해외 부동산 관련 ETF의 성과가 연초 이후 우수했다. 또 다른 합성ETF인 KINDEX

합성-다우존스미국리츠부동산ETF는 연초 이후 수익률 13.59%를 기록했다.

국내에 상장된 10개 합성ETF의 설정 이후 평균 수익률은 3.09%며 설정일이 1년 미만인 상황에서 안정적 수익률을 시현하고 있다. 특히 합성ETF는 새로운 투자처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ETF 시장이 한 단계 도약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원자재 및 섹터ETF도 연초 이후 좋은 수익률을 기록했다. 특히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ETF는 수익률 TOP10에 합성, 원자재, 섹터 등 총 6개 상품을 올리며 과반을 차지했다.

문선영 기자 moon@



저자 부자아빠 (정재호)

부자가 되고 싶다면 워렌버핏처럼 가치주를 담아라!



부자아빠의 주식특강 및 추천주 무료로 받기(스마트폰 시청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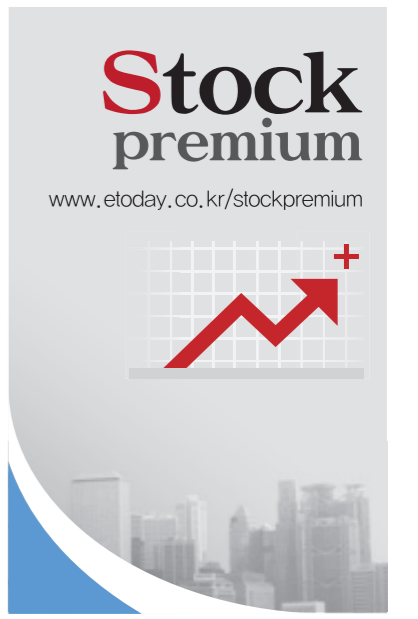
부자아빠 주식학교

검색



매주 수, 일요일 밤 8시 무료 방송진행 (www.88tv.co.kr)

구입처 : 교보인터넷, YES24, 인터파크, 전국유명서점
총 판 : 송인서적



삼광글라스, 3세경영 '잔걸음'

회장 장남 이우성씨 SG개발 감사 맡아 사내이사 이어 비상장 계열사로 세 확장

OCI(家) 삼광글라스의 3세 경영이 본격화했다. 이복영 삼광글라스 회장의 장남 이우성 이테크건설 전무는 지난 3월 삼광글라스 사내이사로 선임되며 경영에 본격 참여한 데 이어 비상장 계열사의 감사직에도 이름을 올리며 경영보폭을 넓히고 있다.



설이 모두 삼광글라스가 주요 주주로 올라갔다는 점에서 SG개발에서 실제 삼광글라스의 영향은 지대하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이우성 전무는 지난 3월 삼광글라스의 비상장 계열사인 SG개발 감사로 등재된 것으로 확인됐다. SG개발은 지난달까지 이복영 회장이 대표이사를 지낸 곳이다.

SG개발은 부동산의 임대와 매매를 주요 사업으로 하는 업체로 지난 2011년 10월 전라북도 군산시에 설립됐다. SG개발은 지난해 매출액은 없으나 당기순이익 1억9675억원을 기록했다.

SG개발의 최대주주는 지분 49.52%를 보유한 삼광글라스다. 군장에너지와 이테크건설이 각각 27.62%, 22.86%의 지분을 보유 중이다. 군장에너지와 이테크건설

글라스(30.71%)와 이복영 회장(5.70%), 이우성 전무(5.14%)가 대량 보유하고 있다.

이 전무는 삼광글라스 사내이사부터 상장 관계사인 이테크건설, 비상장 계열사 SG개발까지 경영에 관여하며 세력을 확장하고 있는 셈이다.

그러나 시장에서는 이 전무의 본격적인 세력 확장이 일반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SG개발 감사직에 오너가인 이 전무가 이름을 올리며 감사의 경영진과 대주주의 견제를 견제하는 의미가 퇴색될 수 있고 결국 주주의 이익과 반하는 의사결정을 회사가 쉽게 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이지수 경제개혁연구소 변호사는 "원론적으로 말하자면 감사의 감시 기능이 떨어질 수 있고 주주의 이해와 상충하는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삼광글라스 관계자는 "감사직을 선임한 배경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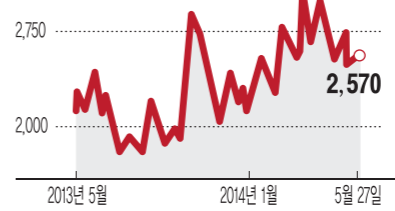
김유진 기자 eugene@

공시 돋보기

워런트 팔아 2년만에 '12억 잭팟' 유니셈 김형균 사장 '샘나는 샘법'

유니셈 김형균 사장이 신주인수권(워런트)을 팔아 2년만에 12억원을 벌었다.

유니셈 주가 추이
단위: 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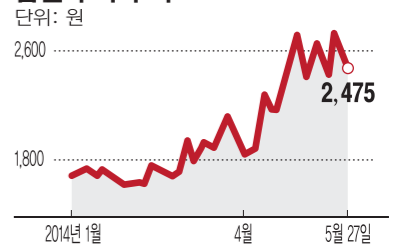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유니셈 김형균 사장은 지난 19일 워런트 165만 7824주를 장외매도 방식으로 팔았다. 매각 상대방은 IBK 금융그룹 동반성장투자조합(79만여주), 천보정밀(33만여주), 신한금융투자(53만여주)로, 이들은 행사가 1508원인 워런트를 주당 736원에 김 사장으로부터 사들였다. IBK캐피탈은 워런트를 행사해 79만5755주를 취득, 5.80%를 보유한 4대주주로 올라섰다.

2011년 유니셈은 운영자금 조달을 위해 한국외환은행을 상대로 50억원 규모의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했다. 발행 직후 김 사장은 25억원에 해당하는 워런트를 주당 88원, 총 1억2500만원에 매입했다. 김 사장은 이렇게 사들인 워런트를 주당 736만원에 되팔아 2년 만에 12억2000만원을 현금화했다.

김 사장은 지난 2003년 이전 최대주인 김경관 씨 사망에 따른 상속으로 최대주주에 올라섰으며 2013년 말 현재 유니셈 주식 200만4531주(15.91%)를 보유하고 있다. 아들 수홍군(6.09%), 태홍군(6.09%)과 친인척 천정현씨(9.14%) 등 특수관계인까지 합하면 38.80% 지분을 가지고 있다.

회사 관계자는 "워런트를 장외 매각한 이유에 대해서는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김희진 기자 heejin@

삼일 주가 추이
단위: 원



삼일, 화물터미널도 처분 올들어 총 769억 현금화

삼일이 올들어 부동산 매각으로 760억원의 현금을 확보했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삼일은 포항 대잠동 소재 화물터미널을 매각했다고 지난 23일 공시했다. 처분금액은 632억6160만원으로 이는 자산총액 대비 57.25%에 해당한다.

지난 16일 128억7198만원을 받고 롯데쇼핑에 매각한 포항 상도동 땅까지 합치면 올들어 부동산 매각으로 769억 원을 번 셈이다.

삼일측은 "재무구조 개선과 신성장동력 확보를 위해 화물터미널을 매각했다"고 밝혔다. 삼일은 지난 2011년 남구 대송면 옥명리 부근에 새로 하치장을 설립을 위한 투자를 단행했다. 새로 창고를 옮기면서 필요없어진 화물터미널을 이번에 처분한 것이다.

삼일은 지난해에도 유형자산처분 이익으로 실적과 주요재무비율이 개선됐다. 지난해 개별재무제표 기준 매출액은 928억5421만원으로 전년 대비 8.3% 증가했고,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은 각각 37.3%, 2241.3% 증가한 44억 7472만원과 48억3161만원을 기록했다. 수익성을 가능할 수 있는 기업순이익율과 매출액순이익율은 2012년 각각 3.4%, 0.2%에서 지난해 7%, 5.2%로 뛰었다.

황윤주 기자 hyj@

대성합동지주 '대성산업 부실탈기' 안간힘

산업가스서 1000억 빌려 단기대여... "일부 차입금 상환"

대성합동지주가 지주 계열 부실의 뇌관인 대성산업 구하기엔 안간힘을 쏟고 있다.

2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전날 대성합동지주는 계열사인 대성산업가스로부터 1000억원을 단기대여 했다. 자금 대여 목적은 '관계사 단기 대여'. 곧이어 대성합동지주는 대성산업가스로부터 빌린 1000억원을 운영자금 목적으로 대성산업에 단기대여 했다.

대성합동지주가 대성산업가스로부터 돈을 빌려 이를 다시 대성산업에 수혈한 것이다.

최근 대성합동지주는 주력 계열사인

대성산업의 부실을 털어내기 위해 전방위적인 자금조달에 나서고 있다. 대성합동지주는 지난 20일 합작사인 프랑스 에어리퀴드(Air Liquide)로부터 대성산업가스 지분 100%를 확보한 뒤, 대성산업가스 지분 60%를 1980억원 규모에 팔드만스 PIA 등에 매각했다.

이어 대성산업가스는 이들을 대상으로 2200억원 규모의 전환사채(CB)를 발행했다. 총 4200억원에 달하는 자금을 조달한 것으로, 대성합동지주는 합작사 지분 매입을 위해 은행권에서 차입한 자금 1765억원을 제외한 나머지 2000여억원의 자

금 가운데 절반 가량을 다시 대성산업에 운영자금으로 수혈했다.

대성산업 해당 자금을 차입금 상황에 쓸 예정이다. 회사측 관계자는 "지주사로부터 대여한 단기자금은 일부 차입금 상환에 쓰일 예정"이라며 "일부 차입금 상황에 따른 이자비용 감소 효과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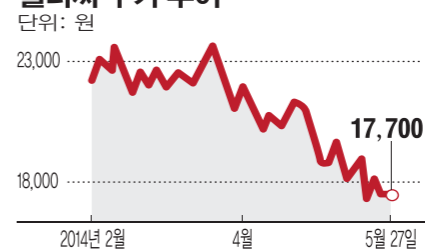
대성합동지주의 주력 계열사인 대성산업은 프로젝트파이낸싱(PF) 부실화에 따른 건설 사업 부분 손실로 차입금이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올해 1분기 말 기준 총 차입금은 1조4810억원으로 가량으로 이자비용만 221억원에 달한다.

김미경 기자 mj@

엘티씨, LG와 연료전지 소재 공동개발

코스닥 상장사 엘티씨가 LG그룹이 추진하고 있는 차세대 신사업에 참여해 발전용 연료전지에 들어가는 소재를 공동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엘티씨 주가 추이
단위: 원



27일 업계 관계자는 "LG그룹이 전자와 화학 등 2개 계열사를 내세워 차세대 신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발전용 연료전지 사업에 엘티씨가 참여해 소재를 공동개발했으며 현재 시범 생산 중"이라고 전했다.

LG그룹은 지난 2012년 영국 플스로이스 자회사인 '플스로이스퓨얼셀시스템즈'의 지분 51%를 인수하며 ESS 등 발전용 연료전지 사업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연료전지는 수소를 공기 중 산소와 화학반응시켜 전기를 생성하는 차세대 에너지원이다. 용도에 따라 휴대용, 자동차용, 발전용 등으로 개발되고 있으며 오염물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이 장점이다.

세계 시장 규모는 2014년 9억 달러, 매년 시장이 성장하면서 오는 2020년에는 64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현재 삼성, 포스코, GS, 두산 등이 관련

사업을 펼치고 있으며 이번에 LG까지 본격적으로 가세한 것이다.

하지만 가장용 연료전지, 차과용 세라믹 소재로도 사용되는 연료전지 소재 나노분말은 현재 일본과 독일에서만 생산 중이다.

이에 정부에서도 국책과제를 통해 소재 개발 지원에 나섰다. 엘티씨는 발전용 이외에 가정용과 차과용 연료전지 소재 개발에 모두 참여했다.

이와 관련 엘티씨 관계자는 "연료전지 소재를 개발해 국산화를 마치고 관련 업체에 공급할 수 있도록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설경진 기자 skj78@

'52주 신고가' 엠케이전자 차정훈 회장, 자사주 84만주 매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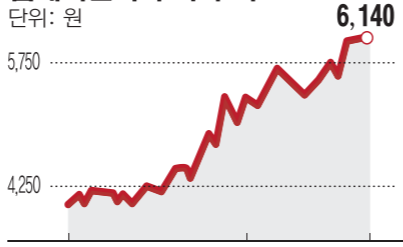
엠케이전자 차정훈 회장이 회사 지분을 대량으로 매입해 향후 주가 움직임에 관심이 쏠린다.

이 회사 주가는 올들어 꾸준한 상승장 폭탄을 그리고 있는데 지난 22일에는 장중 한때 6240원을 터치하며 52주 신고가를 갈아치웠다. 27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차 회장은 자사주 84만주를

장내 매수했다. 차 회장이 회사 지분 매입에 들인 금액은 51억원이 조금 넘는다.

이로써 차 회장의 지분은 기존 0%에서 3.85%가 됐다. 이와 함께 엠케이전자 최대주주인 오션비홀딩스는 차 회장을 특수관계인에 추가, 오션비홀딩스의 지분은 기존 26.13%에서 26.93%로 0.80%p 늘어난다. 강인호 기자 kangih@

엠케이전자 주가 추이
단위: 원





2014년 여름 바야흐로 휘센의 계절입니다

올 여름도, 4°C 더 낮은 시원한 바람과
상하좌우 빈틈없이 불어오는 바람이
당신을 휘감을 것입니다

이제, 대한민국은 휘센의 바람으로 가득할 것입니다

이 시원한 느낌 그대로



2014
신제품

2014년 여름,
대한민국에 불어 올 휘센의 새 바람



국내유일!
4°C 더 낮은 바람으로 더 시원한
아이스 쿨파워



사람은 더 시원하고,
공간 전체를 빈틈없이 냉방하는
포커스 4D 입체냉방



황사, 0.02µm 초미세먼지까지
완벽 제거
퍼펙트 공기청정



전 모델 에너지프런티어 획득
전기로 걱정없는 절전 에어컨
초절전 인버터

LG WHISEN